

세미나 자료

『韓・EU FTA의 경제적 효과』
세미나

2006. 6. 12

주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韓・EU FTA의 경제적 효과』 세미나 프로그램

□ 개 요

- 장소 :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
- 일시 : 2006년 6월 12일(월) 14:00 - 18:00
- 주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SNU-KIEP EU센터), 한국무역협회

□ 프로그램

13:30 - 14:00 : 등록

14:00 - 14:15 : 개회식

개회사 :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14:15 - 15:30: Session 1 -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사회 : 현오석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소장)

발표 1 : 한・EU 경제통상 관계

정재화 (무역연구소 FTA 팀장)

발표 2 :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 CGE 모형을 중심으로

김홍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럽팀장)

토론 1 : 김영준 (외교통상부 구주통상과)

토론 2 : 박성훈 (고려대학교 교수)

15:30 - 15:45 : Coffee Break

15:45 - 17:15 : Session 2 - 한·EU FTA의 부문별 영향 분석

사회 : 김박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한국 EU학회 회장)

발표 1 : 한·EU FTA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
어명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발표 2 : 한·EU FTA의 효과: 제조업 부문
이창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표 3 : 한·EU FTA의 효과: 서비스 부문
박순찬 (공주대학교 교수)

발표 4 : 한·EU FTA 체결에 따른 수산 부문의 영향과 고려사항
김남두 (강릉대학교 교수)

토론 1 :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2 : 김도훈 (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

토론 3 : 송영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 4 : 이광남 (한국수산물 수산정책연구소 연구위원)

17:15 - 17:45: 종합토론 및 폐회

사회 : 김세원 교수 (서울대 명예교수/SNU-KIEP EU센터 위원장)

패널 참석자: 현오석(무역연구소), 김박수(KIEP), 김득갑(SERI)

세미나 안내문

한국과 EU가 외교관계를 맺은 지 43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양국간 경제관계는 크게 발전하여 2005년 현재 EU는 한국의 2대 수출대상국이자 한국의 최대 투자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EU의 8대 교역 대상국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국간의 획기적인 경제관계의 발전을 배경으로 양국간 FTA 체결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무역협회 무역연구소와 함께 아래와 같이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와 타당성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 세미나가 양국간 FTA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양국간 관계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을 확신하면서 많은 관심과 활발한 의견개진을 기대합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이 경 태

목 차

발표 1. 한 · EU 경제통상 관계	1
발표 2. 한 · EU FTA의 경제적 효과 - CEG 모형을 중심으로	33
발표 3. 한 · EU FTA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	61
발표 4. 한 · EU FTA의 효과: 제조업 부문	68
발표 5. 한 · EU FTA의 효과: 서비스 부문	91
발표 6. 한 · EU FTA 체결에 따른 수산 부문의 영향과 고려사항	106

한 · EU 경제통상관계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정재화 FTA연구팀장

목 차

I. EU 개황	3
II. 한-EU 교역	5
III. 한-EU 투자	13
IV. 한-EU 관세율 현황	16
V. 기타 통상현안	24
VI. 한-EU FTA에 대한 시사점	29

I. EU 개황

- o 57년 로마조약에 의거, 프랑스, 룩셈부르크, 이태리,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6개국이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형태로 출발
- o 2004년 5월 동구 10개국의 EU 가입까지 모두 5차례의 확대가 있었으며 현재 EU는 4억 8천만명의 인구와 13조 4천억달러의 GDP 규모를 자랑하는 거대한 단일시장임

<EU 확대의 역사>

단위: 백만명, 십억불

	회원국수	신규회원국	GDP	인구
1차 확대('73)	9	덴마크, 영국, 아일랜드	1,102.5	273.3
2차 확대('81)	10	그리스	2,572.5	288.2
3차 확대('86)	12	포르투갈, 스페인	3,532.3	338.5
4차 확대('95)	15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8,605.2	372
5차 확대('04)	25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사이프러스	8,874.6	479.9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동구 확대의 배경과 의의’(김득갑, 삼성경제연구소) 참고

- o EU는 2003년에 1.2%의 부진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나 2004년 세계경기 호조에 따른 수출 확대에 힘입어 경기가 호전되었음
- 그러나 2004년 하반기부터 2005년 상반기까지 세계경기 호조세 둔화, 고유가, 유로화 강세, EU 일부 국가들의 내수 위축 등으로 성장이 다시 정체되었음

<EU 및 주요 회원국의 경제성장률 추이(%)>

	2001	2002	2003	2004	2005
E U	1.9	1.2	1.2	2.4	1.6
독 일	1.2	0.1	-0.2	1.6	0.9
프 랑 스	1.9	1.0	1.1	2.3	1.2
이탈리아	1.8	0.3	0.0	1.1	0.0
네델란드	1.9	0.1	-0.1	1.7	1.1
스 페 인	3.5	2.7	3.0	3.1	3.4
영 국	2.2	2.0	2.5	3.1	1.8

자료: Eurostat

- o EU는 유럽 지역 거의 대부분의 국가와 FTA를 맺은 상태이며 아프리카 대륙의 남아공, 모로코, 알제리와 중동 지역의 요르단, 이집트, 이스라엘, 레바논, 그리고 중남미의 칠레와 멕시코 등과도 FTA를 체결하고 있음
 - 현재는 MERCOSUR, GCC 등과 협상을 진행 중임
- o 2004년까지 동구권을 포괄하는 EU의 확대·심화에 역량을 집중하며 WTO DDA의 추진에 주력해 온 결과, 새로운 FTA 협상에 소극적이었음
 - 하지만 금년 들어 한국, ASEAN 등 아시아 국가와의 FTA 체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음
- o EU는 지역공동체간 FTA 체결을 선호하는데 그간 개별국 위주로 체결한 FTA의 성과가 수출증대, 개도국의 교역지원 등의 목표 달성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임
 - 결과적으로 Mercosur, GCC 등 지역공동체와의 FTA 협상에 주력
- o 또한 EU는 대규모 경제권과의 FTA 체결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왔는데 이는 다자교역 체계의 내실과 발전을 위해 거대 경제권간의 교역은 WTO 체제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임

- 따라서 중국, 인도, 미국 등과의 FTA는 시도하지 않고 있음

<EU의 FTA 추진 현황>

기 체 결	협 상 중	검 토 중
EU, EFTA, 이스라엘, 레바논, 알제리, 요르단('02.5월 발효), 멕시코('00.10월 발효), 모로코, 터키, 칠레('03.2월 발효), 남아공, 이집트 등	MERCOSUR, GCC	ASEAN, 대만, 싱가폴

II. 한-EU 교역

1. 개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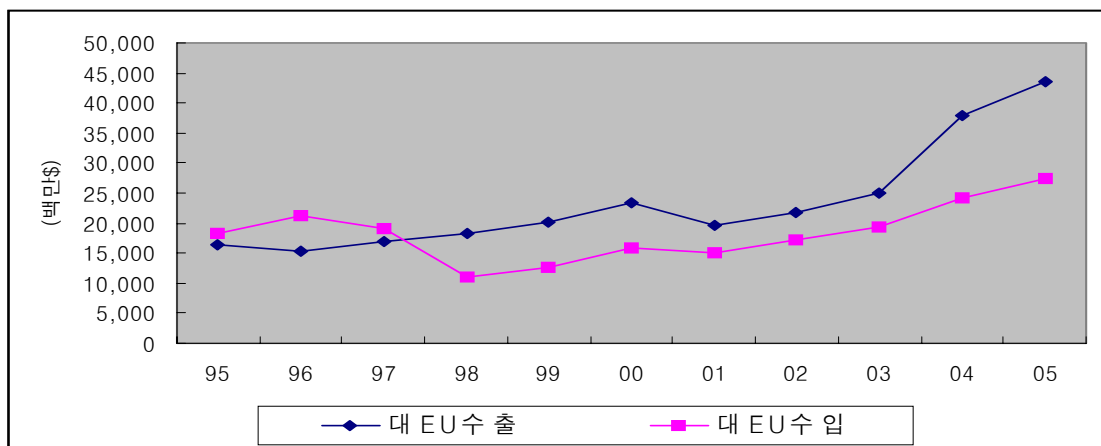
- o 2005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EU 수출실적은 436억 달러, 수입실적은 272억 달러를 기록하여 총 709억 달러의 교역을 기록했음
- 1995년의 한-EU 총 교역은 345억 달러로 10년간 교역 규모는 2배 이상 늘었음
- o 2005년 대EU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4%, 수입에서는 10.4%의 비중을 차지했는데 10년 전과 비교해보면 수출 비중은 2.4%포인트 늘어났으나 수입비중은 2.1%포인트 감소했음
- o 우리는 EU를 상대로 98년 이후로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 규모가 EU 5차 확대가 있었던 2004년 급증해 2005년 163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나타냄

<한-EU 교역 실적>

단위: 백만달러, %

	수 출	비 중	수 입	비 중	수 지
1995	16,301	13.0	18,191	13.5	-1,890
1996	15,325	11.8	21,204	14.1	-5,879
1997	16,864	12.4	18,983	13.1	-2,119
1998	18,171	13.7	10,928	11.7	7,243
1999	20,241	14.1	12,629	10.5	7,612
2000	23,424	13.6	15,788	9.8	7,635
2001	19,627	13.0	14,921	10.6	4,705
2002	21,694	13.4	17,107	11.2	4,587
2003	24,887	12.8	19,383	10.8	5,505
2004	37,830	14.9	24,187	10.8	13,643
2005	43,659	15.4	27,296	10.4	16,363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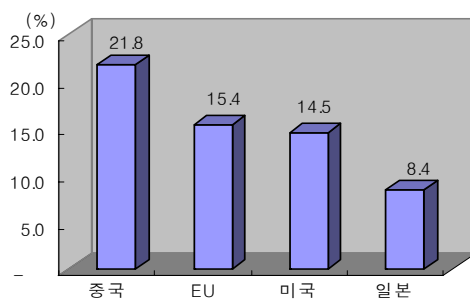
- o 2005년 기준, 우리의 최대수출국인 중국에 이어 EU가 2대 수출국의 위치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미국, 일본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한편 최대수입국은 일본이며 다음으로 중국, 미국에 이어 EU가 4대 수입국의 위치를 차지함

<한국의 2005년 주요 교역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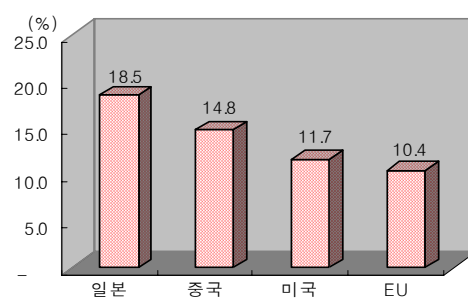
순 위	수출국	수출금액(백만불)	수입국	수입금액(백만불)
1	중 국	61,915	일 본	48,403
2	E U	43,659	중 국	38,648
3	미 국	41,343	미 국	30,586
4	일 본	24,027	E U	27,296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주요 수출국에 대한 수출 비중>



<주요 수입국에 대한 수입 비중>



2. EU 회원국별 교역

- o EU 회원국별 수출실적을 보면, 독일이 103억 달러를 기록해 전체에서 가장 많은 비중(23.6%)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이 영국(12.2%), 이탈리아(9.8%), 네델란드(8.4%), 프랑스(7.3%)의 순으로 나타남
- o 회원국별 수입실적을 보면 대독일 수입이 97억 달러로 35.8%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이 영국(11.5%), 이탈리아(10.2%), 네델란드(10.1%), 프랑스(10.1%)의 순임. 상위 5개 수입국의 수입실적이 전체에서 77%로 대부분을 차지함

<EU 회원국별 수출입 실적>

순위	수 출			수 입		
	수출국	금액(백만불)	*비중(%)	수입국	금액(백만불)	*비중(%)
1	독 일	10,304	23.6	독 일	9,774	35.8
2	영 국	5,339	12.2	영 국	3,149	11.5
3	이 태 리	4,297	9.8	이 태 리	2,778	10.2
4	네덜란드	3,647	8.4	네덜란드	2,760	10.1
5	프 랑 스	3,172	7.3	프 랑 스	2,759	10.1
6	스 페 인	2,867	6.6	스 웨 덴	977	3.6
7	핀 란 드	2,012	4.6	벨 기 에	967	3.5
8	벨 기 에	1,817	4.2	아일랜드	835	3.1
9	그 리 스	1,793	4.1	핀 란 드	659	2.4
10	폴 란 드	1,175	2.7	스 페 인	653	2.4
11	헝 가 리	1,099	2.5	오스트리아	645	2.4
12	오스트리아	971	2.2	덴 마 크	560	2.1
13	스 웨 덴	904	2.1	헝 가 리	151	0.6
14	사이프러스	884	2.0	체코공화국	150	0.5
15	슬로바키아	692	1.6	폴 란 드	116	0.4
16	아일랜드	651	1.5	그 리 스	93	0.3
17	덴 마 크	621	1.4	룩셈부르크	71	0.3
18	몰 타	418	1.0	몰 타	53	0.2
19	포르투갈	381	0.9	포르투갈	48	0.2
20	체 코	339	0.8	에스토니아	33	0.1
21	슬로베니아	92	0.2	슬로바키아	31	0.1
22	리투아니아	78	0.2	슬로베니아	20	0.1
23	에스토니아	48	0.1	리투아니아	5	0.0
24	라트비아	45	0.1	라트비아	4	0.0
25	룩셈부르크	14	0.0	사이프러스	4	0.0

* 비중=회원국별 수출입실적/EU 전체 수출입실적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o 우리나라가 EU 회원국을 상대로 가장 많은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는 스페인으로 22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다음으로 영국이 21억 달러, 그리스 17억 달러, 이탈리아 15억 달러, 핀란드 13억 달러의 순으로 나타남

- 한편 무역적자를 기록한 국가는 3개로 룩셈부르크, 스웨덴, 아일랜드임

<EU 회원국별 무역수지 규모>

순위	국 가	금액(백만불)	비중(%)
1	스 페 인	2,214	13.5
2	영 국	2,190	13.4
3	그 리 스	1,700	10.4
4	이탈리아	1,519	9.3
5	핀 란 드	1,353	8.3
6	폴 란 드	1,059	6.5
7	헝 가 리	948	5.8
8	네덜란드	887	5.4
9	사이프러스	880	5.4
10	벨 기 에	850	5.2
11	슬로바키아	661	4.0
12	독 일	530	3.2
13	프 랑 스	413	2.5
14	몰 타	365	2.2
15	포르투갈	333	2.0
16	오스트리아	326	2.0
17	체코공화국	189	1.2
18	리투아니아	73	0.4
19	슬로베니아	72	0.4
20	덴마크	61	0.4
21	라트비아	41	0.3
22	에스토니아	15	0.1
23	룩셈부르크	-57	-0.3
24	스 웨 덴	-73	-0.4
25	아일랜드	-184	-1.1
	총 계	16,363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3. 산업 · 품목별 교역구조

- o 한국은 EU에 대해 전자전기, 기계류를 주력수출품(비중 86.6%)으로 하고 있으며 수입품은 기계, 전자전기, 화공품의 순임
- 그 외 한국은 섬유류, 플라스틱고무 등에 특화하고 있으나 EU는 철강제품, 농림수산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큼

<대EU 품목별 수출입 구조('05년)>

(단위 : 백만불, %)

수출				수입			수지
순위	품목	금액	비중	순위	금액	비중	금액
-	총계	43,659	100.0	-	27,296	100.0	16,363
1	전자전기제품	20,110	46.1	2	6,039	22.1	14,071
2	기계류	17,694	40.5	1	9,306	34.1	8,388
3	화학공업제품	1,350	3.1	3	4,859	17.8	-3,509
4	섬유류	1,202	2.8	6	844	3.1	358
5	플라스틱고무및 가죽제품	1,095	2.5	8	560	2.1	535
6	철강금속제품	837	1.9	4	2,445	9.0	-1,608
7	광산물	688	1.6	7	652	2.4	36
8	생활용품	322	0.7	9	542	2.0	-220
9	잡제품	233	0.5	10	477	1.7	-244
10	농림수산물	127	0.3	5	1,570	5.8	-1,443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o 대EU 품목별 수출을 보면, 무선통신기기가 85억불을 기록해 전체에서 1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는 19.0%, 선박해양구조물이 13.7%, 컴퓨터가 6.1%를 차지함

<대EU 품목별 수출('05년)>

순위	품목명	금액(백만불)	비중(%)
1	무선통신기기	8,560	19.6
2	자동차	8,312	19.0
3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5,974	13.7
4	컴퓨터	2,665	6.1
5	영상기기	2,263	5.2
6	반도체	2,202	5.0
7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1,372	3.1
8	건설광산기계	783	1.8
9	고무제품	720	1.6
10	자동차부품	661	1.5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o 대EU 최대 수출품목인 무선통신기기의 경우 전체 무선통신기기의 수출에서 대EU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31.1%로 매우 높은 편임

- 동품목의 최대수출국은 미국으로 대미 수출 비중이 21.2%, 다음으로 대중 수출 비중 13.5%를 기록
- 무선통신기기의 5대 수출국 중 EU 회원국은 독일(수출비중 5.7%), 이태리 (5.1%), 영국(5.0%) 등 3국가가 포함되어 있어 우리 무선통신기기의 대유럽 수출이 매우 활발함

<우리나라 무선통신기기의 5대 수출국 현황>

단위: 백만달러, %

순 위	국 가	금 액	비 중
1	미 국	5,838	21.2
2	중 국	3,708	13.5
3	독 일	1,558	5.7
4	이태리	1,412	5.1
5	영 국	1,378	5.0
	E U	8,560	31.1
	전 체	27,495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o 한편 2대 수출품목인 자동차의 경우도 대EU 수출비중이 전체에서 28.2%로 높게 나타났으며 우리나라 자동차 주요 수출 5대 시장 중에서 스페인, 독일, 이태리 등 3개 국가가 EU 회원국임
- 대미 수출 비중이 29.6%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스페인이 4.8%, 캐나다 4.3%, 독일 4.1%, 이태리가 4.0%의 순으로 나타남

<우리나라 자동차의 5대 수출국 현황>

단위: 백만달러, %

순 위	국 가	금 액	비 중
1	미 국	8,736	29.6
2	스페인	1,423	4.8
3	캐나다	1,274	4.3
4	독 일	1,200	4.1
5	이태리	1,171	4.0

	E U	8,312	28.2
	전 체	29,506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자동차의 대스페인 수출 비중이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스페인에서 SUV 차량 판매가 급증하면서 우수한 디자인에 고성능을 갖춘 합리적인 가격의 우리 SUV 자동차가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임
- 2005년 상반기 중 스페인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10대 SUV 차량 중 한국산 모델은 현대의 투싼, 기아의 소렌토와 스포티지, 쌍용의 렉스턴 등 4개나 포함되어 있으며 시장점유율은 약 20%에 달함

<스페인 10대 SUV 차량 모델('05년 상반기)>

순위	브랜드명	모델명	판매대수	시장점유율(%)
1	도요타	Land Cruiser	4,977	8.12
2	현 대	Tucson	3,697	6.03
3	BMW	X3	3,688	6.01
4	도요타	Rav-4	3,402	5.55
5	스즈키	Gran Vitara	3,389	5.53
6	기 아	Sorento	3,053	4.98
7	쌍 용	Rexton	2,691	4.39
8	기 아	Sportage	2,527	4.12
9	BMW	X5	1,391	3.15
10	니 썬	Pathfinder II	1,764	2.88
총계			61,325	100.00

자료: KOTRA 마드리드 무역관 참고

- o 한편 대EU 품목별 수입의 경우 반도체가 14억불의 수입실적을 기록해 5.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반도체제조용장비가 5.0%, 자동차부품이 4.5%, 측정제어분석기가 4.2%, 자동차 4.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대EU 품목별 수입('05년)>

순위	품목명	금액(백만불)	비중(%)
1	반도체	1,400	5.1
2	반도체제조용장비	1,375	5.0
3	자동차부품	1,233	4.5
4	계측제어분석기	1,141	4.2
5	자동차	1,092	4.0
6	농약 및 의약품	1,023	3.7
7	기계요소	977	3.6
8	원동기 및 펌프	895	3.3
9	철강관	685	2.5
10	정밀화학원료	683	2.5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III. 한-EU 투자

1. 한국의 대EU 투자

- 한국의 대EU 해외투자 누적액은 2005년말 91억89백만 달러로 전체 해외투자(882억 달러)에서 10.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한국의 대EU 해외투자 현황>

(단위 : 건, 백만불)

	1968-1980	1981-1990	1991-2000	2001-2005	누계
신고건수	56	93	325	347	821
신고금액	58	200	3,940	4,990	9,189

자료: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 한편, 2005년중 EU 회원국별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슬로바키아가 2억 9천 만달러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폴란드, 영국, 룩셈부르크 순으로 나타남

- 특히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체코 등 동유럽 투자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동유럽 지역의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2004년 EU 확대 이후, 주변 EU국가에 무관세 수출이 가능해졌기 때문임
- 기아차의 슬로바키아 공장, 폴란드의 LG 전자 공장, 헝가리와 슬로바키아의 삼성전자 공장 등이 그 예이며 투자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EU 회원국별 투자 현황(2005년)>

순위	국가	건수	금액(천불)
1	슬로바키아	15	290,759
2	폴란드	17	97,883
3	영국	22	92,882

4	룩셈부르크	3	45,093
5	네덜란드	11	40,987
6	독 일	17	40,417
7	프 랑 스	11	27,383
8	헝 가 리	3	11,079
9	체 코	2	10,600
10	몰 타	2	9,558
	E U	119	684,408

자료: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2. EU의 대한민국 투자(2005년중)

- o EU의 대한민국 투자 누적액은 2005년말 현재 354억82백만 달러로 전체 외국
인직접투자(1,155억 달러)에서 30.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EU의 대한민국 투자 현황>

(단위 : 건, 백만불)

	1962-1980	1981-1990	1991-2000	2001-2005	누계
신고건수	104	451	2,025	1,680	4,260
신고금액	117	868	18,913	15,585	35,482

자료: 산업자원부

- o 한편, 2005년중 EU로부터의 투자는 47.8억 달러를 기록해 전체의 41.3%를
기록하면서 최대투자권으로 부상했음
- 이중 미국으로부터의 투자는 전체의 23.3%, 일본으로부터는 16.2%, 홍콩
으로부터는 7.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주요국으로부터의 투자 현황('05)>

투자국	신고금액 (백만불)	비중 (%)
E U	4,780	41.3
미 국	2,689	23.3
일 본	1,878	16.2
홍 콩	819	7.1
싱가폴	388	3.4
전 체	11,564	100.0

자료: 산업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

- 특히 영국과 네덜란드, 독일 등으로부터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2005년중 영국 SCB 은행의 제일은행 인수, 독일 Schott AG의 오창 공장(LCD 유리기판 공장) 건설 등에 기인함

<EU 회원국별 대한국 투자(2005년)>

순위	국 가	건 수	금 액 (백만달러)	비 중 (%)
1	영 국	96	2,308	20.0
2	네 델 란 드	85	1,150	9.9
3	독 일	102	705	6.1
4	룩셈부르크	18	120	1.0
5	헝 가 리	2	89	0.8
	E U	450	4,780	41.3
	전 체	3,707	11,564	100.0

자료: 산업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

IV. 한-EU 관세율 현황

1. 양측의 관세율 비교

- 우리나라와 EU의 평균실행관세율은 각각 11.2%와 4.2%로 상대적으로 우리의 관세장벽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평균관세율이 높은 것은 농산물의 평균관세율이 41.6%에 달하는 것이 주원인이며 비농산물을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 6.7%, EU 4.0%로서 차이가 크지 않음

<한국과 EU의 평균실행관세율(%)>

	한국 ('04)	EU ('05)
전 품 목	11.2	4.2
농산물	41.6	5.9
비농산물	6.7	4.0

자료: WTO World Trade Report 2005

- EU의 경우 수산물, 섬유 및 의류, 화학제품, 수송기계에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농산물을 비롯하여 수산물, 섬유 및 의류, 가죽/고무 등에 상대적으로 관세율을 높게 적용하고 있음

<산업별 관세율(%)>

산 업	한국 ('04)	EU ('05)
농산물	41.6	5.9
비농산물	6.7	4.0
수산물	16.1	11.6
광물	5.7	2.0
석유	5.1	3.1
목재 및 펄프	2.4	1.1
섬유 및 의류	10.1	7.9
가죽/고무 및 신발류	7.9	4.2

금속	4.3	1.9
화학제품	5.8	4.5
수송기계	5.4	4.1
기계	6.0	1.7
전자	6.0	2.5
기타제조업	6.4	2.5
평균	11.2	4.2

자료: WTO World Trade Report 2005

- o 관세율 구조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품목이 종가세 적용을 받지만 EU의 경우 비종가세를 적용받는 품목의 비중이 10.2%에 달함

<한국과 EU의 종가세/비종가세 현황>

	E U		한 국	
	품목수(개)	비중(%)	품목수(개)	비중(%)
종 가 세	8,800	89.8	11,184	99.3
비종가세	1,004	10.2	77	0.7
전 체	9,804	100.0	11,26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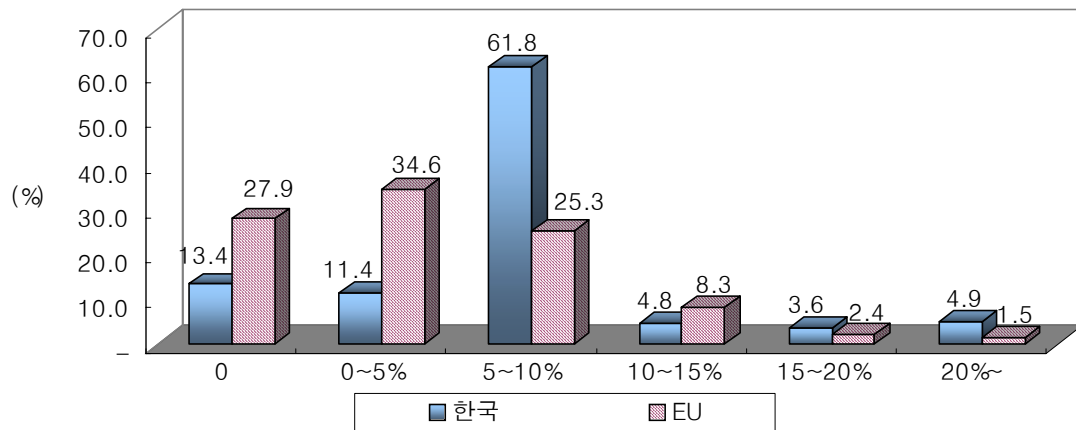
자료: 각 관세율 DB 참고

- o 우리나라는 관세율 5~10% 적용 비율이 다른 관세율 적용 구간 적용 비율보다 월등히 높게(61.8%) 나타난 반면, EU는 무관세, 0~5%, 5~10% 적용 비율이 서로 비슷하게 나타남
- 무관세 적용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13.4%인 반면 EU는 27.9%로 두 배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0~5% 적용 비율 역시 우리나라가 11.4%, EU가 34.6%로 세 배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EU가 우리에게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비중이 큼
- 한편 20%를 넘는 초고관세를 적용하는 비중은 우리나라가 4.9%, EU가 1.5%로 나타남

<한국과 EU의 관세율 분포>

관세율	한 국		E U	
	품목수(개)	비중(%)	품목수(개)	비중(%)
0%	1,498	13.4	2,457	27.9
0% ~ 5% 이하	1,280	11.4	3,048	34.6
5% ~ 10% 이하	6,916	61.8	2,224	25.3
10% ~ 15% 이하	535	4.8	727	8.3
15% ~ 20% 이하	404	3.6	208	2.4
20% 초과	551	4.9	136	1.5
합계	11,184	100.0	8,800	100.0

자료: 각 관세율 DB 참고, 종가세만을 대상으로 분석



2. EU의 고관세적용 품목

o 20%를 초과하는 초고관세 적용 품목 136개 중 채소/과일조제품이 52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품목은 잼, 과일 젤리, 조제 과일 등인 것으로 나타남

- 신선 및 냉동 참치 등 어류 51개 품목과 조제 참치, 고등어, 멸치 등 육류 및 어류 조제품 13개 품목에 20% 초과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 다음으로 화물자동차, 담배, 딸기, 와인 등도 초고관세 적용 품목에 해당

<EU의 초고관세(20%초과) 적용 주요 품목>

(개, %)

HS		주요 품목	개수	관세율
03	어류	신선 및 냉동 참치	51	22.0
20	채소/과일조제품	잼, 과일젤리, 조제 파인애플, 배, 살구, 체리, 딸기 등	52	20.8-33.6
16	육류/어류조제품	조제 참치, 고등어, 멸치	13	24.0-26.0
87	차량	화물자동차	10	22.0
24	담배	담배, 담배대용물	6	26.0-74.9
08	식용과실	딸기, 라즈베리 등	3	20.8
22	음료	와인	1	32.0

- o 15~20% 사이의 관세율을 적용받는 주요 품목은 식초 저장 오이, 양파, 버섯과 각종 과일 주스 등 채소/과일 조제품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소시지와 조제 소고기 등 육류/어류 조제품과 신발, 냉동 어류 필레 등이 있음

<EU의 15~20% 관세 적용 주요 품목>

(개, %)

HS		주요 품목	개수	관세율
20	채소/과일조제품	식초 저장 오이, 양파, 버섯 및 콩, 오렌지주스, 파인애플 주스, 토마토 주스 등	108	15.2-20.0
16	육류/어류조제품	소시지, 조제 소고기 및 기타 육류	31	15.4-20.0
64	신발/모자류	고무/플라스틱 갑피의 신발, 방수신발	26	17.0
03	어류	냉동어류 필레, 훈제 어류 필레	16	16.0-20.0
02	육류	햄, 조제 양, 염소고기 등	10	15.4

- o 10~15% 관세율을 적용받는 품목 거의 대부분이 의류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메리야스 및 뜨개질 편물 의류가 139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셔츠, 자켓, 바지, 치마 등 일반 의류가 178개, 여행용 가방, 커튼 등 기타 섬유제품이 57개를 기록

- 송어, 대구, 정어리 등 어류가 102개, 조제 토마토 및 버섯 등 채소/과일 조제품이 56개, 감자, 양배추, 상추 등 식용채소가 44개, 무선전화, TV 수신기기 등 전기기기 40개 등의 순으로 나타남

<EU의 10~15% 관세 적용 주요 품목>

(개, %)

HS		주요 품목	개수	관세율
61	메리야스/뜨개질 편물 의류	메리야스 및 뜨개질 편물의 셔츠, 자켓, 바지, 치마 등	139	10.5, 12.0
62	의류 및 부속품	셔츠, 자켓, 바지, 치마	178	10.5, 12.0
03	어류	신선 및 냉장 송어, 대구, 정어리, 냉동 송어, 넙치, 염장처리 청어, 대구 등	102	12.0-15.0
63	기타섬유제품	여행용 가방, 커튼, 린넨, 천막, 텐트 등	57	12.0
20	채소/과일조제품	조제 토마토 및 버섯 기타 조제 과일 및 과일 주스	56	10.5-15.0
07	식용 채소/뿌리	감자, 양배추, 상치, 당근, 아스파라거스 등	44	10.4-14.4
85	전기기기	무선전화, TV 수신기기, 열전자관 및 음극선관	40	12.0, 14.0
16	육류/어류조제품	돼지고기 햄, 캐비어 및 캐비어 대용품 등	21	10.2-15.0
70	유리/유리제품	식탁, 부엌 등 실내장식용 유리제품	19	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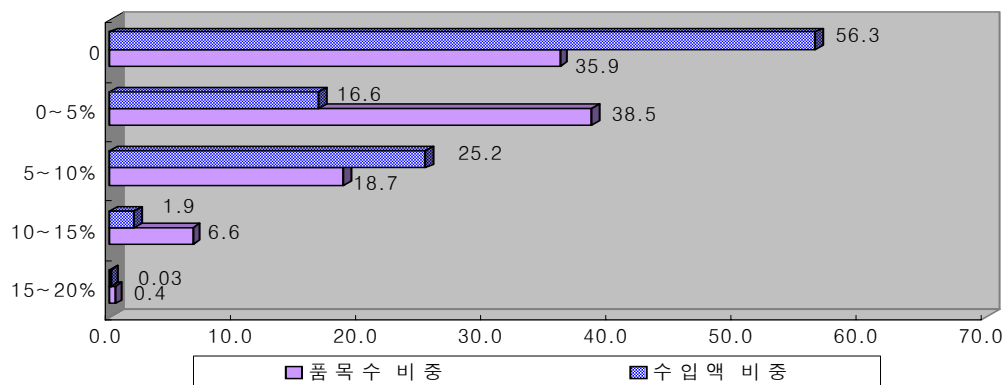
3. 우리나라의 대EU 주요 수출품에 대한 고관세 현황

- o EU의 대한국 수입 실적('05년 기준) 천만유로 이상 품목 273개(CN 8단위 기준/전체 수입 실적의 87% 차지)에 부과되는 관세율을 검토한 결과 무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98개로 전체의 35.9%를 차지했으며 5% 이하의 관세율을 적용받는 품목은 105개로 38.5%, 5~10% 관세율 적용 품목은 18.7%의 비중을 차지함
- 반면 10%를 초과하는 관세율을 적용받는 품목은 모두 19개로 전체의 7%를 차지하고 있음
- 한편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무관세 적용 품목이 161억유로로 56.3%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5% 이하 관세율 적용 품목은 16.6%, 5~10% 이하의 관세율 적용 품목은 25.2%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10% 초과 관세율을 적용받는 품목은 1.9%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EU의 대한민국 주요 수입품에 대한 관세 적용>

	품목수(개)	비중(%)	수입액(백만유로)	비중(%)
무 관 세	98	35.9	16,143	56.3
0~5%	105	38.5	4,770	16.6
5%~10%	51	18.7	7,235	25.2
10%~15%	18	6.6	531	1.9
15%~20%	1	0.4	10	0.0
소 계	273	100.0	28,689	100.0



- o 10%를 초과하는 관세율을 적용받는 주요 품목은 전기기기(HS 85)로 12개 품목, 3억9천만유로의 수입실적을 기록하고 있음
- 주요 품목으로는 TV 수신용 기기(HS 8528) 7개, 영상기록용 기기(HS 8521), 비디오 카메라 및 라디오 방송수신용 기기 등이 있으며 14%의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음
- 다음으로 메리야스 및 뜨게질 편물 의류(HS 61)가 5개 품목, 1억3천만유로를 기록하고 있으며 가디건, 셔츠, 양말류 등이 이에 해당하며 12%의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음

- 이외에 조제 어류 및 방직용 섬유제품이 각각 20%와 12%의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음

<10% 초과 관세율 적용 주요 품목>

단위: 개, %, 백만유로

품목			수	관세	수입 금액
85	8528	TV 수신용 기기	7	14	389
	8521	영상기록용기기	2		
	8525	비디오카메라	1		
	8527	라디오방송 수신용 기기	1		
	8540	TV 음극선관	1		
61	6110	메리야스/뜨개질 편물의 저지, 가디건	3	12	131
	6109	티셔츠 및 조끼	1		
	6115	타이즈, 스타킹, 양말	1		
16	1604	조제/저장처리 어류	1	20	10
63	6307	방직용섬유제품	1	12	10

- o 5~10% 사이의 관세율을 적용받는 주요 품목에는 승용자동차(HS 8703), 화물자동차(HS 8704), 모터사이클(HS 8711) 등 차량이 10개 품목, 61억 유로의 수입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10%의 관세율을 적용받음

- 다음으로 각종 화학수지 및 플라스틱 제품류(HS 39)가 14개 품목, 4억7천만 유로의 수입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6.5%의 관세율을 적용받음

- 이외에 메리야스 및 뜨개질 편물, 합성 섬유 직물 등의 품목이 8%의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5~10% 관세율 적용 주요 품목>

단위: 개, %, 백만유로

품목			수	관세	수입 금액
87	8703	승용자동차	8	10	6,124
	8704	화물자동차	1		
	8711	모터사이클	1		
39	3903	스티렌 중합체	2	6.5	477
	3907	폴리카보네이트, 폴리아세틸	3		
	3920	기타 플라스틱제 판, 쉬트, 필름	3		
	3906	아크릴 중합체	1		
	3911	석유수지	1		
	3912	셀룰로스	1		
	3921	플라스틱제 판, 쉬트, 필름	1		
	3924	플라스틱제 식탁, 주방용품	1		
	3926	기타 플라스틱 제품	1		
29	2933	암모늄염	3	5.5, 6.5	114
	2916	아크릴산	1	6.5	
	2918	카르복시산	1		
	2922	리신	1	6.3	
60	6006	기타 메리야스 및 뜨개질 편물	2	8	136
	6001	파일 편물	1		
	6004	메리야스 및 뜨개질 편물(폭 30cm초과)	1		
	6005	경편직물	1		
54	5407	합성장섬유사 직물	2	8	67
38	3817	알킬 벤젠	1	6.3	41
	3824	화학품 관련 조제품	1	6.5	

V. 기타 통상현안

1. 한국이 EU 측에 제기하는 현안

□ 유럽공동체(Communaute Europeenne:CE) 마크제도

- EU의 통합규격인증 마크제도로 공중 보건, 안전, 환경보호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지만 인증에 소요되는 절차, 시간 및 비용 등으로 우리 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전자제품의 경우 CE 마크 획득에 평균 2~3개월, 자동차는 7개월의 기간과 1억 7천만원의 비용이 수반되어 우리 주력수출품목의 시장확대에 불리하게 작용
 - EU 회원국들은 일부 품목에 있어서 상이한 표준, 시험 및 인증 절차를 유지하고 있어 EU 내에서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

□ 신화학물질 관리정책(REACH)

- ◇ REACH는 Registration(등록), Evaluation(평가), Authorization(승인) of Chemicals의 머리글자를 따서 만듦
- 일정량 이상 화학물질 생산자 및 수입자에게 관련 정보의 등록, 위해성 평가, 사용 승인 등의 규제를 부과하여 인체 및 환경에 유해한 각종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
 - 대EU 석유화학제품, 반도체, 의약품 등을 수출하는 우리 화학업체에 영향을 미침

□ 전기전자제품 폐기지침 및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

-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에 대한 관련 폐기물의 수거, 재이용 및 재활용 의무 부과, 유해물질(납, 수은, 카드뮴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신규지침이 2003년 2월부터 시행되었으며 규제의 범위와 정도가 심화되고 있음
- 유럽에 전기전자제품을 수출하는 우리 업체는 현지에서 폐전기전자제품 분리수거를 위한 시설을 확보하고 사용금지물질에 대한 대체 물질 등의 개발이 필요함

□ 자동차 및 비도로 운행기계 배출 가스 규제

- 승용차 및 2.5톤 이하의 소형화물차의 경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및 미세 먼지에 대한 적용 기준이 존재하며, 2-3륜차의 배출 가스 기준을 규제하고 있음

□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

- 벤젠, 석면, 수은화합물, 비소화합물, 카드뮴 등 특정 유해화학물질 및 조제품의 시장 유통이나 사용 요건 등을 규제하고 있으며 꾸준히 개정되고 있음

□ 에코라벨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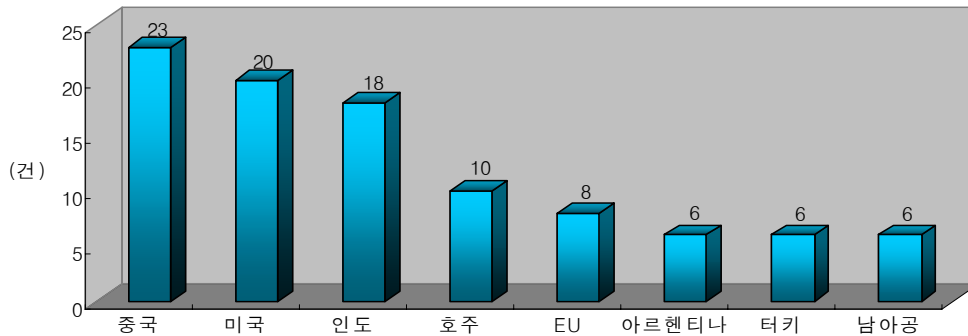
- 1993년부터 친환경 제품에 대해 에코라벨을 부여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 영역이 제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분야(숙박업소 및 캠핑장 서비스)에까지 확대됨

□ 반덤핑 및 상계관세 규제

- 2005년 중 EU로부터 취해진 반덤핑 및 상계관세 등 수입규제 조치는 모두

8건으로 중국 23건, 미국 20건, 인도 18건, 호주 10건에 이어 5위에 오름

<국가별 규제 건수('05)>



o 품목별 규제 현황을 보면, EU는 컬러 TV, 플로피디스크, DRAM 등 4개의 전자전기 제품과 PET 칩과 PET 필름 등 2개의 화학제품, 철강제관연결구류와 폴리에스터단섬유사 등에 수입 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음

- 한편 양문형 냉장고와 컬러 TV 브라운관의 반덤핑 여부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임

o 한국 하이닉스 DRAM에 대한 상계관세는 2002년 7월부터 조사를 개시하여 2003년 8월에 34.8%의 최종 상계관세율을 확정된 바 있음

- 1999~2004년 사이의 한·EU 조선분쟁은 2004년 12월 WTO 패널이 한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사안이 수출입은행의 선수금 지급 보증과 선박제작 금융을 제외한다면 금지보조금이 아니라는 판결과 함께 종결된 바 있음

<EU의 품목별 제소 현황('06. 5월 현재)>

	품 목 명	HS 코드	근거	개시일
규제중	컬러TV(17인치 이하)	8528129010, 20, 30, 40, 50, 60	반덤핑	91. 10
	컬러TV(17인치 초과)	8528129010, 20, 30, 40, 50, 60	반덤핑	95. 3
	플로피디스크	8523200000, 8523201000	반덤핑	94. 9
	폴리에스터단섬유사	5503201000, 5503209000	반덤핑	00. 12

	PET 칩	3907600000	반덤핑	00. 11
	PET 필름	392062	반덤핑	01. 8
	철강제관연결구류	730793, 730799	반덤핑	02. 8
	DRAM	854221210	상계관세	03. 8
조사중	양문형냉장고	72104910, 72106100 등	반덤핑	05. 6
	컬러TV 브라운관	854011	반덤핑	06. 1

자료: 한국무역협회 통상수입규제

2. EU가 한국측에 제기하는 현안

*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 발행 '2006년 무역장벽백서' 참고

□ 화장품

- 우리정부는 기능성 화장품과 관련하여 EU측이 요구했던 대로 화장품법('99.6 제정)을 개정('04. 10)한 바 있으나 여전히 식약청 심사관행이 EU측化粧품의 한국 시장 진출을 막고 있다고 지적
- 우리는 수입化粧품의 경우 외국어는 표시기재사항으로 인정하지 않고 수입化粧품 용기 및 포장의 외국어 표기를 표시 및 광고 위반사항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에 EU는 외국어는 표시기재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며 관련 규제 완화를 요구함
- 우리나라는 기능성化粧품 심사의 경우 기능성 성분의 설정이 어려워 실질적으로 실험 및 평가가 곤란한 실정인데 이에 대해 EU는 기능성 성분의 별도 설정이 아닌 완제품에 대한 검사를 제안

□ 자동차

- EU는 한국과의 자동차 교역에서 무역역조 완화를 지속 제기해 옴. 무역역조 이외에도 우리측이 배기가스 검사기준을 미국식으로 바꾼데 대한 문제

를 제기

- 배출가스 및 소음인정 관련, 우리정부는 휘발유자동차에 대해 미국의 제도(OBD)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EU측은 미국 제도가 아닌 자동차 제작사 자체의 시험 결과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
- o 또한 자기인증 및 안전 기준과 관련, 우리는 미국의 안전 기준(FMVSS)을 시험기준으로 택하고 있는데 EU는 EU 및 UN/ECE기준도 인정해 줄 것을 요구

□ 제약품

- o EU는 우리의 약제전문평가 위원회의 의사 결정 절차가 투명하지 못함을 계속 지적해 옴
- o 혁신적 신약에 A-7(선진 7개국의 평균 가격) 가격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우리 정부는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혁신성에 대해 심사한 후 A-7 조정평균가를 승인해주고 있음
- 이에 EU는 A-7 가격을 선진 7개국에서 이미 혁신성을 인정받은 결과이므로 한국에서 자체적인 심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임

□ 위생검역조치(SPS)

- o EU는 한국이 적자를 보이고 있는 농축산물 분야에 있어서도 한국의 위생 검역조치(SPS) 관련 법령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EU 기업에 대해 차별적으로 적용된다는 문제를 제기함

□ 지적재산권

- 우리 정부는 2005년 중 지재권 보호 관련법 집행을 엄중히 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보여주었음
- EU는 지재권 보호법 집행에 좀 더 많은 인원을 투입하고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여전히 요구하고 있으며 지재권 침해자에게 엄중한 형벌을 적용할 것을 요청함

□ 법률 서비스

- 현재 외국 로펌의 국내 영업, 외국 변호사가 외국법에 관해 한국에서 개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 지난 20여년간 외국 변호사들은 한국 로펌에 ‘법률 고문’이라는 명칭으로 널리 고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업무 처리는 불가능했음
- 이에 따라 EU는 외국 로펌 및 외국인 변호사의 자국법, 국제법 자문은 물론 국내변호사 고용 및 동업 허용 등을 요구

VI. 한-EU FTA에 대한 시사점

□ 거대한 시장규모 매력

- EU 25개국의 GDP 규모는 13.4조 달러로 미국(12.5조 달러)을 상회하며 일본(4.5조 달러)에 비해서는 3배에 상당함
- EU의 역외교역액은 8,088억달러로 미국의 5,783억달러를 크게 상회
- 세계 GDP의 30.3%, 교역액의 26.4%를 각각 차지

<주요국·지역의 경상GDP 및 교역액>

	GDP (2005년, 십억달러)	교역액 (2004년, 십억달러)
세계*	44,433.0	3,060.0
EU(25)*	13,446.1	808.8
미국	12,485.7	578.3
일본	4,571.3	228.9
독일	2,797.3	-
중국*	2,224.8	133.7
영국	2,201.5	-
프랑스	2,105.9	-
이탈리아	1,766.2	-
캐나다	1,130.2	102.7
스페인	1,126.6	
한국	793.1	89.6

* 중국은 홍콩 마카오 제외. EU 및 세계교역액은 EU 역내무역 제외

자료 : IMF, WTO

□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 구조

- EU의 평균실행관세율은 4.2%로서 3%대인 미국, 일본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 수준을 유지, FTA 체결시 개방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미·일·EU와 한국의 실행관세율 수준>

	미국	일본	EU	한국
단순평균(%)	3.7	3.1	4.2	11.2
기준년도	2004	2004	2005	2004

자료 : WTO

□ 농업부문 협상시 EU의 탄력적 입장 기대

- 한국의 DDA 및 FTA 협상시 난관으로 작용하고 있는 농업부문의 개방 논의와 관련, EU는 아직 농산물에 대한 수출보조금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등 보호주의적 색채가 강하며 EU 회원국 내 견해차도 상당해 공세적 입장을 취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반덤핑 규제의 완화 기대

- 무역구제조치와 관련, EU는 반덤핑을 무역구제수단으로 활발히 사용하고 있는데 FTA를 통해 이에 대한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2005년 EU의 대한민국 수입구제조치는 모두 8건으로 중국, 미국, 인도, 호주에 이어 5번째 위치를 차지

□ 서비스 개방 및 지재권 관련 요구

- EU는 법률, 금융, 통신, 유통, 교육, 보건 서비스 등 우리의 개방 수준이 낮은 분야에 대해 개방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큼
- 한편 통신이나 건설 서비스의 경우 한국과 EU 기존 회원국간 개방 수준에 차이가 크게 없고 오히려 신규회원국의 개방 수준이 낮아 우리가 공세적으로 개방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와인과 증류주에 대한 지리적 표시를 충분히 보호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지적재산권의 보호 요구가 강하게 제기될 것임
- 한편 우리는 유럽특허청에 특허를 신청할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할 필요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홍중 유럽팀장

* 본 원고는 2005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출판한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분석과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보고서의 일부를 정리한 것임.

I. 시나리오별 기대효과 분석

1. CGE 모형

□ 일반균형연산(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모형을 이용하여, 한·EU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

- CGE모형은 GTAP(Global Trade Analysis Project) 표준모형으로 전통적 무역이론에 바탕을 두고 규모에 대한 보수불변과 완전경쟁을 가정함.
- CGE모형은 생산, 소비, 투자, 정부지출 등의 국내경제부문들과 수출 및 수입 등 대외부문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균형모형이며, FTA 및 DDA 협상과 같은 국내외 정책의 변화에 따른 충격에 대해 최적해를 제공하도록 컴퓨터로 연산하는 모형임.
- 예를 들어 한·EU FTA로 인해 관세가 철폐되면 무역장벽이 낮아지게 되어 EU로부터의 輸入이 증가하고 한국제품의 EU로의 수출이 증가하게 되어 국내 산업의 생산이 변화하게 됨.
- 국내 산업의 생산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가는 해당 산업의 경쟁력, FTA 체결 이전의 관세율 수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됨.

□ 선행 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 Smith and Venables(1988): 부분균형연산모형을 이용하여 EU의 단일시장 형성으로 인한 생산요소의 이동이 갖는 파급효과에 비해 회원국간 가격 차별의 제거에 따른 효과가 훨씬 더 크다고 지적함.

- Baldwin et al.(1997): EU의 동유럽으로의 확대에 동유럽 국가의 후생은 3.8~7.3% 증가하고 기존 EU 회원국의 후생은 약 0.1% 증가할 것으로 추정
 - Breuss(2001): 동유럽 국가의 실질국내총생산은 4~9% 증가하는 반면, 기존 EU 회원국의 실질국내총생산은 0.1%에 그칠 것으로 보고함. 또한 Lejour et al.(2001)은 관세철폐 외에 무역원활화 및 위험감소로 인해 동유럽국가의 GDP는 평균 5.4% 증가할 것으로 추정함.
 - 한국과 EU간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은 박순찬(2004)과 김홍중·김균태·강준구(2005)에서 시작됨.
 - 박순찬(2004): CGE 모형분석을 통하여 한·EU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 분석 및 산업별 분석을 하였음. GTAP 표준모형의 한계로 말미암아 중·동구 신규회원국들이 반영되지 못함.
 - 김홍중·김균태·강준구(2005): 회귀분석 방식을 이용한 탄력성 분석을 통해 산업별로 탄성치를 구한 다음 그 탄성치를 이용하여 FTA의 체결 효과를 도출하는 등 보다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여 양자간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함. 또한 서비스업의 개방 효과를 아울러 고려
 - 본 연구는 2001년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의 추세를 더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 신규 가입국 10개국을 포함한 EU 25개국을 고려하여 분석하였음.
- ☐ 본 연구는 동태적 CGE 모형을 사용하여 자본축적의 효과를 아울러 살펴 보고 있음.

2. 모형의 구성과 시나리오

□ 국가 및 산업분류와 대체탄력성

- CGE모형에 포함된 국가와 산업은 <표 1>에 요약되어 있음.

<표 1> 국가 및 산업분류와 대체탄력성

국가	산업	대체탄력성	생산요소 간 대체탄력성
1. 한국 2. 독일 3. 프랑스 4. 영국 5. 기타 기존 EU 회원국 6. 신규 동유럽 회원국 7. 일본 8. 중국 9. 미국 10. 아세안 11. 기타	농수산물	3.6	0.31
	가공식품	2.0	1.12
	섬유, 의류	3.8	1.26
	석유화학	2.9	1.26
	철강, 금속	3.6	1.26
	자동차	2.8	1.26
	기타 운송장비	4.3	1.26
	전자제품	4.4	1.26
	기계	4.1	1.26
	기타 제조업	3.3	1.26
	건설 서비스	1.9	1.40
	유통·사업 서비스	1.9	1.68
	운송·보관 서비스	1.9	1.55
	금융서비스	1.9	1.26
	기타 서비스	2.0	1.00

□ 산업별 개방정도에 따라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함.

- 시나리오 I: 농업 및 제조업의 관세 완전철폐
- 시나리오 II: 농업 및 제조업의 관세 완전철폐, 서비스 무역장벽 50% 감축
- 시나리오 III: 농업 50%, 제조업의 관세 완전철폐, 서비스 무역장벽 50% 감축
- 시나리오 III은 현실적으로 체결되는 FTA와 가장 유사한 경우임.

□ 본 연구는 정태적 일반균형연산(CGЕ)모형과 자본축적 일반균형연산(CGЕ)

모형으로 한·EU FTA의 3가지 시나리오를 각각 분석함으로써 총 6가지 분석결과를 제시함.

- 분석결과는 한·EU FTA가 발효된 후 일정한 이행기간 동안 국내총생산, 후생, 수출입, 교역조건, 산업별 생산 등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것인지를 나타냄.
- 이러한 효과는 한꺼번에 일회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한·EU FTA를 이행하면서 누적적으로 나타나게 되므로, 이하의 분석결과는 한·EU FTA에 따른 총 효과를 의미하는 것임.¹⁾
- 이하에서는 시나리오 III의 정태, 동태 분석을 중심으로 보고함.

3. 거시경제적 효과

□ 정태적 일반균형연산(CGE)모형으로 분석할 때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는 크게 두 가지 경로를 통해 나타남.

- 첫째, 무역장벽의 제거는 중간재와 최종재의 상대가격(relative price)에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 여러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수요가 변화되어 무역창출(trade creation) 및 무역전환(trade diversion)효과가 발생함.
- 무역장벽이 제거됨으로써 가격은 각국의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를 반영하게 되어 각 국가는 무역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누리게 됨. 이러한 FTA 체결 국가간의 무역증가로 인해 제3국과의 무역이 감소할 수 있음.

1) 정태적 분석의 결과는 FTA가 체결되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로 인한 일회적인 효과(one-shot effect)가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통 단기 효과로 해석되며, 자본축적 효과는 동태적 분석의 결과로써, 무역개방으로 인한 정태적 효과가 투자와 저축에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자본스톡이 증가하여 국내총생산이 더욱 크게 증가하는 추가적인 경제적 파급효과까지 고려한 기간으로서 통상적으로 장기로 해석되고 있음.

- 둘째, FTA 체결에 따른 무역장벽의 제거로 인해 교역조건(terms of trade)이 변화함. 교역조건은 수입가격에 대한 수출가격으로 정의되는데, FTA 체결 국가간 수입관세의 철폐는 수출가격과 수입가격의 하락을 초래함.
- 교역조건 개선 및 악화 여부는 수입가격의 하락에 비해 수출가격이 얼마나 변할 것인지에 달려 있음. 수입가격에 비해 수출가격이 더 높아져서 교역조건이 개선되면, 소비 가능성이 확대되고, 투자 수익률을 높이게 되어 저축과 투자가 증가하여 생산이 더욱 크게 증가하게 됨.

□ 거시경제적으로 볼 때 한-EU FTA는 양국의 소득과 후생을 크게 증가시킴.

- 정태적 CGE 모형으로 보면, 제조업 관세의 완전철폐와 서비스 및 농업 무역장벽이 50% 감축되는 시나리오 III의 경우 한국의 국내총생산 2.02%, 소득은 2.16%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자본축적 일반균형연산(CGE)모형으로 분석하면 거시경제적 효과가 정태적 모형보다 더 크게 나타남. 시나리오 III의 경우 정태분석보다 한국 국내총생산은 2.02%에서 3.08% 그리고 후생은 1.34%에서 2.45%까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됨.

<표 2> 한·EU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정태적 모형)

(단위: %)

	국내 총생산	소득	후생	총수출	총수입	교역조건
시나리오 III						
한국	2.02	2.16	1.34	2.62	3.81	0.67
독일	0.07	0.08	0.05	0.11	0.18	0.04
프랑스	0.06	0.06	0.04	0.11	0.15	0.02
영국	0.07	0.07	0.05	0.19	0.23	0.05
기존 회원국	0.09	0.10	0.06	0.09	0.15	0.03
신규회원국	0.01	0.02	0.02	0.08	0.11	-0.01

<표 3> 한·EU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자본축적 모형)

(단위: %)

	국내 총생산	소득	후생	총수출	총수입	교역조건
시나리오 III						
한국	3.08	2.96	2.45	4.47	4.92	0.32
독일	0.10	0.09	0.09	0.18	0.20	0.03
프랑스	0.10	0.10	0.09	0.18	0.20	0.02
영국	0.10	0.09	0.09	0.27	0.26	0.04
기존 회원국	0.15	0.14	0.12	0.19	0.21	0.02
신규 회원국	0.07	0.06	0.08	0.16	0.17	-0.02

4. 산업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효과

□ 한-EU FTA가 산업 생산에 미치는 효과는 산업별로 상이함.

- 한국의 경우 농업, 철강, 기계 등에서 산업생산이 감소하며, 자동차, 서비스산업의 생산이 증가함. 전기·전자, 섬유 산업의 경우 정태적 모형에서는 생산이 감소하지만 동태 모형에서는 오히려 생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EU 국가의 경우 가공식품, 기계, 금융 산업에서 생산이 증가하고, 섬유·의류, 자동차, 운송·통신 서비스에서 생산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EU 국가의 경우에도 동태 모형에서 대부분 생산 효과가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 시나리오 III에 따른 산업생산의 변화(정태적 모형)

(단위:%)

	한국	독일	프랑스	영국	기존 회원국	신규 회원국
농수산물	-0.35	-0.01	-0.03	-0.03	-0.03	0.06
가공식품	-0.90	0.40	0.18	0.32	0.16	0.08
섬유·의류	0.10	-0.36	-0.09	-0.14	-0.01	-0.38
석유화학	-0.90	0.09	0.10	0.02	0.02	0.00
철강·금속	-2.38	0.02	-0.03	0.07	-0.05	-0.01
자동차	4.97	-0.3	-0.36	-0.25	-0.31	-0.3
기타 운송장비	-3.84	-0.16	0.01	-0.19	-0.05	0.04
전기·전자	-0.96	-0.24	-0.12	-0.33	-0.23	0.01
기계	-2.77	0.30	0.12	0.05	0.07	0.10
기타 제조업	-1.43	0.02	0.06	0.00	-0.01	0.04
건설	3.81	0.13	0.09	0.14	0.16	0.07
유통	1.76	0.06	0.06	0.08	0.09	0.04
운송·통신	4.23	-0.21	-0.11	-0.06	-0.04	-0.12
금융·사업	1.40	0.08	0.06	0.09	0.07	0.05
기타 서비스	2.15	0.07	0.07	0.08	0.09	0.02

주) 시장가격으로 평가

<표 5> 시나리오 III에 따른 산업생산의 변화(자본축적 모형)

(단위:%)

	한국	독일	프랑스	영국	기존 회원국	신규 회원국
농수산물	0.24	0.07	0.05	0.04	0.08	0.14
가공식품	-0.30	0.42	0.21	0.35	0.21	0.12
섬유·의류	1.67	-0.31	-0.05	-0.10	0.09	-0.33
석유화학	0.48	0.15	0.16	0.09	0.10	0.08
철강·금속	-0.47	0.07	0.02	0.13	0.05	0.07
자동차	6.09	-0.26	-0.34	-0.23	-0.27	-0.24
기타 운송장비	-1.83	-0.13	0.10	-0.16	0.01	0.02
전기·전자	1.26	-0.27	-0.11	-0.31	-0.19	0.08
기계	-0.59	0.34	0.18	0.11	0.17	0.19
기타 제조업	-0.09	0.07	0.11	0.04	0.08	0.12
건설	4.36	0.14	0.14	0.15	0.21	0.13
유통	2.76	0.09	0.10	0.11	0.15	0.08
운송·통신	5.09	-0.17	-0.05	-0.04	0.02	-0.05
금융·사업	2.43	0.11	0.10	0.12	0.14	0.10
기타 서비스	3.15	0.09	0.11	0.11	0.15	0.07

주) 시장가격으로 평가

□ 한-EU FTA가 한국의 산업별 생산에 미치는 효과

- 정태모형에서 산업 생산은 전반적으로 감소함. 이는 단기적으로 EU와의 FTA 체결시 서비스무역장벽을 제거할 경우 제조업 부문의 생산요소 중 일부가 서비스부문으로 이동하여 제조업 생산이 감소하기 때문임. 단 제조업 중 섬유 의류와 자동차의 경우에는 모든 시나리오 하에서 생산이 증가함.

<표 6> 한·EU FTA에 따른 생산효과 (정태모형)

(단위: 조원, %)

	FTA 체결전	FTA 체결 후	
	총산출	총산출	증감액
1차산업	97.4	96.7	-0.67(-0.7)
농수산물	38.3	38.2	-0.13(-0.3)
가공식품	59.1	58.6	-0.53(-0.9)
제조업	588.3	583.7	-4.56(-0.8)
섬유 의류	46.9	46.9	0.05(0.1)
석유 화학	88.6	87.8	-0.80(-0.9)
철강 금속	78.7	76.8	-1.87(-2.4)
자동차	59.2	62.1	2.94(4.9)
기타 운송장비	15.4	14.8	-0.59(-3.8)
전기전자	142.4	141.1	-1.37(-1.0)
기계	49.9	48.6	-1.38(-2.8)
기타 제조업	107.1	105.6	-1.53(-1.4)

- 하지만 동태모형에서는 1차 산업은 생산이 감소하지만 제조업의 경우 일 반차량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단기적으로는 서비스 산업의 무역자유화가 제조업 부문의 생산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전체 제조업의 생산에도 긍정적으로 기여 한다는 사실을 나타냄.
- 산업별로 보면, 장기적으로 한국의 주력산업인 자동차뿐만 아니라 전기전

자부문의 생산도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됨.

<표 7> 한·EU FTA에 따른 생산효과 (자본축적모형)

(단위: 조원, %)

	FTA 체결전	FTA 체결 후	
	총산출	총산출	증감액
1차산업	97.4	97.3	-0.09(-0.1)
농수산물	38.3	38.4	0.09(0.2)
가공식품	59.1	58.9	-0.18(-0.3)
제조업	588.3	593.8	5.56(1.0)
섬유의류	46.9	47.7	0.78(1.7)
석유화학	88.6	89.1	0.43(0.5)
철강금속	78.7	78.3	-0.37(-0.5)
일반차량 및 부품	59.2	62.8	3.61(6.1)
기타 운송장비	15.4	15.1	-0.28(-1.8)
전기전자	142.4	144.2	1.79(1.3)
기계	49.9	49.6	-0.29(-0.6)
기타 제조업	107.1	107.0	-0.10(-0.1)

□ 한-EU FTA가 한국의 산업별 고용에 미치는 효과

- 정태모형에서 1차 산업은 모두 취업자수가 감소함. 그러나 자동차와 섬유는 고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자본축적모형의 경우, 서비스산업 개방 시에도 제조업 부문의 취업자수는 증가함. 제조업 부문의 취업자수는 7만8천 명 증가함.

<표 8> 한·EU FTA에 따른 고용효과 (정태모형)

(단위: 천명, %)

	FTA 체결전	FTA 체결 후	
	종사자	종사자	증감인원
1차산업	2,512	2,483	-28.1(-1.1)
농수산물	2,229	2,219	-9.1(-0.4)
가공식품	283	264	-19.1(-6.7)
제조업	2,912	2,866	-45.5(-1.6)
섬유의류	511	511	1.0(0.2)
석유화학	324	314	-9.1(-2.8)
철강금속	337	317	-19.9(-5.9)
자동차	212	255	42.9(20.2)
기타 운송장비	98	89	-8.8(-9.0)
전기전자	559	545	-13.8(-2.5)
기계	373	349	-22.8(-6.1)
기타 제조업	497	482	-14.9(-3.0)

<표 9> 한·EU FTA에 따른 고용효과 (자본축적모형)

(단위: 천명, %)

	FTA 체결전	FTA 체결 후	
	종사자	종사자	증감인원
1차산업	2,512	2,511	-0.14(0.0)
농수산물	2,229	2,235	6.2(0.3)
가공식품	283	276	-6.3(-2.2)
제조업	2,912	2,990	78.4(2.7)
섬유의류	511	527	16.7(3.3)
석유화학	324	328	4.8(1.5)
철강금속	337	333	-3.9(-1.2)
자동차	212	265	52.6(24.8)
기타 운송장비	98	94	-4.2(-4.3)
전기전자	559	577	18.1(3.2)
기계	373	367	-4.8(-1.3)
기타 제조업	497	496	-0.9(-0.2)

5. 한국의 지역별 수출입 변화

□ 한-EU FTA가 한국의 수출입에 미치는 효과

- 한국의 수출은 영국, 독일을 비롯한 EU 회원국으로의 수출은 증가하는 반면, FTA를 체결하지 않은 제3국으로의 수출은 감소함. 한국의 전체 수출증가 금액은 약 34.9억 달러 증가함.
- 독일을 비롯한 EU 회원국의 對한국 수출도 크게 증가함. EU 회원국간의 무역은 다소 감소하는데, 이는 한·EU FTA 체결로 양자간 교역에 대해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회원국간의 무역이 한국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시사함.

<표 10> 국가별 수출의 변화(정태적 모형)

(단위: 백만 달러)

수입국 수출국	한국	독일	프랑스	영국	기존 회원국	신규 회원국	기타 3국	총계
한국	0.0	1,928.6	1,149.1	2,109.3	5,214.5	825.3	-7,737.6	3,489.2
독일	3,057.9	0.0	-206.2	-281.5	-987.9	-252.8	-835.3	494.3
프랑스	1,569.6	-146.3	0.0	-164.2	-498.0	-60.8	-371.3	329.2
영국	2,020.6	-181.3	-117.4	0.0	-563.8	-52.4	-581.6	524.0
기존회원국	5,893.7	-748.6	-434.5	-641.1	-1,442.1	-246.0	-1,524.8	856.5
신규회원국	422.4	-41.5	-12.7	-35.5	-96.4	-35.1	-47.4	153.7

- 자본축적 모형에서는 한국의 수출 증가금액은 50억~78억 달러에 달해 정태적 모형으로 분석하였을 때와 비교하여 18억~42억 달러 더 많음. 정태적 모형에 비해 한국의 EU로의 수출은 소폭 증가하는 반면, 제3국으로의 수출 감소가 크게 둔화되는데 이는 자본축적이 이루어지는 중장기에는 생산설비가 확장되면서 제3국으로의 수출 여력이 확충된 결과로 해석됨.

<표 11> 국가별 수출의 변화(자본축적모형)

(단위: 백만 달러)

수입국 수출국	한국	독일	프랑스	영국	기존 회원국	신규 회원국	기타 3국	총계
한국	0.0	2,114.9	1,224.3	2,269.6	5,599.7	887.9	-4,480.0	7,616.4
독일	3,145.5	0.0	-163.3	-256.4	-822.1	-226.8	-658.2	1,018.7
프랑스	1,620.9	-126.8	0.0	-147.7	-410.4	-54.8	-273.9	607.2
영국	2,084.2	-166.0	-96.5	0.0	-482.3	-47.1	-475.8	816.4
기존회원 국	6,072.5	-591.5	-311.6	-540.3	-1,086.7	-196.4	-1,000.0	2,345.9
신규회원 국	435.8	-4.5	-4.5	-27.7	-55.5	-18.7	-4.8	320.1

6. 한·미, 한·일 FTA 체결의 영향

□ 한·미 FTA, 한·일 FTA 및 한·미 + 한·일 FTA는 EU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이 FTA들은 즉 무역전환효과를 포함하여 거시경제적 충격을 가져 오며 그 중에서 한·일 FTA보다 한·미 FTA가 더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 EU 국가의 GDP(금액기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한·미 + 한·일 FTA에 따라 독일, 프랑스, 영국, 폴란드의 GDP가 각각 0.08~0.09% 감소하고, 기타 EU 15국 및 기타 EU 10국의 GDP는 0.08~0.10% 감소함.

- 한·미 + 한·일 FTA에 따른 독일, 프랑스, 영국 및 폴란드의 후생감소는 2000년 기준으로 각각 161~450백만 불, 79~376백만 불, 97~299백만 불 및 17~38백만 불임.

□ 한·미 FTA로 EU 각국의 교역 규모가 모두 감소함.

- 분석결과에 따르면 모든 경우에 EU 각국의 교역규모가 모두 감소함. FTA

의 결과 특징적으로 발생하는 교역증대효과가 한국, 미국, 일본 등 FTA 시나리오 국가에 집중되면서 역외국가인 EU의 교역이 감소함.

- 한국의 수출 및 수입 규모는 자본축적 모형의 경우 한·일 FTA의 경우 3.63% 및 4.35%, 한·미 + 한·일 FTA의 경우 6.85% 및 8.24%까지 증가함.
- 한·미 + 한·일 FTA가 체결될 경우 독일 및 프랑스의 수출입 규모는 각각 0.10% 및 0.11% 감소하고, 영국의 수출입규모는 0.11% 감소하며, 폴란드의 수출입 규모는 각각 0.11% 및 0.10% 하락함. 기타 EU 15국의 수출입은 각각 0.11% 및 0.12% 감소했으며 기타 EU 10국의 수출입규모 또한 각각 0.10% 및 0.10% 감소함.

□ FTA가 EU 국가의 산업별 생산에 미치는 영향

- 한·일 FTA의 경우 일본은 기계, 화학, 금속, 가공식품에서 생산이 증가하고 자동차, 기타 운송장비, 전자에서 생산이 감소하며, 한국은 섬유, 전자, 자동차, 화학, 가공식품에서 생산이 증가하고, 기계, 철강금속의 생산이 감소함.
- 이를 반영하여 EU 국가의 기타 운송장비 및 서비스 부문의 생산이 증가하고 있음. EU 국가별 차별성은 있지만 대부분 섬유 및 화학에서 생산이 감소함. 기계 산업에서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독일의 생산이 감소하게 됨. 이는 기계 산업에서 일본은 독일과 경쟁적 지위에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 그러나 전체적으로 한·일 FTA가 EU에 초래하는 생산변동은 크지 않음.
- 한·미 FTA의 생산변동 효과를 보면 미국은 기계, 농산물, 가공식품의 생산이 증가하고 섬유, 전자, 자동차 및 기타 운송장비의 생산이 감소하며, 한국은 섬유, 자동차, 기타 제조업, 화학, 가공식품에서 생산이 증가하고

농산물, 기타 수송장비, 기계의 생산이 감소함.

II. 요약 및 정책 제언

1. 한·EU FTA의 타당성 평가

□ 양국간 관계는 기본적으로 보완적이지만 경쟁적 부분도 발견됨.

- 김홍중·이종화(2004)의 예비적 고찰에 따르면 한국과 EU는 일반적으로 산업구조가 보완적이기 때문에 FTA를 체결한다면 많은 구조조정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양자의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는 상대로 알려져 있음.
- 그러나 한국과 EU는 교역과 투자관계의 괄목할 만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통상현안을 갖고 있으며, 산업구조 분석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보완적 관계가 강하지만 자동차, 기계류, 철강·금속, 섬유·의류 등 적지 않은 부문에서 상호 경쟁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가 발견됨.
- 농산물과 가공농산물의 경우 우리의 생산 및 수출의 상당한 감소가 예상되기도 함. 또한 우리나라의 관세구조가 전반적으로 EU보다 보호적이어서 관세철폐에 따른 부담감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임.

□ 그러나 양자간 FTA에 관한 경제적 효과분석은 동 FTA가 한국의 생산, 소득 및 후생증대에 미치는 효과가 상당함을 보여줌.

- <표 12>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한·EU FTA가 체결되면 한국의 GDP는 단기적으로는 15조원(2.02%), 장기적으로는 24조원(3.08%) 만큼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1인당 국민소득도 단기에서는 35만원(2.16%), 장기적으로는 48만원(2.96%)의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한국의 對세계무역도 수출과 수입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수출의 경우 단기에는 64.7억불(2.62%)의 순증이 예상되며 장기에는 무려 110.4억불(4.47%)이 증가할 것임. 한편 수입의 경우도 단기에는 63.4억불(3.81%), 장기에는 81.9억불(4.92%)이 증가할 것임. 그 결과 무역수지는 단기에 1.3억불(0.16%), 장기에는 28.5억불(3.54%)의 개선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됨.
- 이와 같이 한·EU FTA는 한국의 경제적 후생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증가와 비중 확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이는 아직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한 한국 경제의 체질을 선진국 형태로 탈바꿈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표 12>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요약)

구 분	FTA 체결전	FTA 체결후 변동액
GDP	778조 4천억원	▶ 단기: 15.7조원 (2.02%) ▷ 장기: 24.0조원(3.08%)
1인당 국민소득	1,621만원	▶ 단기: 35만원(2.16%) ▷ 장기: 48만원(2.96%)
후생		▶ 단기: 1.34% ▷ 장기: 2.45%
對세계무역수지	806억불	▶ 단기: 1.3억불(0.16%) ▷ 장기: 28.5억불(3.54%)
수 출	2,470억불	▶ 단기: 64.7억불(2.62%) ▷ 장기: 110.4억불(4.47%)
수 입	1,664억불	▶ 단기: 63.4억불(3.81%) ▷ 장기: 81.9억불(4.92%)
국내 취업자수 (전산업)	1,668만명	▶ 단기: 301,200명(1.81%) ▷ 장기: 597,060명(3.58%)

주: 단기는 정태적 모형을 의미하며 장기는 자본축적효과를 고려한 경우이다.
FTA체결전 수치는 2004년도 실적치를 인용하였다.

□ EU 회원국들도 GDP 증대효과를 보여,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주요국의 GDP가 0.1%씩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이는 이 국가들의 GDP가 15억 불에서 20억 불 증가하는 것을 뜻하며, 이

국가들은 또한 수출과 수입 증대 효과도 아울러 누릴 것으로 예상됨.

2. 정책 제언

□ 양국간 FTA 협상이 시작된다면 EU의 공동통상정책 등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야 함.

- EU의 공동통상정책은 FTA 협상시 EU집행위가 회원국을 대신해서 한국과 협상을 하는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주는 매우 중요한 공동정책 중의 하나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EU의 공동통상정책이 관할하는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전반적으로 범위가 확대되는 가운데에서도 집행위와 회원국이 조정해야 할 부분이 있음. 역내시장의 통합이 완전히 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동통상정책의 불명확성은 EU가 대외교섭을 나서는 데 협상력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임. 특히 2004년에 신규로 가입한 신규회원국에서의 EU규범 및 공동통상정책의 집행 상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

□ EU의 FTA 정책은 개도국 및 특별한 역사적, 지리적 관련이 있는 국가 및 지역과의 무역특혜협정 체결을 우선시하였으나, 최근에 와서 비유럽권 국가들과의 무역특혜협정 체결이 확대되고 있음.

- EU가 멕시코 및 칠레 등과 맺은 FTA 협정들은 정치 대화, 통상 및 경제관계 그리고 협력의 세 분야에서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포괄적 FTA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점진적이고 호혜적인 상품자유화 일정을 정한 바 있음.

- 그러나 농산물 등에서 EU의 보호 수준은 상당한 것으로 보이며 양허의 폭에 있어서도 상당한 유연성이 발견됨. 특이한 점은 와인과 증류주에 대한 별도 협정을 맺고 있음.

□ EU의 서비스 시장 통합 과정을 주목해야 함.

- EU시장은 시장의 규모가 매우 크고 시장통합이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음. 비록 EU경제의 경제성장률이 그리 높은 편은 아니지만 급속한 시장통합에 따른 구매력의 증가는 다른 시장에서 볼 수 없는 특징임. 특히 아직 완전히 통합되어 있지 않은 EU의 서비스시장에서 발견되는 여전한 장벽은 서비스의 국경간 이동을 제약하는 중요한 요인임.
- 한·EU FTA에서 한국은 역내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시장의 통합에 따라 누릴 수 있는 자유화의 정도를 동등한 지위에서 누릴 수 있도록 내국민 대우의 요건을 확실하게 보장받는 것이 중요함.

□ 공산품 양허방식과 관련하여 관세철폐 방식을 다양화하고 국내산업의 경쟁력에 맞춰 적절한 개방의 속도와 폭을 정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다른 국가와 정한 FTA에서의 상품양허방식이 중요한 참고점이 된다는 사실을 멕시코의 사례가 보여줌.

- 농산물의 경우 직접지불에 대한 노우하우가 많은 EU의 사례를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농촌개발을 촉진하고 농산물 개방에 대비해야 할 것임. 2005년 홍콩 DDA 각료회의에서 더욱 분명해진 것처럼, 농산물 관세율 구조는 관세할당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농산물에서 매우 높은 관세율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관세할당시 할당액 이상에 대한 사실상의 보호조치가 강한 한국의 농산물 관세율 구조를 고려해 볼 때 높은 관세율 구조를 완화시키면서 관세할당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국내 농산물에 대한 관세구조를 개혁할 필요가 있음. 수출보조와 관련해서는 EU가 DDA에서 결정된 수출보조제한이전에 수출보조금을 감축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임.

□ 무역구제조치 분야의 협력이 필요함.

- EFTA와의 FTA 협상에서는 한국과 EFTA 국가들이 프렌즈그룹의 일원으로서 비교적 유사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무역구제조치의 남발에 대한 상당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었음. EU는 이와는 반대로 무역구제조치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국가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가장 안전한 방식은 WTO 수준을 적용하는 것임.
 - 한편 양측 무역구제기관의 공동 관심의제를 적극 발굴하여 제3국에 대한 무역구제조치의 발동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
- 원산지규정에서 논의될 수 있는 분야는 원산지 판정기준, 원산지 가격결정기준, 그리고 역외가공의 인정여부가 될 것임.
- 부가가치 기준을 기본으로 세번변경이나 특정가공공정의 탄력적 적용이 우리 산업, 특히 섬유·의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원산지 가격과 관련해서는 FOB 또는 공장도가격 결정기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역외가공의 인정여부는 남북합작사업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음. 인정품목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도 중요한 문제임.
 - 그 외 TBT와 SPS의 경우 EU측이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안인데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EU측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다른 사안과의 연계를 고려해 볼 수 있음.
- 서비스무역은 한·EU FTA 협상이 시작되면 가장 중요한 사안 중의 하나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음. 기타 다른 사안도 있음.

- GATS DDA 2차 양허안을 기본으로 협상을 시작하되, 최혜국대우를 인정하는 문제, 시청각서비스의 진출과 과세문제, Mode 4의 허용 폭과 속도, 금융서비스 개방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음.
- 경쟁 부문은 양국이 경쟁법의 역외적용으로 그 동안 많은 논의를 해 온 분야이다. 경쟁 부문이 양자간 협정에서 중요성을 갖는 것은 경쟁법의 상호 적용뿐만 아니라 다자간 경쟁위반사례에 대한 협력관계의 차원에서 의미를 갖기 때문임.
- 지식재산권 분야는 기본적으로 WTO 협정을 준수하되 샴페인 등 특별히 EU가 요청하는 분야에 대해 공동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해 볼 수 있음.
- 투자와 관련해서는 투자자의 보호, 투자분야의 명확화가 주요한 협상의제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음.

□ 마지막으로 한·EU FTA와 관련하여 언급할 것은 본 연구에서 시도한 모든 분석 결과는 한·EU FTA의 잠재적 효과를 측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임.

- 이러한 무역자유화의 이익은 저절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며 우리가 한·EU FTA를 계기로 삼아 이를 어떻게 내재화하고 현실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가에 달려 있음.
- 예를 들어 한·EU FTA의 효과를 자본축적모형으로 분석할 때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이는 투자가 촉진되어 자본스톡이 증가한다는 가정하에서 가능함. 잠재적 효과의 실현 여부는 우리나라 내적 역량에 달려있음.
- 즉, 한·EU FTA의 잠재적 효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구조개혁, 인적자본의 질적 향상, R&D에 대한 투자의 확대를 통해 내적 역량을 강

화합과 동시에 각종 행정적 절차의 간소화 등과 같은 비관세 장벽의 실질적인 제거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때 가능한 것임.

**<부표 1> 한·일, 한·미, 한·미 + 한·일 FTA의 EU 거시경제 파급효과
(농업 50% 관세철폐의 경우)**

(%, 백만불)

	한·일 FTA		한·미 FTA		한·미·일 FTA	
	정태모형	자본축적	정태모형	자본축적	정태모형	자본축적
GDP증가 (금액기준,%)						
GER	-0.05	-0.05	-0.04	-0.05	-0.08	-0.09
FRA	-0.04	-0.04	-0.04	-0.06	-0.08	-0.09
UK	-0.05	-0.04	-0.04	-0.05	-0.08	-0.09
POL	-0.04	-0.03	-0.04	-0.06	-0.08	-0.09
기타 EU15	-0.04	-0.04	-0.04	-0.06	-0.08	-0.10
기타 EU10	-0.04	-0.04	-0.04	-0.07	-0.08	-0.10
GDP증가 (수량기준,%)						
GER	0.00	-0.01	0.00	-0.02	0.00	-0.03
FRA	0.00	-0.01	0.00	-0.03	0.00	-0.03
UK	0.00	0.00	0.00	-0.02	0.00	-0.02
POL	0.00	0.00	0.00	-0.03	0.00	-0.03
기타 EU15	0.00	-0.01	0.00	-0.03	0.00	-0.03
기타 EU10	0.00	-0.01	0.00	-0.03	0.00	-0.03
후생변동 (동등변화, 백만 불)						
GER	-92.61	-140.85	-80.29	-351.54	-160.76	-450.31
FRA	-35.67	-73.63	-49.46	-343.08	-79.45	-376.20
UK	-51.72	-83.52	-52.57	-246.05	-96.85	-298.76
POL	-2.97	-2.80	-7.17	-39.33	-9.62	-38.01
기타 EU15	-92.49	-179.36	-159.13	-834.05	-237.59	-926.13
기타 EU10	-6.37	-10.88	-12.43	-50.15	-17.96	-56.28
자본축적 (백만 불)						
GER	0.00	-0.01	0.00	-0.05	0.00	-0.06
FRA	0.00	-0.01	0.00	-0.06	0.00	-0.07
UK	0.00	-0.01	0.00	-0.06	0.00	-0.07
POL	0.00	-0.01	0.00	-0.06	0.00	-0.06
기타 EU15	0.00	-0.01	0.00	-0.07	0.00	-0.07
기타 EU10	0.00	-0.01	0.00	-0.07	0.00	-0.07

<부표 2> 한·일, 한·미, 한·미 + 한·일 FTA의 EU 거시경제 파급효과
(농업 100% 관세철폐의 경우)

(%, 백만불)

	한-일 FTA		한-미 FTA		한-미-일 FTA	
	정태모형	자본축적	정태모형	자본축적	정태모형	자본축적
GDP증가 (금액기준,%)						
GER	-0.05	-0.05	-0.06	-0.09	-0.10	-0.13
FRA	-0.04	-0.04	-0.06	-0.11	-0.10	-0.15
UK	-0.05	-0.04	-0.06	-0.09	-0.10	-0.13
POL	-0.04	-0.03	-0.07	-0.12	-0.10	-0.15
기타 EU15	-0.04	-0.04	-0.06	-0.12	-0.10	-0.16
기타 EU10	-0.04	-0.04	-0.06	-0.13	-0.10	-0.16
GDP증가 (수량기준,%)						
GER	0.00	-0.01	0.00	-0.05	0.00	-0.05
FRA	0.00	-0.01	0.00	-0.07	0.00	-0.08
UK	0.00	0.01	0.00	-0.04	0.00	-0.05
POL	0.00	0.00	0.00	-0.07	0.00	-0.07
기타 EU15	0.00	-0.01	0.00	-0.07	0.00	-0.07
기타 EU10	0.00	-0.01	0.00	-0.08	0.00	-0.08
후생변동 (동등변화, 백만 불)						
GER	-95.31	-147.62	-125.56	-730.50	-207.56	-844.71
FRA	-37.90	-87.08	-100.87	-799.36	-133.81	-858.34
UK	-55.21	-95.12	-70.77	-509.87	-119.65	-582.12
POL	-3.35	-5.21	-14.10	-96.81	-16.89	-98.68
기타 EU15	-102.30	-220.78	-277.51	-1862.71	-367.87	-2022.63
기타 EU10	-7.34	-14.10	-23.00	-116.26	-29.04	-126.02
자본축적 (백만 불)						
GER	0.00	-0.01	0.00	-0.11	0.00	-0.12
FRA	0.00	-0.01	0.00	-0.15	0.00	-0.16
UK	0.00	-0.02	0.00	-0.13	0.00	-0.14
POL	0.00	-0.01	0.00	-0.16	0.00	-0.17
기타 EU15	0.00	-0.02	0.00	-0.16	0.00	-0.17
기타 EU10	0.00	-0.02	0.00	-0.16	0.00	-0.17

**<부표 3> 한·일, 한·미, 한·미 + 한·일 FTA에 따른 EU의 교역변동
(농업 50% 관세철폐의 경우)**

(%, 백만불)

	한-일 FTA		한-미 FTA		한-미-일 FTA	
	정태모형	자본축적	정태모형	자본축적	정태모형	자본축적
수출액증가(백만불)						
GER	-0.03	-0.06	-0.02	-0.05	-0.05	-0.10
FRA	-0.03	-0.05	-0.01	-0.05	-0.04	-0.10
UK	-0.03	-0.05	-0.02	-0.06	-0.04	-0.11
POL	-0.02	-0.04	-0.01	-0.06	-0.03	-0.09
기타 EU15	-0.03	-0.05	-0.02	-0.06	-0.05	-0.11
기타 EU10	-0.03	-0.04	-0.02	-0.07	-0.05	-0.10
수입액증가(백만 불)						
GER	-0.06	-0.06	-0.05	-0.06	-0.11	-0.11
FRA	-0.05	-0.05	-0.04	-0.07	-0.09	-0.11
UK	-0.06	-0.05	-0.06	-0.07	-0.11	-0.11
POL	-0.05	-0.04	-0.05	-0.07	-0.09	-0.10
기타 EU15	-0.05	-0.05	-0.05	-0.07	-0.10	-0.12
기타 EU10	-0.04	-0.04	-0.04	-0.07	-0.08	-0.11
무역수지변동(백만 불)						
GER	157.99	-24.45	189.86	12.40	329.52	-12.92
FRA	88.40	1.32	106.03	35.78	182.68	32.82
UK	130.69	25.15	157.87	59.44	270.85	77.41
POL	16.05	3.87	20.98	11.51	34.87	14.07
기타 EU15	255.34	10.34	334.41	122.07	557.00	118.38
기타 EU10	18.25	3.56	22.30	13.06	38.30	15.10

**<부표 4> 한·일, 한·미, 한·미 + 한·일 FTA에 따른 EU의 교역변동
(농업 100% 관세철폐의 경우)**

(%, 백만불)

	한-일 FTA		한-미 FTA		한-미-일 FTA	
	정태모형	자본축적	정태모형	자본축적	정태모형	자본축적
수출액증가(백만불)						
GER	-0.03	-0.06	0.00	-0.08	-0.03	-0.13
FRA	-0.03	-0.05	0.00	-0.10	-0.02	-0.14
UK	-0.03	-0.06	-0.01	-0.10	-0.03	-0.15
POL	-0.02	-0.04	0.01	-0.10	-0.01	-0.13
기타 EU15	-0.03	-0.05	-0.02	-0.11	-0.05	-0.16
기타 EU10	-0.03	-0.05	-0.02	-0.12	-0.05	-0.16
수입액증가(백만 불)						
GER	-0.07	-0.06	-0.07	-0.10	-0.13	-0.15
FRA	-0.05	-0.05	-0.07	-0.13	-0.12	-0.17
UK	-0.06	-0.06	-0.08	-0.12	-0.14	-0.17
POL	-0.05	-0.04	-0.07	-0.13	-0.12	-0.16
기타 EU15	-0.05	-0.05	-0.08	-0.14	-0.12	-0.18
기타 EU10	-0.04	-0.05	-0.08	-0.14	-0.10	-0.18
무역수지변동(백만 불)						
GER	167.10	-23.65	415.72	50.78	564.54	27.33
FRA	93.91	3.15	238.85	91.08	322.29	91.29
UK	138.20	27.31	305.66	124.72	427.13	146.37
POL	17.31	4.48	45.55	26.58	60.59	29.93
기타 EU15	274.48	16.81	718.63	304.14	963.10	311.04
기타 EU10	19.72	4.35	47.89	31.67	65.19	34.73

**<부표 5> 한·일, 한·미, 한·미 + 한·일 FTA에 따른 EU의 생산변동
(농업 50% 관세철폐의 경우)**

(단위: %)

	GER	FRA	UK	POL	기타 EU15	기타 EU10
한-일 FTA						
농수산물	-0.01	-0.02	-0.02	-0.01	-0.02	-0.02
가공식품	-0.01	-0.03	-0.04	-0.01	-0.03	-0.03
채취(석탄,석유,광물)	0.01	0.01	0.00	-0.01	0.01	0.00
섬유,의류	-0.03	-0.08	-0.05	-0.04	-0.10	-0.06
석유화학	-0.05	-0.06	-0.05	-0.02	-0.06	-0.04
철강,금속	-0.01	-0.01	-0.05	-0.02	-0.02	-0.03
자동차	-0.02	0.01	-0.01	0.00	-0.01	-0.01
기타운송장비	0.09	0.10	0.06	0.05	0.07	0.06
전자제품	0.04	0.01	0.02	-0.02	0.00	-0.02
기계	-0.04	-0.02	-0.02	0.00	-0.03	-0.01
기타제조업	-0.01	-0.02	-0.01	-0.02	-0.03	-0.03
건설서비스	0.00	-0.01	-0.01	0.00	0.00	0.00
유통,사업서비스	0.00	0.00	0.01	0.00	0.01	0.00
운송,보관서비스	0.05	0.04	0.03	0.04	0.06	0.06
금융서비스	0.00	0.00	0.00	0.00	0.00	0.00
기타서비스	-0.01	0.00	0.00	0.00	0.00	0.00
한-미 FTA						
농수산물	-0.05	-0.07	-0.09	-0.03	-0.06	-0.05
가공식품	-0.05	-0.08	-0.11	-0.04	-0.08	-0.08
채취	0.03	0.05	0.02	0.01	0.04	0.02
섬유,의류	-0.19	-0.22	-0.14	-0.14	-0.25	-0.22
석유화학	-0.03	-0.04	-0.04	-0.04	-0.04	-0.05
철강,금속	-0.02	-0.03	-0.03	-0.03	-0.03	-0.04
자동차	-0.03	-0.02	-0.03	-0.03	-0.02	-0.03
기타운송장비	0.18	0.18	0.16	0.15	0.19	0.21
전자제품	0.04	0.01	0.02	-0.03	0.02	0.00
기계	-0.02	-0.03	-0.02	-0.03	-0.03	-0.03
기타제조업	-0.04	-0.05	-0.03	-0.05	-0.06	-0.06
건설서비스	-0.03	-0.04	-0.03	-0.04	-0.05	-0.04
유통,사업서비스	-0.03	-0.03	-0.01	-0.03	-0.02	-0.02
운송,보관서비스	0.03	0.02	0.01	0.03	0.04	0.04
금융서비스	-0.02	-0.03	-0.02	-0.03	-0.03	-0.03
기타서비스	-0.02	-0.03	-0.02	-0.02	-0.02	-0.02
한-미-일 FTA						
농수산물	-0.05	-0.08	-0.10	-0.04	-0.08	-0.06
가공식품	-0.06	-0.11	-0.13	-0.04	-0.11	-0.11
채취	0.04	0.05	0.02	0.00	0.04	0.02
섬유,의류	-0.22	-0.29	-0.19	-0.18	-0.35	-0.28
석유화학	-0.08	-0.10	-0.08	-0.05	-0.10	-0.08

철강,금속	-0.03	-0.03	-0.08	-0.04	-0.05	-0.06
자동차	-0.05	-0.01	-0.05	-0.03	-0.03	-0.04
기타운송장비	0.26	0.28	0.21	0.20	0.26	0.27
전자제품	0.08	0.02	0.05	-0.04	0.03	-0.01
기계	-0.05	-0.05	-0.03	-0.03	-0.05	-0.03
기타제조업	-0.05	-0.07	-0.04	-0.07	-0.08	-0.08
건설서비스	-0.03	-0.05	-0.03	-0.03	-0.05	-0.04
유통,사업서비스	-0.02	-0.02	0.00	-0.02	-0.01	-0.02
운송,보관서비스	0.08	0.06	0.03	0.07	0.10	0.10
금융서비스	-0.01	-0.03	-0.01	-0.03	-0.02	-0.03
기타서비스	-0.02	-0.03	-0.02	-0.02	-0.02	-0.02

주: 1) 자본축적을 고려한 모형의 정책실험결과임.

**<부표 6> 한·일, 한·미, 한·미 + 한·일 FTA에 따른 EU의 생산변동
(농업 100% 관세철폐의 경우)**

(단위: %)

	GER	FRA	UK	POL	기타 EU15	기타 EU10
한-일 FTA						
농수산물	-0.01	-0.02	-0.02	-0.01	-0.02	-0.02
가공식품	-0.01	-0.04	-0.05	-0.01	-0.04	-0.04
채취(석탄,석유,광물)	0.01	0.00	0.00	-0.01	0.01	-0.01
섬유,의류	-0.04	-0.09	-0.05	-0.05	-0.11	-0.07
석유화학	-0.05	-0.06	-0.05	-0.02	-0.06	-0.04
철강,금속	-0.01	-0.01	-0.05	-0.02	-0.02	-0.03
자동차	-0.02	0.01	-0.01	0.00	-0.01	-0.01
기타운송장비	0.09	0.11	0.06	0.05	0.08	0.06
전자제품	0.04	0.01	0.02	-0.03	0.00	-0.03
기계	-0.04	-0.02	-0.02	-0.01	-0.03	-0.02
기타제조업	-0.01	-0.03	-0.02	-0.03	-0.03	-0.04
건설서비스	0.00	-0.01	-0.01	0.00	-0.01	0.00
유통,사업서비스	0.00	0.00	0.01	0.00	0.01	0.00
운송,보관서비스	0.05	0.04	0.03	0.05	0.06	0.06
금융서비스	0.00	0.00	0.00	0.00	0.00	0.00
기타서비스	-0.01	-0.01	0.00	0.00	0.00	0.00
한-미 FTA						
농수산물	-0.06	-0.10	-0.10	-0.06	-0.07	-0.07
가공식품	-0.11	-0.18	-0.19	-0.09	-0.20	-0.18
채취	0.07	0.13	0.05	0.06	0.09	0.06
섬유,의류	-0.41	-0.44	-0.28	-0.29	-0.49	-0.42
석유화학	-0.03	-0.04	-0.05	-0.08	-0.06	-0.08
철강,금속	-0.04	-0.05	-0.04	-0.08	-0.07	-0.08
자동차	-0.06	-0.06	-0.07	-0.10	-0.06	-0.08
기타운송장비	0.21	0.19	0.18	0.14	0.20	0.19
전자제품	0.02	-0.04	-0.06	-0.12	-0.04	-0.08
기계	-0.01	-0.06	-0.04	-0.10	-0.06	-0.07
기타제조업	-0.08	-0.09	-0.07	-0.11	-0.12	-0.12
건설서비스	-0.07	-0.10	-0.06	-0.09	-0.11	-0.11
유통,사업서비스	-0.07	-0.07	-0.03	-0.07	-0.06	-0.07
운송,보관서비스	0.08	0.04	0.01	0.06	0.08	0.09
금융서비스	-0.04	-0.07	-0.04	-0.07	-0.06	-0.07
기타서비스	-0.04	-0.07	-0.04	-0.05	-0.05	-0.05
한-미-일 FTA						
농수산물	-0.06	-0.12	-0.12	-0.07	-0.09	-0.08
가공식품	-0.13	-0.23	-0.23	-0.10	-0.25	-0.22
채취	0.07	0.12	0.05	0.05	0.10	0.05
섬유,의류	-0.44	-0.51	-0.32	-0.33	-0.59	-0.48
석유화학	-0.07	-0.10	-0.09	-0.09	-0.12	-0.12

철강,금속	-0.05	-0.06	-0.10	-0.10	-0.09	-0.11
자동차	-0.08	-0.05	-0.09	-0.10	-0.07	-0.09
기타운송장비	0.30	0.31	0.25	0.21	0.29	0.28
전자제품	0.06	-0.03	-0.03	-0.14	-0.03	-0.09
기계	-0.05	-0.08	-0.05	-0.11	-0.09	-0.09
기타제조업	-0.09	-0.11	-0.08	-0.14	-0.15	-0.16
건설서비스	-0.07	-0.11	-0.07	-0.09	-0.11	-0.11
유통,사업서비스	-0.06	-0.07	-0.02	-0.07	-0.05	-0.07
운송,보관서비스	0.13	0.08	0.04	0.12	0.15	0.15
금융서비스	-0.04	-0.07	-0.04	-0.08	-0.06	-0.07
기타서비스	-0.05	-0.07	-0.04	-0.05	-0.05	-0.05

주: 1) 자본축적을 고려한 모형의 정책실험결과임.

한 · EU FTA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어명근 연구위원

목 차

1. EU의 농업과 농산물 교역
2. 한·EU 농산물 교역 현황
3. EU의 FTA 체결 사례 분석
4. 한·EU FTA의 농업부문 파급 효과

1. EU의 농업과 농산물 교역

□ EU의 경지면적은 1억 6,200만 헥타로 전체 면적의 약 41%이며 우리나라 경지면적의 약 81배 수준임. 농가호수와 인구는 1995년 737만 가구, 1,520만 명에서 2003년 629만 가구, 1,300만 명으로 감소 추세.

○ '04년 주요 생산물은 밀 1억 3,800만 톤, 보리 6,200만 톤, 옥수수 5,500만 톤, 감자 6,600만 톤, 유지작물과 사탕무우 각각 1,900만 톤 등임.

※ 육류 생산량은 쇠고기 805만 톤, 돼지고기 2,120만 톤, 가금육 1,100만 톤, 양고기 105만 톤 등 모두 4,230만 톤. 낙농품 생산량은 치즈 818만 톤, 분유 207만 톤, 버터 206만 톤 등 모두 1,231만 톤에 달하였음.

□ EU의 농산물 교역은 대내 무역(Intra-EU Trade)의 비중이 매우 높음. '03년 EU의 대내 농산물 수출은 1,664억 유로, 수입은 1,589억 유로였음. '04년 대외 무역(Extra EU Trade)은 수출 578억 유로, 수입 603억 유로였음.

○ EU의 주요 수출 품목은 포도주(44.3억 유로), 돼지고기(27.3억 유로), 치즈(20억 유로), 우유 및 우유조제품(19억 유로), 동물사료(16.8억 유로), 밀과 밀가루(16.4억 유로), 올리브(10.3억 유로), 가금육(9.8억 유로), 설탕(8.1억 유로), 식물성 유지(6.6억 유로) 등임.

※ EU의 농산물 최대 수출대상국은 미국으로 전체 수출액의 22.1%를 차지. 2위는 러시아로 7.5%, 3위 스위스 7.2%, 4위 일본 7.0%, 5위 노르웨이는 3.1%, 6위 캐나다 2.9% 등임.

- EU의 농산물 대외 수입이 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 수준 유지. 주요 수입품목은 동물사료(125.3억 유로), 과일(61.5억 유로), 포도주(25.2억 유로), 과일채소가공품(20억 유로), 잎담배(17억 유로), 쇠고기(13.6억 유로), 식물성 유지(13.4억 유로), 설탕(11.8억 유로), 채소(11.4억 유로), 양고기(10.3억 유로) 등임.

※ EU의 농산물 수입대상국은 브라질(14.5%), 미국(10.7%), 아르헨티나(7%), 터키(4.1%), 중국(3.5%), 뉴질랜드(3.4%), 호주(3.2%), 스위스(3.0%) 등임.

2. 한 · EU 농산물 교역 현황

- 한국과 EU의 교역은 증가하는 동시에 한국의 흑자 규모가 확대 추세.
‘04년 한국의 대EU 수출액 378.3억 달러, 수입액 241.9억 달러

- 한국과 EU간 농산물 교역 비중은 낮은 편이며 특히 수출 비중이 낮음.
‘04년 대EU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수출총액의 0.2%인 6,400만 달러로 정제된 반면 수입액은 수입총액의 5.0% 수준인 9억 달러이며 증가 추세.

- 주요 수출품목은 합판과 깔판(1,200만 달러), 주류(1,000만 달러), 잎담배(810만 달러), 라면(670만 달러), 식물성 점질물(340만 달러), 인삼류(270만 달러) 등임.

- 주요 수입품목은 위스키(2.1억 달러), 돼지고기(1.8억 달러), 낙농품(8,600만 달러), 포도주(3,700만 달러), 감자전분(2,300만 달러), 로얄젤리

(1,600만 달러) 등임.

3. EU의 FTA 체결 사례 분석

□ EU는 지역통합의 대표적 사례로서 FTA를 비롯한 지역무역협정(RTA)을 가장 많이 체결. 그러나 다자간 협정을 선호하여 WTO 체제를 주도하고 있음.

○ EU는 개도국과 FTA 체결 협상시 비대칭성(Asymmetry)에 입각하여 신축적으로 예외 인정. 일반적으로 공산품에 대한 관세는 100% 철폐하나 농산물은 양허 제외를 포함하여 품목별로 양허 방식과 기간이 다양함.

※ EU는 회원국 정부들과 산업계, 농업조합들간 정기적 협의를 거쳐 민감품목을 선정하고 있음. 선정 기준은 세계가격(world price)과 역내가격(EU price)간 가격차와 상대국과의 교역구조, 그리고 EU 수입에 미치는 영향과 다른 수출국과의 경쟁 등임. 예를 들어 모로코와는 올리브유, 과일, 채소가 민감 품목이었지만, MERCOSUR와는 쇠고기가 민감 품목이었음.

○ EU의 FTA 협정문의 가장 큰 특징은 기본농산물(Basic Products)을 가공농산물(Processed Products)과 구분하여 별도의 독립적인 이행계획서를 작성하는 점. 식품안보 등 중요성이 큰 기본농산물을 보호하면서도 자유무역을 실현하기 위한 방식임.

※ EU의 멕시코산 농산물 양허 방식:

범주(category)	이행 기간	이행 방식	비고
1	발효 즉시	완전 철폐	
2	3년	4회 균등 철폐	매회 25%씩 인하
3	8년	9회 균등 철폐	매회 11%씩 인하
4	10년	3년 유예, 8회 균등 철폐	매회 12~13%씩 인하
4	9년	10회 균등 철폐	매회 10%씩 인하
5	3년간 유예	재검토 후 철폐 결정	제10(1)조
6	발효 즉시 TRQ	재검토 후 TRQ 물량 조절	제10(2)조, 수출입허가
7	-	기초농산물 관세 하락시	가공농산물 대상
E	즉시부터 10년	종가세만 철폐	수입가격제도 대상품목
O	-	관세 철폐 예외	보호대상 품목 지정

자료: EU(2000a).

※ EU의 칠레산 농산물 양허 방식:

범주(category)	이행 기간	이행 방식	비고
Year 0	발효 즉시	완전 철폐	
Year 4	4년	5회 균등 철폐	매회 20%씩 인하
Year 7	7년	8회 균등 철폐	매회 12.5%씩 인하
Year 10	10년	11회 균등 철폐	9% 10회, 10% 1회 인하
EP	-	종가세만 철폐	수입가격별 차등 종량세
SP	-	종가세만 철폐	종량세(고정) 유지
R	-	관세 50% 인하	기본관세(basic customs duty) 기준
TQ	-	쿼터 물량만 철폐	section 1의 특수 조건
PN	-	관세 철폐 예외	보호대상 품목 지정

자료: EU(2000b).

4. 한·EU FTA의 농업부문 파급 효과

□ 수출입 가격탄성치 계측에 의한 수출입 변화 전망

○ FTA 체결로 관세 철폐시 한국의 농산물 수입은 12.3%(약 1억 2,700만 달러) 증가 예상. 치즈 66.3%, 돼지고기 25.6% 등.

품 목	현행세율 ¹⁾ (%)	가격변화율(%) $\Delta t/(1+t)$	가격 탄성치(η) ²⁾	수입 변화율(%) ³⁾	연평균 수입액 ⁴⁾ (천 달러)	수입증가액 (천 달러)
농림축산물	49.8	-33.2	-0.37	12.3	1,033,560	127,128
치즈	36.0	-26.5	-2.5	66.3	21,476	14,239
돼지고기	25.0	-20.0	-1.28	25.6	136,839	35,031

- 1) 농림축산물은 가중평균 관세율이고 품목별 세율은 2004년 실행세율임.
- 2) 김홍중 외(2005)의 농수산물 수입가격 탄성치 계측 결과(-0.368)를 이용하였음.
- 3) 수입변화율은 가격변화율과 가격탄성치를 곱한 값임.
- 4) 연평균 수입액은 2000~2004년 평균 수입액임(표 4-5 참조).

○ FTA체결로 관세 철폐시 농산물 수출은 약 6.0%(약 270만 달러) 증가 예상됨. 라면 9.2%, 선인장 7.8% 등.

품 목	현행세율 ¹⁾ (%)	가격변화율(%) $\Delta t/(1+t)$	가격 탄성치(η) ²⁾	수출 변화율(%) ³⁾	연평균수출액 ⁴⁾ (천 달러)	수출증가액 (천 달러)
농림축산물	10.0	-9.0	-0.67	6.0	44,796	2,688
라면	12.8	-11.3	-0.81	9.2	5,057	465
선인장	8.3	-7.7	-1.01	7.8	972	76
베이커리 제품	11.8*	-10.6	-0.23	2.4	247	6

- 1) 2004년 EU의 실행세율임.
 - 2) 김홍중 외(2005)의 농수산물 수출수요의 가격탄성치 계측 결과(-0.673)를 이용하였음.
 - 3) 수출변화율은 가격변화율과 수출수요 가격탄성치를 곱한 값임.
 - 4) 연평균 수출액은 2000~2004년 평균 수출액임(표 4-4 참조).
- * “3.8%+ 100kg당 15.9유로”인 복합관세를 최근 수입가격에 대한 종가세로 환산한 세율임.

한 · EU FTA의 효과: 제조업 부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창수 WTO팀장

1. 교역현황 및 특징

□ 한국은 2차 산업 중 화공 및 기계류에서 적자를 보는 반면, 제조업, 그 중에서도 전기·전자, 자동차, 철도·항공기·선박 분야에서 큰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 이러한 추세는 EU를 기존 15개 회원국과 신규회원국으로 구분하여도 유사함. 다만 신규회원국과의 교역에서 기계류 부문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특성이 있음.

<표 1> 한·EU 교역현황

(2001~03년 평균, 천 달러)

	한·EU15			한·EU10			한·EU25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전산업	21670038	17077440	4592598	1866696	383954	1482742	23536735	17461395	6075340
제조업	21487729	16102683	5385046	1864075	341794	1522281	23351804	16444477	6907327
화학공업	498253	2670639	-2172387	16196	28621	-12426	514448	2699261	-2184812
플라스틱	979264	624289	354975	75469	3676	71793	1054732	627965	426767
원피·가죽·모피	23842	364001	-340159	4264	1209	3055	28105	365209	-337104
목제품	22855	113006	-90151	20	3156	-3136	22875	116162	-93288
목재펄프·종이	103338	300448	-197110	2089	625	1463	105426	301073	-195647
섬유제품	1412192	705912	706279	108161	6179	101982	1520352	712091	808261
신발·모자	101222	72842	28380	1311	1807	-496	102533	74649	27884
시멘트·유리	101509	330946	-229437	3219	33746	-30528	104727	364692	-259965
철강	439137	651485	-212348	5573	37797	-32225	444710	689283	-244573
비철금속	273906	438873	-164968	20291	3220	17071	294197	442094	-147897
전기전자	8572174	2868227	5703947	497119	151337	345782	9069293	3019564	6049729
(반도체)	1337288	975723	361566	16609	57273	-40664	1353897	1032996	320902
(통신기기)	2176126	345383	1830743	225575	7183	218392	2401701	352566	2049135
(가전기기)	1836692	1200031	636660	127961	52803	75158	1964653	1252835	711818
(컴퓨터)	3222069	347090	2874979	126973	34077	92896	3349042	381167	2967874
기계장비	2127285	4839675	-2712391	149172	41531	107641	2276456	4881206	-2604750
(기계)	1683252	3371873	-1688621	134941	35955	98986	1818193	3407828	-1589635

(정밀기기)	444033	1467802	-1023770	14231	5576	8655	458264	1473378	-1015115
자동차	3517747	1016196	2501551	231523	12314	219209	3749270	1028510	2720760
철도·항공기·선박	3003309	214629	2788680	738571	10929	727642	3741880	225558	3516321
기타	311698	891515	-579817	11099	5645	5455	322797	897159	-574362

자료: UN COMTRADE

주: 1) EU15는 기존의 15개 회원국(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 임.
2) EU10은 EU확대에 따라 새로 EU에 가입한 국가(사이프러스,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임.

□ 한국과 EU는 기본적으로 산업화된 경제로서 제조업 중심의 교역구조를 보여주고 있음

- 또한 대부분의 교역이 기존회원국과 이루어지고 있음.

- 기계장비의 경우 신규회원국에 대해 한국이 무역수지의 흑자를 보고 있는 반면, 기존회원국에 대해서는 적자를 보고 있음.

□ 한국 제조업의 대세계 수출에서 EU에 대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4.71%로 전산업 비중 13.94%를 상회하고 있음

- 對세계 수출보다도 對EU수출의 비중이 더 높은 산업은 목제품(26.69%), 전기·전자(14.81%), 기계장비(15.55%), 자동차(20.20%), 철도·항공기·선박(33.98%)임.

□ 한국 제조업의 대세계 수입에서 EU로부터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4.93%로 전산업 비중 11.10%를 상회하고 있음

- 對세계 수입비중보다 對EU 수입비중이 더 높은 산업은화학(21.08%), 플라스틱(16.24%), 원피·가죽·모피(23.14%), 목재펄프·종이(13.39%), 섬유제품(11.98%), 신발·모자(14.59%), 시멘트·유리(18.62%), 기계장비(24.71%), 자동차(40.47%), 철도·항공기·선박(17.95%) 등임.

□ 기존회원국과 신규회원국으로 구분해 볼 때 특이한 점은 수출에서 철도·항공기·선박 분야에 대한 신규회원국의 비중이 대단히 높다는 점임

- 신규회원국에 대한 전체 수출비중이 1.11% 밖에 되지 않는데 이 부문에 대한 수출의 비중은 무려 6.71%에 달하고 있음. 이는 특정 신규회원국에 대한 특정 품목의 수출이 많기 때문임.

<표 2> 한·EU 교역이 한국 전체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2001~03년 평균, %)

	한·EU15		한·EU10		한·EU25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전산업	12.83	10.85	1.11	0.24	13.94	11.10
제조업	13.53	14.62	1.17	0.31	14.71	14.93
화학공업	6.42	20.85	0.21	0.22	6.63	21.08
플라스틱	9.98	16.15	0.77	0.10	10.75	16.24
원피·가죽·모피	1.69	23.07	0.30	0.08	2.00	23.14
목제품	26.67	6.45	0.02	0.18	26.69	6.63
목재펠프·종이	5.33	13.36	0.11	0.03	5.44	13.39
섬유제품	9.24	11.88	0.71	0.10	9.94	11.98
신발·모자	11.82	14.23	0.15	0.35	11.98	14.59
시멘트·유리	11.52	16.89	0.37	1.72	11.88	18.62
철강	5.36	8.43	0.07	0.49	5.43	8.92
비철금속	8.24	8.15	0.61	0.06	8.85	8.21
전기전자	14.00	7.47	0.81	0.39	14.81	7.86
(반도체)	9.67	5.56	0.12	0.33	9.79	5.89
(통신기기)	14.03	9.55	1.45	0.20	15.49	9.75
(가전기기)	11.29	10.02	0.79	0.44	12.08	10.46
(컴퓨터)	20.59	6.61	0.81	0.65	21.40	7.25
기계장비	14.53	24.50	1.02	0.21	15.55	24.71
(기계)	13.99	26.23	1.12	0.28	15.11	26.51
(정밀기기)	17.05	21.29	0.55	0.08	17.60	21.37
자동차	18.95	39.98	1.25	0.48	20.20	40.47
철도·항공기·선박	27.28	17.08	6.71	0.87	33.98	17.95
기타	8.27	20.09	0.29	0.13	8.56	20.21

자료: UN COMTRADE

□ 한국-독일 무역

- 2004년 양국간 교역에서 한국은 1억 5천여만 불의 적자를 보였지만 이것은 다소 예외적인 경우이고 외환위기 직후 3년을 제외하고는 한국은 독일과의 교역에서 10억 불 내외의 만성적인 적자를 보여 왔음
- o 특히 기계장비와 자동차 부분에서 가장 큰 역조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독일 동 부문에서 세계 제일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것임.
- o 화학, 플라스틱, 비철금속, 가공식품 및 가전제품 등에서 적자가 발생하고 있음.
- 우리나라가 흑자를 실현하고 있는 부문은 컴퓨터·반도체 등 전기전자와 신발 등 일부 노동집약적인 품목群임.
- 쌍방교역이 활성화 되어 있는 부문은 정밀기기, 가전기기, 통신기기, 자동차, 섬유제품, 철도·항공·선박 등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으로 동 부문에서의 교역활성화가 우리나라의 對세계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한국-영국 무역

- 한국의 흑자규모가 매우 큰 특징을 보이고 있음.
- o 화학 부문에서 적자를 보이고 있으나 컴퓨터·가전기기 등 전기전자에서 큰 규모의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 또한 기계장비, 자동차, 철도·선박·항공 등의 부문에서는 양방향으로의 교역규모가 상당히 큰 특성을, 즉 산업내 무역이 활성화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 한국-이탈리아 무역

- 한-이탈리아 교역은 대체적으로 균형을 유지해 왔으나 2004년에 와서는

한국의 흑자 규모가 9억 불로 확대되었음.

- 우리나라는 철도·항공·선박, 통신기기, 비철금속, 수산물 등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원피·가죽, 신발·모자, 섬유제품, 화학, 기계부문에서 큰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o 전통적인 노동집약부문에서 고부가가치화를 이룩한 이탈리아의 산업특성을 반영하고 있음.

□ 한국-프랑스 무역

- 한-프랑스 교역의 특성은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전산업에 걸쳐 무역적자가 발생해 왔다는 점임.
- o 2004년에 와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을 제외하고 처음으로 1억 6천만 불의 흑자를 기록함.
- 우리나라가 흑자를 보이고 있는 부문은 자동차, 섬유, 신발 등이며, 철도·항공·선박, 기계장비, 반도체·통신기기 등 전자, 화학, 플라스틱, 가공식품 등의 부문에서 적자를 보이고 있음.
- 섬유제품, 전기전자(통신기기, 가전), 정밀기기 등의 부문에서 산업내 교역이 활성화되어 있음.

□ 한국-네덜란드 무역

- 한국은 네덜란드와의 제조업 교역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 컴퓨터·가전기기 등 전기전자, 기계, 신발·모자 부문에서 흑자를, 그리고 컴퓨터, 자동차, 축산, 농산물에서 적자를 유지하고 있음.

□ 한국-헝가리 무역

- 전기전자(통신기기, 가전기기), 기계장비, 플라스틱 등 제조업에서 더 큰 규모의 흑자를 기록함.

- 자동차에서도 흑자를 유지하고 있지만 수입비중도 상당한 수준에 이름.

□ 한국-폴란드 무역

- 전기전자(통신기기, 컴퓨터, 가전기기), 기계장비, 자동차, 플라스틱에서 큰 규모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표 3> 한·EU 회원국 교역이 한국 전체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2001~03년 평균, %)

	독일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헝가리		폴란드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전산업	2.80	3.55	2.34	1.59	1.35	1.37	1.00	1.37	1.51	0.75	0.25	0.06	0.21	0.04
제조업	2.98	4.99	2.47	1.94	1.43	1.91	1.06	1.84	1.57	0.97	0.26	0.07	0.22	0.04
화학공업	0.74	6.45	0.86	2.58	0.82	2.26	0.61	3.92	1.74	1.43	0.04	0.04	0.10	0.05
플라스틱	1.56	5.94	1.53	2.65	1.55	1.77	0.65	1.79	0.86	1.23	0.15	0.03	0.16	0.03
원피, 가죽	0.27	0.87	0.24	0.69	0.31	14.74	0.26	3.22	0.07	0.15	0.03	0.02	0.09	0.02
목제품	0.24	1.27	0.49	0.04	0.10	1.18	3.07	0.22	0.11	0.08	0.00	0.01	0.02	0.05
목재펠프, 종이	0.22	2.74	0.81	3.12	0.21	2.02	0.15	1.62	0.27	0.67	0.02	0.00	0.01	0.00
섬유제품	1.98	1.07	1.77	1.38	1.18	6.33	1.26	0.95	0.70	0.34	0.05	0.03	0.48	0.02
신발, 모자	2.31	0.75	1.85	0.77	0.52	11.34	2.52	0.44	1.79	0.08	0.05	0.08	0.03	0.01
시멘트, 유리	5.12	4.27	1.87	1.35	1.57	3.07	0.37	2.03	0.47	0.30	0.21	0.01	0.04	0.02
철강	0.59	2.14	0.84	1.27	1.02	0.68	0.22	1.07	0.45	0.30	0.03	0.02	0.01	0.12
비철금속	1.58	3.64	1.15	1.01	1.45	0.62	0.81	0.88	0.86	0.38	0.18	0.01	0.14	0.01
전기전자	3.78	2.18	3.50	0.72	0.79	0.40	1.87	1.60	2.14	0.32	0.41	0.13	0.23	0.04
(반도체)	5.17	1.70	1.70	0.33	0.08	0.14	2.18	1.66	0.08	0.23	0.01	0.02	0.01	0.00
(통신기기)	2.17	1.59	3.16	0.85	1.52	0.40	3.08	3.85	1.00	0.50	0.77	0.01	0.59	0.17
(가전기기)	2.44	3.77	2.48	1.38	1.01	0.81	1.31	1.41	1.79	0.46	0.32	0.15	0.15	0.06
(컴퓨터)	5.53	0.57	6.50	0.46	0.46	0.30	1.76	0.27	5.46	0.19	0.48	0.55	0.17	0.00
기계장비	2.92	11.45	1.94	2.55	1.86	2.68	0.69	1.95	2.53	2.50	0.45	0.02	0.30	0.04
(기계)	1.97	13.51	1.75	2.36	2.00	3.35	0.79	2.06	2.56	1.00	0.52	0.01	0.33	0.05
(정밀기기)	7.27	7.60	2.80	2.88	1.21	1.43	0.43	1.75	2.39	5.29	0.14	0.02	0.15	0.01
자동차	3.06	22.73	2.72	2.35	3.25	2.54	1.14	0.67	1.38	3.61	0.34	0.26	0.32	0.12
철도, 선박, 항공	5.93	2.09	2.42	2.95	2.98	0.39	3.32	5.51	1.10	0.68	0.00	0.00	0.00	0.09
기타	2.15	2.98	2.13	10.81	0.69	2.67	0.33	1.27	0.41	0.75	0.04	0.00	0.14	0.05

자료: UN COMTRADE

주: GER, UK, ITA, FRA, NET, HUN, POL은 각각 독일,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네덜

란드, 헝가리, 폴란드를 의미하며, X는 한국의 수출, M은 한국의 수입을 나타낸다.

2. 한국과 EU 국가의 산업별 경쟁력

가.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

- ☐ 시장점유율(한국시장 전체의 수입액에서 EU 회원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통해서 국가별 산업경쟁력을 파악하면 다음과 같음
- ☐ EU국가 중 우리나라와 가장 큰 교역규모를 가지고 있는 독일의 경우 제조업의 한국시장점유율은 4.96%임
 - 제조업 중에서도 자동차와 기계류의 시장점유율이 큼.
 - o 자동차의 경우 수입차 시장에서 기간평균 점유율은 21.82%로 일본의 점유율 33.77%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
 - o 독일의 기계 산업의 시장점유율은 기간 중 평균 13.48%로 일본 37.38% 및 미국 22.98%에 이어 세 번째로 한국 수입시장을 차지하고 있음.
 - o 그 다음으로 점유율이 높은 부문은 화학 및 플라스틱으로 각각 6.43% 및 5.99%를 기록하고 있음.
- ☐ 독일 다음으로 큰 교역규모를 가지고 있는 영국의 경우 모든 산업에서 골고루 한국에 진출하고 있음
 - 철도·항공·선박(2.96%), 정밀기기(2.92%) 및 기타 제조업(10.95%) 분야에서 한국시장점유율이 높음.
 - o 특히 기타 제조업의 점유율은 미국,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큼.
- ☐ EU국가 중 세 번째 교역대상국인 이탈리아의 경우 일부 특정산업에서 한국시장점유율이 상당히 큰 특징을 보이고 있음

- 가죽제품, 신발류의 한국시장 점유율은 각각 14.76% 및 11.33%에 이르며 섬유제품, 기계 및 자동차에서의 점유율도 각각 6.32%, 3.34% 및 2.63%를 기록하고 있음.

□ 프랑스의 경우 한국시장 점유율이 높은 부문은 철도·항공·선박(5.48%), 통신기기(3.89%), 화학공업(3.95%), 가죽제품(3.23%)임

□ 다른 EU 국가를 보면 아일랜드는 컴퓨터(4.35%)에서, 네덜란드는 정밀기기(5.15%) 및 자동차(3.84%), 스페인은 시멘트·유리(2.63%) 및 가죽제품(1.66%)에서, 스웨덴은 자동차(3.82%)에서 높은 한국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음

□ 10개 신규 회원국의 경우 대부분 한국 제조업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산업이 없음

- 단, 체코공화국은 시멘트·유리 및 기계장비에서,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는 철강에서, 몰타는 반도체에서 어느정도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음.

<표 4> EU 회원국의 한국시장점유율

(2001~03년 평균, %)

	FRA	GER	IRE	ITA	NET	SPA	SWE	UK	HUN	POL	CHN	JPN	USA
전산업	1.38	3.53	0.46	1.37	0.75	0.25	0.37	1.59	0.06	0.03	11.04	19.60	15.01
제조업	1.86	4.96	0.64	1.91	0.97	0.32	0.52	1.95	0.07	0.04	12.38	27.18	18.73
화학공업	3.95	6.43	0.85	2.27	1.44	0.70	0.36	2.61	0.04	0.05	8.01	30.46	19.63
플라스틱	1.80	5.99	0.05	1.78	1.24	0.37	0.43	2.68	0.03	0.03	6.10	40.08	18.71
원피, 가죽, 모피	3.23	0.86	0.05	14.76	0.15	1.66	0.02	0.68	0.02	0.02	16.53	1.35	36.83
목제품	0.22	1.26	0.00	1.17	0.08	0.53	0.38	0.04	0.01	0.05	13.10	0.54	8.75
목재펠프, 종이	1.62	2.73	0.00	2.03	0.67	0.16	0.90	3.13	0.00	0.00	2.82	9.42	27.84
섬유제품	0.95	1.07	0.07	6.32	0.34	0.25	0.11	1.38	0.03	0.02	45.09	8.21	5.96
신발, 모자	0.45	0.71	0.00	11.33	0.08	0.27	0.01	0.83	0.08	0.01	67.58	1.62	2.19
시멘트, 유리	2.03	4.29	0.07	3.08	0.31	2.63	0.08	1.36	0.01	0.02	25.29	29.34	13.33
철강	1.12	2.22	0.00	0.68	0.30	0.24	0.90	1.26	0.02	0.11	10.49	46.20	8.39
비철금속	0.88	3.61	0.05	0.63	0.38	0.11	0.55	1.00	0.01	0.01	14.00	17.74	9.59
전기전자	1.62	2.17	1.37	0.39	0.32	0.08	0.13	0.73	0.14	0.04	13.74	25.97	20.67
(반도체)	1.70	1.68	1.24	0.14	0.23	0.04	0.01	0.33	0.02	0.00	3.72	23.12	27.05
(통신기기)	3.89	1.57	0.77	0.40	0.50	0.08	0.62	0.85	0.01	0.17	14.58	30.23	23.70
(가전기기)	1.43	3.78	0.45	0.80	0.46	0.17	0.20	1.41	0.15	0.06	24.60	34.13	12.46

(컴퓨터)	0.27	0.57	4.35	0.30	0.19	0.02	0.06	0.46	0.55	0.00	22.14	13.98	15.73
기계장비	1.96	11.41	0.16	2.67	2.45	0.22	1.11	2.59	0.02	0.04	4.27	37.41	23.79
(기계)	2.06	13.48	0.04	3.34	1.00	0.29	1.31	2.41	0.01	0.05	3.16	37.38	22.98
(정밀기기)	1.77	7.54	0.38	1.44	5.15	0.11	0.73	2.92	0.02	0.01	6.34	37.46	25.31
자동차	0.62	21.82	0.01	2.63	3.84	1.05	3.82	2.17	0.26	0.11	3.14	33.77	16.30
철도, 항공기, 선박	5.48	2.10	0.01	0.39	0.67	0.12	0.08	2.96	0.00	0.09	3.52	10.49	44.79
기타	1.28	2.96	0.49	2.71	0.78	0.25	0.05	10.95	0.00	0.05	11.07	7.94	14.06

나. 對세계 현시 비교우위지수(RCA)

- 특정품목의 세계전체 수출에서 한 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세계 총 수출에서 그 나라의 총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나눈 값으로, 특정품목의 세계 전체 수출에서 한 나라가 차지하는 상대적인 비중을 나타냄
- 현시비교우위지수가 1보다 크면 그 나라의 총 수출에서 그 산업의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그 산업이 그 나라의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더 있다는 것을 의미함.
- 한국은 철도·항공·선박(3.32)과, 통신기기(3.08)와 반도체(2.18) 등 전기전자(1.87), 그리고 섬유(1.58), 플라스틱(1.40), 철강(1.39), 자동차(1.14)에서 높은 경쟁력을 기록하고 있으나, 정밀기기(0.43)에서는 낮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음
- 독일의 경우는 기계(1.77), 자동차(1.89), 철도·항공·선박(1.76)에서 높은 對세계 경쟁력을 보여줌
- 영국의 경우도 철도·항공·선박(1.88), 통신기기(1.86), 화학공업(1.56), 기계(1.43)의 RCA가 대단히 높음
- 이탈리아의 경우는 신발·모자(3.14), 시멘트·유리(2.98), 가죽제품(2.93), 기계(2.14), 섬유제품(1.76)의 RCA가 높음

- 프랑스의 경우는 철도·항공·선박(3.44), 자동차(1.47), 화학(1.54) 등의 경쟁력이 높음
- 네덜란드도 컴퓨터(2.34), 정밀기기(1.74), 화학(1.48) 등에서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음
- 아일랜드는 컴퓨터(3.80), 반도체(1.71), 정밀기기(1.55), 화학(4.51), 축산물(2.16)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
- 스페인은 자동차(2.40), 철도·항공·선박(1.24) 등에서 경쟁력을 보유
- 헝가리는 통신기기(3.35), 가전기기(2.28), 기계(1.74)에서, 폴란드는 철도·항공·선박(3.18), 시멘트·유리(2.05), 목제품(2.72) 및 펄프·종이(1.55)에서 경쟁력을 보유

<표 5> 한 · EU 회원국의 대세계 경쟁력: 현시비교우위지수(RCA)

(2001~03년 평균)

	KOR	FRA	GER	GRE	IRE	ITA	NET	POR	SPA	UK	HUN	POL
전산업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제조업	1.15	1.05	1.15	0.80	1.12	1.11	0.89	1.10	0.99	1.05	1.11	1.06
광물성 생산품	0.42	0.27	0.16	1.06	0.05	0.20	0.71	0.25	0.34	0.81	0.16	0.51
화학공업	0.52	1.54	1.15	0.92	4.51	0.87	1.48	0.47	0.95	1.56	0.52	0.55
플라스틱	1.40	1.09	1.29	1.01	0.24	1.16	1.45	0.95	1.22	0.76	0.97	1.20
원피, 가죽	1.01	1.07	0.37	3.10	0.23	2.93	0.42	0.45	1.02	0.41	0.62	0.98
목제품	0.04	0.57	0.58	0.29	0.25	0.45	0.25	4.00	0.70	0.17	0.98	2.72
목재펄프, 종이	0.49	1.09	1.19	0.61	0.26	0.93	1.09	2.06	1.22	0.98	0.61	1.55
섬유제품	1.58	0.70	0.57	3.14	0.16	1.76	0.51	3.07	0.82	0.49	0.85	1.18
신발, 모자	0.52	0.40	0.29	0.34	0.04	3.14	0.54	5.86	1.67	0.29	1.00	0.73
시멘트, 유리	0.48	1.34	1.10	1.36	0.35	2.98	0.60	3.21	2.88	0.82	1.06	2.05
철강	1.39	1.27	1.11	1.04	0.08	1.39	0.90	0.90	1.22	0.78	0.72	1.93
비철금속	0.71	0.85	1.22	2.95	0.17	1.08	0.82	0.84	0.94	0.87	0.96	1.67
전기전자	1.87	0.68	0.71	0.30	1.79	0.40	1.08	0.71	0.41	1.04	1.79	0.58
(반도체)	2.18	0.50	0.47	0.04	1.71	0.25	0.44	0.63	0.13	0.73	0.18	0.05
(통신기기)	3.08	0.92	0.84	0.66	0.80	0.46	0.76	0.21	0.40	1.86	3.35	0.28
(가전기기)	1.31	0.85	0.95	0.41	0.79	0.62	0.63	1.30	0.73	0.84	2.28	1.34
(컴퓨터)	1.76	0.43	0.47	0.12	3.80	0.18	2.34	0.24	0.19	1.10	1.40	0.04
기계장비	0.69	1.10	1.60	0.46	0.60	1.73	0.96	0.55	0.71	1.36	1.41	0.89
(기계)	0.79	1.18	1.77	0.54	0.23	2.14	0.70	0.65	0.83	1.43	1.74	1.17
(정밀기기)	0.43	0.88	1.18	0.26	1.55	0.67	1.64	0.30	0.38	1.18	0.57	0.19

자동차	1.14	1.47	1.89	0.08	0.06	0.86	0.53	1.48	2.40	0.94	0.90	0.98
철도,항공,선박	3.32	3.44	1.76	0.74	0.09	1.18	0.46	0.54	1.24	1.88	0.19	3.18
기타	0.33	0.39	1.01	0.47	0.68	1.30	0.28	0.45	0.65	0.98	0.80	1.44

나. 한국과 EU 회원국간의 무역특화지수(TSI)

- ☐ 교역상대국이 해당품목의 무역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수출(수입) 지향적일 수록 지수가 1 (-1)에 가까운 값을 가지게 되며, 상대적으로 수입지향적일 수록 -1 (1)에 가까운 값을 가지게 됨
- ☐ 한국은 독일과의 무역에서 철도·항공·선박, 컴퓨터, 통신기기 및 섬유제품에서 강한 수출지향성을, 그리고 기계, 화학 등에서 강한 수입지향성을 나타내고 있음.
- ☐ 對영국 무역특화지수를 보면 역시 전기전자, 철도·항공·선박 및 자동차에서 강한 수출지향성을, 그리고 화학 및 농산물부문에서 강한 수입지향성을 보이고 있음
- ☐ 對프랑스 교역에서는 자동차, 철도·항공·선박, 신발류 등에서 강한 수출지향성을 화학, 철강에서는 강한 수입지향성을 보이고 있음
 - 전기전자산업에서는 반도체에서는 강한 수입지향성을, 컴퓨터 및 통신기기에서는 수출지향성을 보여 전기전자 전체에서는 특별한 지향성이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음.
- ☐ 對이탈리아 교역에서는 역시 자동차, 철도·항공·선박, 통신기기, 컴퓨터에서 강한 수출지향성을 보이고 있으나, 섬유제품, 가죽제품, 화학에서 높은 수입지향성이 나타나고 있음.
- ☐ 對네덜란드 교역에서는 전기전자 및 섬유제품에서 강한 수출지향성을, 그

리고 정밀기기에서 수입지향성을 보이고 있음.

□ 對헝가리 교역은 화학, 컴퓨터 등 일부를 제외하고 제조업 전 부문에서 수출지향성을 보이고 있음

□ 對폴란드 무역특화지수도 對헝가리 경우와 유사.

- 다만 반도체에서 수입지향성을 보이고 있음.

<표 6> 한·EU 회원국간의 무역특화지수(TSI)

(2001~03년 평균)

	FRA	GER	GRE	IRE	ITA	NET	POR	SPA	SWE	UK	HUN	POL
전산업	-0.12	-0.08	0.93	-0.10	0.03	0.37	0.78	0.62	-0.13	0.22	0.57	0.73
제조업	-0.10	-0.07	0.98	-0.07	0.04	0.40	0.79	0.65	-0.13	0.29	0.66	0.76
화학공업	-0.83	-0.87	0.48	-0.86	-0.64	-0.15	0.58	-0.54	-0.83	-0.67	-0.33	0.09
플라스틱	-0.04	-0.20	0.98	0.86	0.38	0.28	0.93	0.73	0.48	0.18	0.86	0.87
원피, 가죽	-0.87	-0.56	-0.40	-0.85	-0.96	-0.34	-0.42	-0.87	0.24	-0.52	0.11	0.71
목제품	-0.48	-0.98	-0.38	-1.00	-0.99	-0.83	-0.84	-0.68	-0.89	-0.28	0.00	-0.95
목재펄프, 종이	-0.86	-0.87	0.61	0.32	-0.83	-0.55	-0.40	-0.65	-0.92	-0.64	0.93	0.67
섬유제품	0.54	0.65	0.94	0.35	-0.35	0.68	0.55	0.83	0.76	0.53	0.64	0.97
신발, 모자	0.81	0.68	1.00	0.94	-0.85	0.94	-0.17	0.69	0.97	0.61	-0.02	0.58
시멘트, 유리	-0.84	-0.29	-0.43	-0.88	-0.62	-0.16	-0.79	-0.85	-0.13	-0.28	0.39	-0.06
철강	-0.64	-0.55	0.97	0.73	0.23	0.24	0.93	0.41	-0.75	-0.17	0.20	-0.82
비철금속	-0.28	-0.57	0.28	0.25	0.18	0.17	0.90	0.64	-0.66	-0.17	0.84	0.76
전기전자	-0.02	0.46	0.95	-0.10	0.52	0.83	0.74	0.89	0.52	0.77	0.58	0.82
(반도체)	-0.80	0.41	0.92	0.14	-0.36	-0.54	-0.07	0.04	0.55	0.60	-0.43	0.25
(통신기기)	0.30	0.70	0.99	-0.65	0.88	0.77	0.99	0.98	0.58	0.87	1.00	0.87
(가전기기)	0.01	-0.07	0.91	-0.31	0.27	0.67	0.72	0.79	0.29	0.42	0.47	0.54
(컴퓨터)	0.77	0.93	0.90	-0.33	0.63	0.98	0.49	0.96	0.76	0.95	0.25	0.99
기계장비	-0.44	-0.68	0.96	-0.63	-0.32	-0.12	0.92	0.64	-0.72	-0.28	0.90	0.72
(기계)	-0.37	-0.76	0.96	0.07	-0.28	0.42	0.92	0.68	-0.70	-0.18	0.94	0.72
(정밀기기)	-0.61	-0.47	0.96	-0.93	-0.51	-0.69	0.80	0.34	-0.80	-0.47	0.42	0.65
자동차	0.91	0.00	1.00	0.99	0.81	0.45	1.00	0.90	0.03	0.80	0.74	0.91
철도,항공,선박	0.46	0.90	1.00	0.76	0.97	0.30	-0.33	0.38	-0.12	0.68	0.00	-0.95
기타	-0.25	-0.23	0.38	-0.80	-0.63	-0.37	0.31	0.25	0.52	-0.69	0.83	0.44

다. 보완성지표: 산업내 무역지수와 무역결합도지수

□ 한국과 독일 간에는 자동차산업에서의 무역결합도 지수가 1.14로 양국간

자동차산업이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시사함

- 산업내무역지수로 평가할 때는 자동차는 물론 가전기기, 플라스틱 등에서 산업내교역이 활성화되어 있음.

□ 한국과 영국 간에는 기타제조업에서의 무역결합도가 아주 큰 값을 보이고 있음

- 한국의 對영국 경쟁력이 취약한 부문으로 양국이 서로 경합하지 않음을 의미함.

- 양국간에 산업내교역이 활성화되어 있는 산업은 기계, 철강, 비철금속 및 플라스틱임.

□ 한국과 네덜란드 간에는 정밀기기에서 1보다 큰 무역결합성이 나타나고 있음

- 양국간에 산업내무역 비중이 높은 산업은 기계장비, 비철금속, 화학 등임.

□ 한국과 아일랜드 간에는 전기전자(반도체), 기계 산업에서 산업내무역비중이 높음

□ 한국과 이탈리아 간에는 가전기기, 자동차, 플라스틱산업에서 산업내무역 비중이 높음

- 원피·가죽·모피 등에서 양국간 무역결합도지수가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이탈리아로 거의 완전특화가 발생하고 있어 양국의 경쟁관계가 발생할 여지가 없음.

□ 한국과 스웨덴 간에도 자동차산업에서 높은 무역결합도 수치를 발견할 수

있음

- 동 산업에서 양국의 경쟁력은 비슷하며 산업내무역지수도 0.92에 달해 한·EU FTA 이후 상호보완적으로 양국간 산업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신규회원국의 경우를 보면 한국과의 산업내무역지수도 작고 무역결합도도 낮아 현재로서는 주로 한국의 수출시장 성격이 강할 것으로 생각됨

<표 7> 한·EU 회원국간의 산업내무역지수 (GL)

(2001~03년 평균)

	FRA	GER	IRE	ITA	NET	POR	SPA	SWE	UK	HUN	POL
전산업	0.88	0.92	0.90	0.96	0.63	0.22	0.38	0.87	0.78	0.43	0.27
제조업	0.90	0.93	0.92	0.96	0.60	0.21	0.35	0.87	0.71	0.34	0.24
화학공업	0.17	0.13	0.14	0.36	0.85	0.42	0.46	0.17	0.33	0.67	0.77
플라스틱	0.95	0.80	0.14	0.62	0.72	0.07	0.27	0.52	0.82	0.14	0.13
원피, 가죽, 모피	0.13	0.44	0.15	0.04	0.66	0.56	0.13	0.69	0.48	0.75	0.29
목제품	0.27	0.02	0.00	0.01	0.17	0.16	0.32	0.11	0.60	0.00	0.05
목재펄프, 종이	0.14	0.13	0.68	0.17	0.45	0.60	0.35	0.08	0.36	0.07	0.33
섬유제품	0.46	0.35	0.65	0.65	0.32	0.45	0.17	0.24	0.47	0.36	0.03
신발, 모자	0.19	0.32	0.06	0.15	0.06	0.69	0.31	0.03	0.39	0.50	0.42
시멘트, 유리	0.16	0.71	0.12	0.38	0.84	0.21	0.15	0.86	0.65	0.61	0.69
철강	0.36	0.45	0.27	0.77	0.76	0.07	0.59	0.25	0.80	0.60	0.18
비철금속	0.72	0.43	0.69	0.82	0.83	0.10	0.36	0.34	0.80	0.16	0.24
전기전자	0.93	0.54	0.90	0.48	0.17	0.26	0.11	0.48	0.23	0.42	0.18
(반도체)	0.20	0.59	0.86	0.64	0.46	0.79	0.46	0.45	0.40	0.56	0.75
(통신기기)	0.70	0.30	0.35	0.12	0.23	0.01	0.02	0.42	0.13	0.00	0.13
(가전기기)	0.97	0.93	0.69	0.73	0.33	0.28	0.21	0.71	0.58	0.53	0.46
(컴퓨터)	0.23	0.07	0.67	0.37	0.02	0.51	0.04	0.24	0.05	0.50	0.01
기계장비	0.56	0.32	0.37	0.68	0.88	0.08	0.36	0.28	0.72	0.10	0.28
(기계)	0.63	0.24	0.87	0.72	0.58	0.08	0.32	0.30	0.82	0.06	0.28
(정밀기기)	0.39	0.53	0.07	0.49	0.31	0.20	0.66	0.20	0.53	0.58	0.35
자동차	0.09	0.91	0.01	0.19	0.55	0.00	0.10	0.92	0.20	0.26	0.09
철도, 항공기, 선박	0.54	0.10	0.24	0.03	0.20	0.01	0.56	0.25	0.32	0.00	0.05
기타	0.75	0.77	0.20	0.37	0.63	0.69	0.75	0.48	0.31	0.17	0.56

주: 상호보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품목분류 상 같은 부류에 속하는 상품을 수출하면서 수입하는 형태의 산업내 무역의 개념을 활용할 수 있다. 여기서는 산업내 무역 (수평적 또는 수직적분업의 상호보완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그루벨-로이드 지수 (GL 지수)를 사용하였다.

$$GL_{ij}^k = 1 - TSI_{ij}^k = \{ |X_{ij}^k - M_{ij}^k| / (X_{ij}^k + M_{ij}^k) \}$$

(X_{ij}^k , M_{ij}^k 는 각각 i국의 j국에 대한 k품목의 수출액과 수입액)

<표 8> 한·EU 회원국간의 무역결합도지수 (TII)

(2001~03년 평균)

	FRA	GER	IRE	ITA	NET	SPA	SWE	UK	HUN	POL
전산업	0.28	0.35	0.33	0.32	0.25	0.12	0.27	0.35	0.11	0.05
제조업	0.36	0.43	0.40	0.41	0.36	0.15	0.33	0.41	0.11	0.06
화학공업	0.52	0.56	0.14	0.61	0.32	0.35	0.26	0.37	0.13	0.15
플라스틱	0.34	0.46	0.13	0.36	0.28	0.14	0.35	0.79	0.06	0.03
원피, 가죽, 모피	0.61	0.23	0.16	1.19	0.12	0.77	0.05	0.37	0.07	0.03
목제품	0.08	0.21	0.01	0.62	0.11	0.35	0.09	0.06	0.01	0.03
목재펄프, 종이	0.30	0.23	0.01	0.51	0.20	0.06	0.15	0.71	0.00	0.00
섬유제품	0.28	0.19	0.30	0.85	0.23	0.15	0.29	0.63	0.05	0.02
신발, 모자	0.23	0.24	0.06	0.86	0.05	0.08	0.03	0.63	0.14	0.02
시멘트, 유리	0.31	0.39	0.14	0.24	0.17	0.44	0.08	0.37	0.02	0.01
철강	0.18	0.20	0.04	0.11	0.11	0.10	0.40	0.36	0.05	0.08
비철금속	0.21	0.30	0.20	0.14	0.15	0.06	0.35	0.26	0.02	0.01
전기전자	0.48	0.30	0.55	0.23	0.10	0.09	0.12	0.16	0.14	0.10
(반도체)	0.68	0.35	0.54	0.13	0.28	0.14	0.06	0.11	0.19	0.14
(통신기기)	0.85	0.19	0.63	0.22	0.23	0.09	0.16	0.11	0.00	0.98
(가전기기)	0.34	0.40	0.41	0.31	0.24	0.11	0.18	0.37	0.12	0.07
(컴퓨터)	0.14	0.12	0.84	0.39	0.03	0.04	0.21	0.10	0.70	0.08
기계장비	0.36	0.71	0.19	0.37	0.84	0.15	0.57	0.42	0.02	0.06
(기계)	0.35	0.76	0.12	0.37	0.47	0.16	0.59	0.37	0.01	0.06
(정밀기기)	0.41	0.64	0.18	0.51	1.03	0.14	0.56	0.55	0.07	0.09
자동차	0.08	1.14	0.18	0.73	2.40	0.21	2.27	0.50	0.51	0.16
철도, 항공기, 선박	0.33	0.12	0.08	0.08	0.52	0.05	0.09	0.35	0.00	0.05
기타	0.67	0.31	0.52	0.49	0.93	0.18	0.03	2.51	0.01	0.05

주: 양 국가간 교역에 나타나는 상호보완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무역결합도지수 (TII_{ij}^k)를 사용하는데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TII_{ij}^k = (X_{ij}^k / X_i^k) / (M_j^k / M^k)$$

(X_{ij}^k 는 i국의 j국에 대한 k품목의 수출, X_i^k 는 i국의 k품목 총수출,

M_j^k 는 j국의 k품목 총수입, M^k 는 k품목의 세계 총수입).

TII가 1보다 크면 그 품목의 무역에 관해 양국간 상호보완성이 세계평균보다 높은 반면 1보다 작으면 상호보완성이 세계평균보다 낮다고 할 수 있다.

4. 경쟁력에 따른 산업분류

가. 분류 체계

□ 본절에서는 24개 산업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분류하여 산업별 경쟁력

을 추정하고자 함

- 제1산업군 (경쟁력강 산업군)
- 제2산업군 (경쟁력열위 산업군): 제1산업군보다 경쟁력이 작으나 제3산업군보다 경쟁력이 커서 조건부로 자유화가 가능한 산업군임.
- 제3산업군 (민감산업군, 보호대상 산업군)
- 제4산업군 (절대적 경쟁력취약 산업군): 경쟁력이 없어 FTA에 따른 추가적 무역자유화에도 큰 변화가 없는 취약산업군

□ 4단계를 거치면서 산업군을 조정

- 1단계에서는 對세계 현시 비교우위지수(RCA, 절대적 경쟁력지표)를 출발점으로 활용하여 산업군 분류를 시작.
- 2단계에서는 4산업군 (절대적 경쟁력 취약산업군) 선정의 오류, 즉 쉽게 포기하여 손해 볼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보완작업 수행.
- 3단계는 가장 중요한 단계로 대상국가와의 무역특화지수로 평가한 EU 각 회원국에 대한 상대적 경쟁력을 고려하여 산업경쟁력을 평가.
- 4단계에서는 대상국별로 분류된 산업군을 다시 절대적 경쟁력 지표를 사용하여 보완함.

□ 1단계에서는 RCA지수를 통하여 모든 산업의 객관적인 경쟁력에 의해 4개 산업군으로 분류

<표 9> RCA_j^k 값에 따른 산업군 분류기준

품 목 군	기 준	설 명
제1산업군	$RCA_j^k \geq 1$	경쟁력강 산업군(FTA 적극추진 산업)
제2산업군	$0.5 \leq RCA_j^k < 1$	경쟁력열위 산업군(조건부협상추진 산업군)

품 목 군	기 준	설 명
제3산업군	$0.1 \leq RCA_j^k < 0.5$	보호대상산업군(민감산업군)
제4산업군	$RCA_j^k < 0.1$	절대적인 경쟁력 취약산업군

□ 2단계에서는 RCA지수의 증가율로 4품목군(절대적 경쟁력취약 산업군) 선정의 오류를 수정

- 제2단계에서는 절대적으로 경쟁력은 약하지만 RCA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산업인 경우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 이들 산업목을 제3품목군으로 이동함.

<표 10> 제2단계에 의한 변화

변 화 기 준	제1단계	제2단계
	제1산업군	
	제2산업군	
	제3산업군	
RCA_j^k 가 증가하는 경우	제4산업군	제3산업군

주: 1) 기서는 기간을 1996-1997, 1998-2000, 2001-2003 등 세 기간으로 나누고 기간 평균 RCA지수가 증가하는 경우 산업군을 조정.

□ 3단계가 가장 중요한 단계로 EU 회원국에 대한 상대적 경쟁력을 나타내는 EU 회원국과의 무역특화지수로 산업분류를 조정

- 3단계에서는 무역특화지수를 이용한 평가에서 경쟁이 치열(제2산업군)하거나 경쟁력이 취약(제3산업군)하다고 판단되는 품목들 가운데 협상 대상국에 대해서는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품목을 추출하여 이들을 제1산업군으로 이동함.

- 또한 EU 회원국과의 무역특화지수를 이용하여 제1품목군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을 추출하고 이를 제2산업군으로 이동시킴.

<표 11> 제3단계에 의한 변화

변 화 기 준	제2단계	제3단계
TSI_{ij}^k 에 의해 제2산업군으로 구분된 경우	제1산업군	제2산업군
TSI_{ij}^k 에 의해 제1산업군으로 구분된 경우	제2산업군	제1산업군
TSI_{ij}^k 에 의해 제1산업군으로 구분된 경우	제3산업군	제1산업군
	제4산업군	

□ 3단계에서 협상 대상국별로 선정된 산업군을, 4단계에서 다시 절대적 경쟁력 지표를 사용하여 보완

- 즉, 절대적인 對세계 경쟁력 지수를 활용하여 국제적인 관점에서 보완
 - o 예를 들면 對독일 수입특화 산업일지라도 對세계 경쟁력이 아주 강할 경우 FTA협상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임.
- 제2, 3, 4산업군 중 RCA_j^k 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RCA 지수보다 2배 이상 높은 산업을 선정하여, 제4산업군에 속해있던 산업은 제3산업군으로 조정하고, 제2산업군, 3산업군에 속해있던 산업은 제1산업군으로 조정함.

<표 12> 제4단계에 의한 변화

변 화 기 준	제3단계	제4단계
	제1산업군	
$RCA_j^k \geq 2$	제2산업군	제1산업군
$RCA_j^k \geq 2$	제3산업군	제1산업군
$RCA_j^k \geq 2$	제4산업군	제3산업군

나. 분류 결과

<표 13> 각 단계별 산업군 변화: 24개 산업

(단위: 개)

구분		제1산업 (경쟁력강)	제2산업 (경쟁열위)	제3산업 (민감)	제4산업 (절대취약)
공통	1단계	10	5	7	2
공통	2단계	10	5	7	2
프랑스	3단계	7	8	7	2
	4단계	8	7	7	2
독일	3단계	7	8	7	2
	4단계	7	8	7	2
이탈리아	3단계	9	6	7	2
	4단계	10	5	7	2
영국	3단계	9	6	7	2
	4단계	9	6	7	2
헝가리	3단계	16	4	2	2
	4단계	17	3	2	2
폴란드	3단계	16	3	3	2
	4단계	17	2	3	2

□ 한국-프랑스

- 결과적으로 한-프랑스 양국간 관계에서 민감품목(제3산업군)으로 목재 펄프·종이, 시멘트·유리, 정밀기기, 기타제조업이 분류되었고, 4산업군(절대적 경쟁력 취약산업군)으로는 목재 산업이 선정되었음.

□ 한국-독일

- 3산업군 및 1산업군은 한-프랑스의 경우와 동일하며, 프랑스의 경우와 비교할 때 오직 가전만이 1산업군에서 2산업군으로 이동함.

□ 한국-영국

- 한국-독일과 비교할 때, 가전기기 및 플라스틱제품이 3산업군(경쟁력열위 산업군)에서 1산업군(경쟁력강 산업군)으로 이동한 것만이 차별적임.

□ 한국-이탈리아

- 전통적 경공업제품에서 기술 및 디자인 우위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이탈리아 경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앞의 경우와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음.
- 한국-이탈리아간 무역특화지수로 산업군을 조정한 3단계에서 수산 및 비철금속이 2산업군에서 1산업군으로 이동했으나, 섬유제품, 원피·가죽, 반도체가 1산업군에서 2산업군으로 하향 이동.

□ EU 신규회원국을 대표하는 헝가리 및 폴란드의 경우는 기존 회원국 산업군 분류와 완전히 다른 산업선정 결과를 보여줌

<표 14> 24개 산업의 주요국별 산업군 분류 결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헝가리	폴란드
1 산 업 군	섬유제품, 신발·모자, 반도체, 통신기기, 가전기기, 컴퓨터, 자동차, 철도·항공·선박	섬유제품, 신발·모자, 반도체, 통신기기, 컴퓨터, 자동차, 철도·항공·선박	플라스틱, 철강, 비철금속, 반도체, 통신기기, 가전기기, 컴퓨터, 자동차, 철도·항공기·선박	플라스틱, 섬유제품, 신발·모자, 반도체, 통신기기, 가전기기, 컴퓨터, 자동차, 철도·항공·선박	플라스틱, 원피·가죽·모피, 목재펄프·종이, 섬유제품, 시멘트·유리, 철강, 비철금속, 반도체, 통신기기, 가전기기, 컴퓨터, 기계, 정밀기기, 자동차, 철도·항공·선박, 기타제조업	광물성 생산품, 화학공업, 플라스틱, 원피·가죽·모피, 목재펄프·종이, 섬유제품, 신발·모자, 비철금속, 반도체, 통신기기, 가전기기, 컴퓨터, 기계, 정밀기기, 자동차, 철도·항공·선박, 기타제조업
2 산 업 군	화학공업, 플라스틱, 원피·가죽·모피, 철강, 비철금속, 기계	화학공업, 플라스틱, 원피·가죽·모피, 철강, 비철금속, 가전기기, 기계	화학공업, 원피·가죽·모피, 섬유제품, 신발·모자, 기계	화학공업, 원피·가죽·모피, 철강, 비철금속, 기계	화학공업, 신발·모자	철강

3 산 업 군	목재펄프·종 이, 시멘트·유리 , 정밀기기, 기타제조업	목재펄프·종 이, 시멘트·유리, 정밀기기, 기타제조업	목재펄프·종 이, 시멘트·유리, 정밀기기, 기타제조업			시멘트·유리
4 산 업 군	목제품	목제품	목제품	목제품	목제품	목제품

□ 각국별 민감산업군을 종합 정리하여 보면 한·EU FTA 추진시의 민감산업 후보군으로 목재펄프·종이, 시멘트·유리, 정밀기기, 기타제조업 등을 추출할 수 있음

- 반면 전통적 제조업 강국인 한국의 입장에서 제조업의 핵심 중추산업인 기계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기계 산업도 민감산업군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민감산업 후보군은 시멘트·유리, 기계, 정밀기기, 기타제조업 등임.

□ 동 후보군의 기본 무역자료를 다시 정리한 것이 <표 15>임

- 이에 따르면 시멘트·유리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산업 수입총액에서 차지하는 산업의 비중으로 본 우리나라의 수입시장 규모가 크지 않아 한·EU FTA에 따른 국내 업체의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한·EU FTA로 국내산업에 강한 충격을 줄 수 있는 민감 산업은 역시 기계 및 정밀기기 등 기계류일 것으로 판단됨.

o 동 산업에서는 EU 주요국의 한국시장 점유율이 크고, 무역적자 폭도 상당한 규모이며, 또한 상대적인 경쟁력에서도 큰 차이가 있음.

o EU 주요국으로부터의 선진화된 기계류의 수입을 통하여 對세계 경쟁력

을 유지할 수 있는 전략마련이 필요할 것임.

<표 15> 민감산업 후보군의 주요지표

HS 단위		시멘트·유리	기계	정밀기기	기타제조업
		68-70	84(-8471,8473)	90-92	71, 93-99
4단계	對프랑스	4	3	4	4
	對독일	4	3	4	4
	對이탈리아	4	3	4	4
	對영국	4	3	4	4
	對헝가리	1	1	1	1
	對폴란드	4	1	1	1
한국시장 점유율(%)	프랑스	2.03	2.06	1.77	1.28
	독일	4.29	13.48	7.54	2.96
	이탈리아	1.36	2.41	2.92	10.95
	영국	2.69	6.34	3.39	8.22
상품수지 (천 달러)	對프랑스	-36,465	-144,999	-92,286	-23,002
	對독일	-38,604	-1,499,689	-334,512	-51,258
	對이탈리아	-9,915	-93,268	-125,824	-399,399
	對영국	-46,374	-190,262	-67,234	-92,672
산업특성	한국의 對세계 BOP(천달러)	-1,077,813	-824,698	-4,292,236	-669,543
	한국수출비중(%)	0.52	7.11	1.52	2.22
	한국수입비중(%)	1.24	8.15	4.36	2.79
무역특화 지수	對프랑스	-0.84	-0.37	-0.61	-0.25
	對독일	-0.29	-0.76	-0.47	-0.23
	對이탈리아	-0.62	-0.28	-0.51	-0.63
	對영국	-0.28	-0.18	-0.47	-0.69
對세계 RCA	한국	0.48	0.79	0.43	0.33
	프랑스	1.34	1.18	0.88	0.39
	독일	1.10	1.77	1.18	1.01
	이탈리아	2.98	2.14	0.67	1.30
	영국	0.82	1.43	1.18	0.98

한 · EU FTA의 효과: 서비스 부문

공주대학교
박순찬 교수

I. 서비스 부문의 위치와 교역현황

□ 선진국의 경우 서비스 부문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용과 생산에서 70%를 넘어섰다.

<표 1> 주요국 서비스 부문의 GDP 비중

(단위: %)

	2000	2001	2002	2003	2004
EMU	69.32	69.76	70.49	70.89	71
France	74.26	74.72	75.49	75.89	75.76
Germany	68.48	68.92	69.79	70.13	69.81
Japan	66.33	67.65	68.31	68.16	..
Korea, Rep.	54.39	56.29	57.46	57.22	55.49
Netherlands	70.34	70.57	71.51	71.8	71.97
United Kingdom	70.44	71.58	72.91	72.79	72.69
United States	74.61	75.83	76.74	76.54	..

주) 부가가치 기준

출처: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 한국의 서비스는 미국, EU를 비롯한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일본에 비해서도 낮다. 즉, 이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한국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세계 무역에서 서비스의 비중(2004년 20%)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04년 세계 서비스 교역 성장률은 18%에 달하였다.

<표 2> 세계 서비스 수출 현황(2004)

(단위: billion dollars, %)

	금액	비중		연간 변화율			
	2004	2000	2004	2000-04	2002	2003	2004
All commercial services	2125	100.0	100.0	9	7	14	18
Transportation	500	23.4	23.6	10	4	14	23
Travel	625	32.0	29.4	7	4	10	18
Other commercial services	1000	44.5	47.0	11	10	16	16

출처: WTO

- <표 3>은 국가별 총수출 및 총수입에서 제조업 및 상업적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표 3> 국가별 서비스 수출입 비중(2004)

(단위: billion dollars, %)

	수출총액	제조업수 출비중	서비스수 출비중	수입총액	제조업수 입비중	서비스수 입비중
World	11140	80.9	19.1	11060	81.1	18.9
United States	1129	71.8	28.2	1733	85.0	15.0
Europe	5032	77.6	22.4	4864	78.9	21.1
Austria	159	69.7	30.3	154	69.4	30.6
Denmark	111	67.4	32.6	99	66.2	33.8
France	531	79.4	20.6	525	81.7	18.3
Germany	1044	87.2	12.8	911	78.8	21.2
Ireland	146	67.8	32.2	118	50.3	49.7
Italy	428	80.8	19.2	417	80.7	19.3
Netherlands	374	80.5	19.5	344	79.0	21.0
Norway	109	76.2	23.8	73	67.3	32.7
Switzerland	175	79.0	21.0	144	85.3	14.7
UK	521	67.0	33.0	591	77.0	23.0
Japan	634	85.0	15.0	541	75.2	24.8
Korea	298	86.6	13.4	269	81.6	18.4

출처: WTO

- 한국의 총수출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13.4%로 전세계 평균인 19.1%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유럽 국가의 경우 22.4%에 달한다.

II. 서비스 산업과 경제성장

왜 서비스 산업의 개방이 중요한가?

1. 서비스부문 자체의 성장

- ☐ 서비스 부문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의 창출 및 고용창출**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 서비스 산업은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가 제조업보다 크다.
- 생산유발효과는 해당 산업의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할 때 유발되는 직·간접 생산파급효과를 나타낸다.
- 제조업 중 생산유발효과가 가장 큰 산업은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으로 평균 생산유발계수가 0.17에 달한다. 서비스 산업에서는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의 생산유발계수가 가장 큰데 0.164로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

<표 4> 산업별 생산유발 및 고용유발계수(한국)

code	산업	평균 생산유발계수	평균 고용유발계수
0001	농림수산물	0.046	0.196
0002	광산물	0.003	0.021
0003	음식료품	0.070	0.248
0004	섬유 및 가죽제품	0.056	0.530
0005	목재 및 종이제품	0.020	0.110
0006	인쇄, 출판 및 복제	0.012	0.129
0007	석유 및 석탄제품	0.063	0.021
0008	화학제품	0.106	0.369
0009	비금속광물제품	0.020	0.120
0010	제1차 금속제품	0.069	0.128
0011	금속제품	0.025	0.223
0012	일반기계	0.051	0.339
0013	전기 및 전자기기	0.170	0.646
0014	정밀기기	0.008	0.069
0015	수송장비	0.089	0.364
0016	가구 및 기타제조업제품	0.012	0.124
0017	전력, 가스 및 수도	0.038	0.086
0018	건설	0.118	1.413
0019	도소매	0.083	1.394
0020	음식점 및 숙박	0.049	0.709
0021	운수 및 보관	0.061	0.673
0022	통신 및 방송	0.040	0.147
0023	금융 및 보험	0.076	0.827
002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0.164	0.807
0025	공공행정 및 국방	0.052	0.804
0026	교육 및 보건	0.087	1.659
0027	사회 및 기타서비스	0.036	0.560
0028	기타	0.036	0.000

주) 투입-산출표(2000)를 기준으로 작성

- 건설의 생산유발계수가 0.118, 운수 및 보관 0.061, 금융 및 보험 0.076 등이며, 제조업은 화학제품의 생산유발계수는 0.106, 1차금속 0.069 등으로 나타났다. 즉, 평균적으로 볼 때 제조업의 생산유발계수에 비해 **서비스의 생산유발계수가 약간 높다.**
-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은 생산유발효과뿐만 아니라 고용유발효과에서 보다 명확히 나타난다.
- 제조업에서 고용유발계수가 큰 산업은 전기 및 전자기기, 섬유 및 가죽제품으로 각각 0.646 및 0.530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반해 서비스는 건설의 고용유발계수가 1.413, 도소매 1.394, 교육 및 보건 1.659 등 서비스 산업의 고용유발계수가 훨씬 더 크다.
- 따라서 서비스 산업의 생산 증가는 여타 산업의 생산과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한다.

2. 중간재로서의 서비스

- 서비스 산업은 또한 **중간재**로서의 성격이 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비스 부문의 경쟁을 제한하는 정책으로 서비스 부문의 효율성이 떨어지면 **경제 전체의 비효율성**으로 연결된다(Francois 1990, Hoekman and Braga 1997).
- 즉, 최종적으로 소비되는 서비스도 있지만, 금융, 통신, 운송 등 많은 서비스는 제조업 및 농업의 생산을 위해 중간재로 사용된다.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 부문이 비효율적이면 제조업 및 농업이 큰 비용을 치러야 한다.
- 예를 들면 운송수단 및 통신 인프라가 부족할 경우, 농업 및 제조업이 매우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더라도 서비스의 비효율성으로 농업 및 제조업의 경쟁력이 낮아지게 된다.

- 미국 국적이 아닌 외국 국적의 선박은 미국 국내 해운운송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Jones Act가 대표적인 예인데, Jones Act는 제품의 미국 국내 가격이 세계시장에서의 가격에 비해 최소 100% (USITC, 1991), 최대 300%까지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White, 1988). 또한 Francois(1996)은 Jones Act로 인해 연간 30억 달러 상당의 후생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 World Bank(1993)는 멕시코와 칠레에서 운송서비스의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철폐할 경우 운송비용을 50%까지 낮출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Mattoo et al.(2001)은 금융 서비스, 통신 및 운송서비스의 무역장벽 제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했는데, 서비스 무역장벽은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효율적인 금융 서비스는 저축을 투자로 효과적으로 전환시키고 높은 수익률을 추구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증진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통신의 경우 중간재이며 지식 전파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Collier and Gunning(1999)는 아프리카 국가에서 사업 서비스(회계, 법률 서비스 등)의 미발달로 인한 높은 거래비용이 경제성장의 주된 저해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 Kim and Kim(2000)은 1970-1997년 한국 서비스와 제조업의 생산성 변화를 분석하면서, 서비스 자유화가 생산성 향상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서비스 개방이 이루어진 시점이 얼마 지나지 않은 관계로 명확한 결론은 내리지 않고 있지만 유통서비스에서의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서비스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은 국가 경제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서비스 부문의 무역자유화는 일반균형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 비교우위를 지닌 제조업에 대해 무역자유화를 단행한다 하더라도 서비스 부문이 비효율적이면 제조업의 생산원가가 높아지게 되어 무역자유화의 이익을 충분히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 따라서 서비스의 개방은 단순히 서비스 부문의 효율성 향상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타 제조업을 비롯한 경제 전체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3. 서비스 무역과 경제성장

- 무역과 경제성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수많은 연구가 존재한다. 그러나 현존하는 대부분의 연구는 서비스와 제조업의 무역을 총괄하는 총무역(total trade) 또는 제조업의 무역과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연구하고 있다.
- Krueger(1978), Sachs and Warner(1995)는 경제의 개방과 GDP 성장은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나아가 Lee(1995)는 국제무역을 통한 수입 자본재의 사용이 자본축적의 효율성과 경제성장률을 높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 제조업의 무역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듯이 서비스 무역도 경제성장에 결정적 역할을 담당한다.
- 세계 100여개국 1990-1999년(선진국은 1985-1999) 서비스 무역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dynamic panel approach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선진국의 경우 서비스 수입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발견하였다.
- 그러나 개도국의 경우 서비스 수입은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서비스 무역과 기술전파

- 개도국 국내생산성 증가(domestic productivity growth)의 90% 이상이 외국 기술에 그 원천을 찾을 수 있다(Keller 2004).
- 제조업의 경우 무역을 통해 기술전파가 이루어지듯이 서비스 무역도 기술전파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금융 및 사업서비스는 지식집약적이고 선진기술을 내포하고 있다. 중간재로 사용되는 서비스 부문의 기술전파로 인해 생산성이 향상되면 전체 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귀결된다.
- 서비스는 제조업과는 달리 무정형성(intangibility), 생산자와 소비자의 밀접성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어서 제조업에 비해 보다 긴밀하고 직접적인 기술전파를 기대할 수 있다.
- mode 1(기술의 직접 거래), mode 2(체화된 서비스의 사용과 demonstration effects), mode 3(forward and backward linkages), mode 4(지식공유 및 on the job training) 각 공급형태별 기술전파의 통로가 존재한다.

III. 한국과 EU 서비스 산업의 노동생산성과 무역장벽

- ☐ 한국의 서비스 산업의 효율성을 파악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 주요국 서비스 부문별 노동생산성을 비교하였다.
- 서비스 부문의 자료 제약으로 총요소 생산성, 자본생산성의 분석은 제외한다.
- 한국은 전기·가스·수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 부문에서 EU 국가에

비해 생산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소매/음식숙박업, 금융·보험 서비스의 생산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 주요국의 서비스 부문별 노동생산성 비교

(2000년 부가가치 기준)

(단위: 한국=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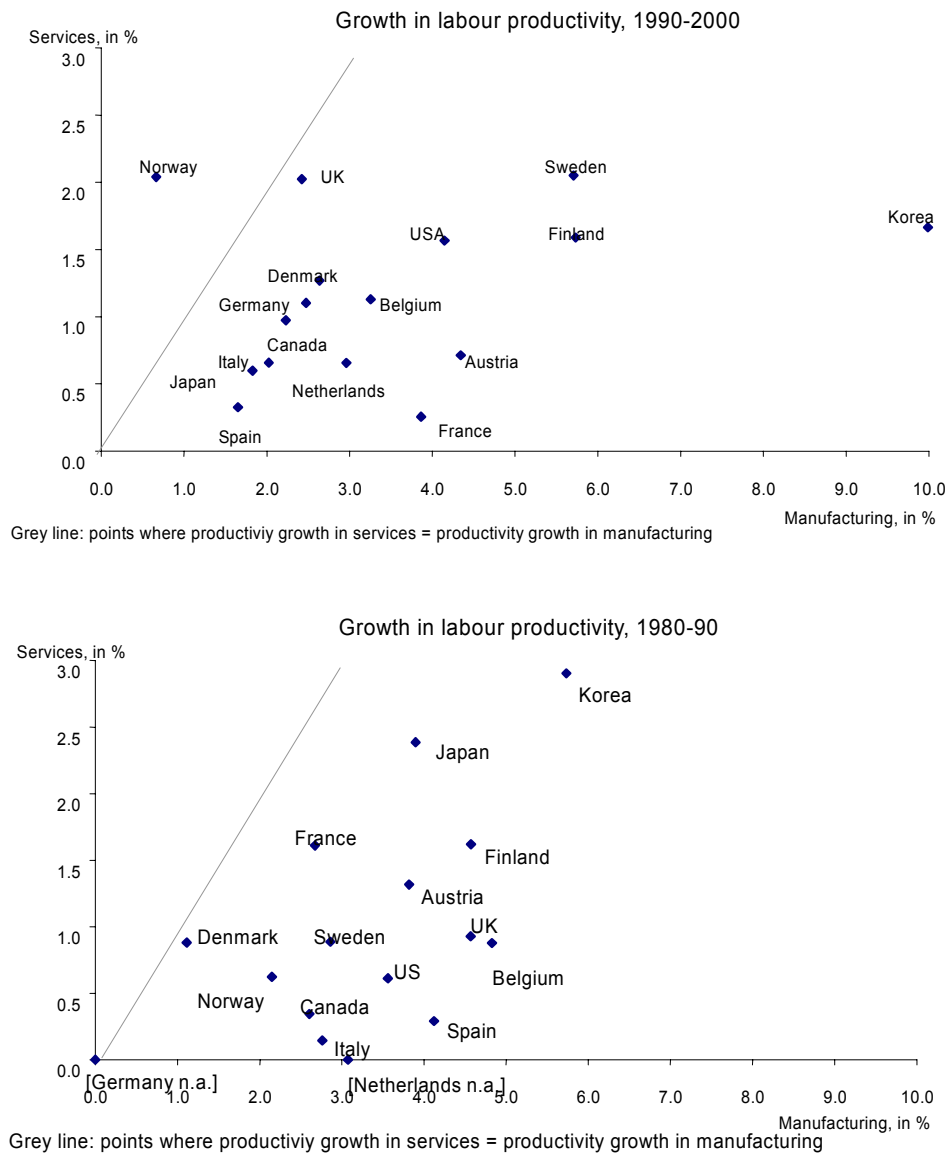
	전기·가스·수도	건설업	도소매, 음식숙박업	운수·창고, 통신업	금융·보험, 부동산업	기타 서비스업
한국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미국	89.1	147.9	371.3	186.5	176.9	167.3
EU 13국 평균	59.8	118.2	274.3	143.2	142.0	146.9
오스트리아	53.7	169.3	272.6	127.5	162.4	175.9
벨기에	96.6	175.5	332.6	139.5	189.5	170.6
덴마크	54.3	117.2	258.6	132.1	150.8	139.7
핀란드	47.9	104.0	256.9	148.6	154.8	135.2
프랑스	66.0	100.0	300.3	152.8	159.2	155.1
독일	44.3	124.6	195.0	138.9	165.3	156.1
그리스	31.4	125.2	271.7	114.1	172.2	132.1
이탈리아	64.3	135.2	318.7	181.5	171.0	153.2
룩셈부르크	47.3	156.2	366.7	199.4	173.5	232.6
네덜란드	66.2	106.2	272.2	163.6	98.8	135.4
폴란드	14.9	69.0	213.3	58.4	37.6	70.0
포르투갈	85.4	60.0	211.8	149.8	60.9	114.7
스페인	104.8	94.7	295.4	154.9	150.6	139.0

자료: OECD(2002) 및 한국생산성본부(2003)

□ 이러한 서비스 산업의 낮은 생산성은 그 동안 제조업 일변도의 성장에서 원인의 일단을 찾을 수 있다.

- <그림 1>은 OECD STAN Database를 이용하여 OECD 국가를 대상으로 80년대 및 90년대 제조업과 서비스의 노동생산성 증가를 비교하고 있다.

<그림 1> OECD 국가의 제조업과 서비스의 노동생산성 증가



서비스 부문은 ISIC code 50-99

출처 : OECD STAN Database 2002.

1) 대부분의 OECD 국가(노르웨이, 영국, 미국, 이태리, 캐나다 등)에서는 1980년대에 비해 1990년대에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이 제조업 부문에 비해 약간 더 크게 증가하였다.

2) 1990-2000년 한국의 경우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성장률이 서비스 부문의 노동생산성에 비해 훨씬 높은데, 여타 OECD 국가의 일반적 경향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한국 서비스 산업의 낮은 생산성 및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성 향상은 서비스 산업의 개방 정도와 관련성이 높을 개연성이 있다.

<표 6> Hoekman의 서비스 무역장벽지수

	건설	유통	운송/통신	금융	기타
한국	16.0	21.4	184.9	36.3	40.7
EU	10.0	10.0	182.0	27.2	23.6

출처: Hoekman(1995)

- <표 6>은 Hoekman(1995)이 각 국가가 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에 제출한 양허안을 바탕으로 각 국가의 무역장벽을 추정 한 결과를 요약하고 있다.

- 운송/통신의 경우 한국과 EU는 비슷한 수준의 무역장벽을 나타내고 있으나, 그 외 서비스 부문에서는 한국의 무역장벽 수준이 높다.

- WTO 서비스 양허표를 이용하여 서비스 개방 정도를 분석하면 특히 상업적 주재(mode 3)에 있어서 한국의 개방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서비스 분야별 상업적 주재(mode 3) 개방 수준

	업종수	한국	EU
서비스 전체	154	0.442	0.513
사업서비스	46	0.652	0.641
통신서비스	24	0.583	0.375
건설서비스	5	0.500	0.500
유통서비스	5	0.600	0.700
교육서비스	5	0.000	0.800
환경서비스	4	0.500	1.000
금융서비스	17	0.353	0.500
보건 및 사회서비스	4	0.000	0.375
관광서비스	4	0.750	0.625
문화서비스	5	0.000	0.500
운송서비스	35	0.214	0.329

자료: WTO(1999) 서비스 양허표를 활용하여 추계.

- 앞선 선행연구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현재 한국 서비스 산업의 낮은 생산성은 높은 무역장벽으로 인해 외국 서비스 공급의 제한되었던데 그 원인이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IV. 한-EU FTA가 서비스 산업에 미치는 영향

- 한-EU FTA가 서비스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CGE 모형을 이용한 분석의 결과에 기초하여 2000년 산업연관표 및 고용표를 이용하여 서비스산업 부문별로 한·EU FTA가 서비스산업의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적용하여 생산 및 고용 파급효과를 추계한다.²⁾

- <표 8>은 한-EU FTA 시나리오별 서비스 산업의 생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2) 한-EU FTA가 서비스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정책적 대응 방안」(김홍중 외 2005)에 따라 작성되었다.

<표 8> 한·EU FTA에 따른 서비스산업의 생산효과 (정태모형)

(단위: 조원, %)

	FTA 체결전	FTA 체결 후 (정태모형)			
		시나리오 I		시나리오 II	
		총산출	증감액	총산출	증감액
서비스합계	674.7	680.3	5.7(0.8)	691.7	17.1(2.5)
전력가스수도	31.5	31.7	0.2(0.8)	32.2	0.7(2.1)
건설	99.3	100.9	1.6(1.6)	103.1	3.8(3.8)
도소매	69.8	70.4	0.6(0.8)	71.1	1.2(1.7)
음식점 및 숙박	41.1	41.5	0.3(0.8)	42.0	0.9(2.1)
운수 및 보관	51.2	51.3	0.1(0.2)	53.3	2.2(4.2)
통신 및 방송	33.9	34.0	0.1(0.2)	35.3	1.4(4.2)
금융 및 보험	63.4	63.9	0.5(0.7)	64.3	0.9(1.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137.4	138.5	1.1(0.8)	140.3	2.9(2.1)
교육 및 보건	72.8	73.4	0.6(0.8)	74.4	1.5(2.1)
공공행정국방	43.6	43.9	0.3(0.8)	44.5	0.9(2.1)
사회 및 기타서비스	30.6	30.8	0.2(0.8)	31.2	0.6(2.1)

주: 1) 시나리오 I은 서비스시장 개방을 제외한 경우, 시나리오 II는 농업 및 공산품의 관세 철폐와 함께 서비스분야 교역장벽의 50%를 완화하는 경우이다.

2) 서비스 전체에는 전기가스수도, 건설 포함.

3) 괄호 안은 증가율을 나타냄.

자료: CGE 분석결과 및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추계한 값임.

- 한-EU FTA에서 서비스시장의 개방을 제외한 시나리오 I에서도 농업 및 제조업 분야의 생산변화에 서비스분야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어 서비스업의 총산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비스 교역장벽이 50% 감축되는 시나리오 II의 경우 통신 및 방송과 운수 및 보관의 총산출 증가가 가장 크고 건설 분야 또한 여타 분야에 비해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 <표 9>는 자본축적 CGE 모형으로 시나리오 I과 시나리오 II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산업의 생산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9> 한·EU FTA에 따른 서비스산업의 생산효과 (자본축적모형)

(단위: 조원, %)

	FTA 체결전	FTA 체결 후 (자본축적모형)			
		시나리오I		시나리오II	
		총산출	증감액	총산출	증감액
서비스합계	674.7	682.9	8.3(1.2)	698.0	23.3(3.5)
전력가스수도	31.5	31.9	0.4(1.2)	32.5	1.0(3.1)
건설	99.3	101.1	1.8(1.9)	103.6	4.3(4.4)
도소매	69.8	70.7	0.9(1.3)	71.8	1.9(2.7)
음식점 및 숙박	41.1	41.6	0.5(1.2)	42.4	1.3(3.1)
운수 및 보관	51.2	51.4	0.3(0.5)	53.8	2.6(5.1)
통신 및 방송	33.9	34.1	0.2(0.5)	35.6	1.7(5.1)
금융 및 보험	63.4	64.2	0.7(1.2)	65.0	1.6(2.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137.4	139.1	1.7(1.2)	141.7	4.3(3.1)
교육 및 보건	72.8	73.7	0.9(1.2)	75.1	2.3(3.1)
공공행정국방	43.6	44.1	0.5(1.2)	45.0	1.4(3.1)
사회 및 기타서비스	30.6	31.0	0.4(1.2)	31.5	1.0(3.1)

- 자본축적모형에서는 대부분의 서비스 분야에서 총 산출이 3~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그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러한 분석은 제한된 가정을 기초로 하고 있다. CGE 모형에서 분류한 서비스 산업과 본 분석에서 적용한 산업분류가 상이한데, 여기서는 CGE 모형에서 사용한 산업분류를 확대 적용하였다. 따라서 정확한 산업별 효과로 보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 또한 CGE 모형 자체의 한계점도 고려해야 하며, 보다 엄밀한 검토를 위해서는 부분균형분석 등 다양한 분석이 필요한데, 이는 향후 과제로 남겨둔다.

한-EU FTA의 수산부문 영향과 고려사항

강릉대학교
김남두 교수

I. EU의 수산업과 수산물 무역

1. EU 수산업의 국제위상

- EU의 수산물 생산은 중국과 페루에 이은 세계 3위로서 세계생산량의 약 6% 수준임. 국별로는 어획생산량을 기준으로 할 때 덴마크(16위) 스페인(24위) 영국(27위) 순이지만, 인접한 노르웨이(10위) 아이슬란드(11위)에는 못 미침. EU의 어종별 어획량은 청어, Sandeel, 고등어, Sprat, 전갱이(horse mackerel), 대서양 연어 등의 순임.
- 소비 측면에서, EU는 중국 다음의 세계 2대 수산물 소비시장임. 특히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등 남부국가들을 중심으로 수산물 소비가 높으며, EU전체로는 일인당 연 24.2Kg으로 세계평균은 물론 선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임. 일본 한국 중국 등 동북아 국가보다는 낮음.
- 무역 측면에서, EU는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의 수산물을 수입하는 바, 이는 최대 수입국가인 일본의 연간 수산물 수입규모의 약 1.5배 수준임. EU수산물 수입은 2000-2002년 연평균 202.2억 달러였으며, 수산물 수출은 109.9억 달러에 달하여 연간 약 100억 달러의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함.
- 세계 수산물 무역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은 22% 그리고 수입은 34%를 점함.

<표 1> 주요국의 수산물 생산-소비-무역 (1999-2001년 연평균)

국가	생산 (비중)		수입	수출	식량소비	인구	일인당소비
	천 톤	%	천 톤	천 톤	천 톤	백만 명	Kg/년
EU-15	7,439	5.7	9,678	6,207	9,122	377.5	24.2
덴마크	1,526	1.2	838	1,064	120	5.3	22.6
스페인	1,415	1.1	1,639	1,012	1,789	40.7	43.9
영국	943	0.7	1,013	760	1,191	58.9	20.2
프랑스	867	0.7	1,548	517	1,761	59.3	29.7
이탈리아	511	0.4	1,022	186	1,332	57.5	23.1
독일	285	0.2	1,248	547	1,004	82.3	12.2

중국	41,392	32.0	1,293	2,678	31,816	1,252.9	25.4
페루	9,033	7.0	35	247	522	26.0	20.1
일본	5,736	4.4	4,348	291	8,395	127.0	66.1
미국	5,269	4.1	3,218	1,394	6,069	285.0	21.3
한국	2,274	1.8	968	573	2,453	46.8	52.4
선진국	31,963	24.7	21,028	14,954	30,208	1,316.4	22.9
체제전환국	5,213	4.0	1,991	2,090	4,566	410.6	11.1
개도국	97,245	75.1	7,800	67,603	67,603	4,754.0	14.2
세계	129,411	100.0	28,828	28,070	97,811	6,070.5	16.1

자료: FAO(2004), *Yearbook of Fishery Statistics: Summary Table 2002*.

<표 2> 주요국의 수산물 생산과 무역(2002)

순위	어획어업		수산양식		수출		수입	
	국명	천 톤	국명	천 톤	국명	백만달러	국명	백만달러
1	중국	16,553	중국	27,767	중국	4,485	일본	13,646
2	페루	8,767	인도	2,192	태국	3,676	미국	10,065
3	미국	4,937	인도네시아	914	노르웨이	3,569	스페인	3,853
4	인도네시아	4,504	일본	828	미국	3,260	프랑스	3,207
5	일본	4,443	방글라데시	787	캐나다	3,035	이탈리아	2,906
	16. 덴마크	1,442	15. 스페인	264	6. 덴마크	2,872	6. 독일	2,420
	24. 스페인	883	16. 프랑스	250	8. 스페인	1,890	7. 영국	2,328
	27. 영국	690	18. 이탈리아	184	10. 네덜란드	1,803	10. 덴마크	1,806
	29. 프랑스	620	19. 영국	179	16. 영국	1,353	13. 네덜란드	1,333
	13. 한국	1,689	14. 한국	297	20. 한국	1,046	9. 한국	1,861
	세계	93,191	세계	39,799	세계	58,211	세계	61,446

자료: FAO(2004)

<표 3> EU의 주요 어종별 생산량

단위: 톤

어종	2000년	2001년
청어	748,816	750,194
Sandeels	591,230	695,698
고등어	3,555,657	482,660
Sprat	394,966	363,285
전갱이	251,261	249,764
대서양 연어	325,461	248,765
청대구(blue whiting)	182,256	222,955
대구	179,535	167,903
유럽 가자미	100,187	100,263
서대(Saithe)	65,262	72,376
해덕(Haddock)	75,922	72,194
노르웨이 바다가재	49,546	47,873

자료: OECD(2004), *Review of Fisheries in OECD Countries*.

2. EU 수산물 무역의 지역구조

- EU의 수산물 수출은 80% 이상이 EU역내로 향하였으며, EU역외 지역 중에서도 인접한 기타유럽에 대한 수출 비중이 5.5%를 차지함.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수출의 비중은 2.8%였음.
- EU의 수산물 수입에서 EU역내 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1%수준이었으며, 역외 수산물 중에서는 기타 유럽국가 수산물의 비중이 16.8%, 남미 8.4%, 중국을 포함하는 동아시아의 비중이 7.2%였음.

<표 4> EU 수산물 무역의 지역별 구조 (2000-2002년 연평균)

지역	수출 (fob 가격)		수입 (cif 가격)	
	금액(백만 달러)	비중(%)	금액(백만 달러)	비중(%)
EU역내 국가	8,801	80.1	8,346	41.3
기타 서유럽	336	3.1	3,181	15.7
동유럽	259	2.4	230	1.1
북서아프리카	57	0.5	661	3.3
서아프리카	185	1.7	631	3.1

북미	179	1.6	860	4.3
남미	42	0.4	1,693	8.4
남아시아	5	0.0	510	2.5
동아시아(중국제외)	104	0.9	999	4.9
중국	210	1.9	468	2.3
EU계	10,985	100.0	20,221	100.0
(참고) 세계	48,935	-	59,468	-

자료: FAO(2004)

3. EU 수산물 무역의 국가구조

- 2005년 기준으로 EU 수산물의 수출대상국을 수산물 종류별로 나누어 보면, 어류(HS 03)의 경우는 일본, 스위스, 중국, 러시아가 주요 대상국이었으며, 해초류(HS 121220)의 경우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미국이었고, 가공어류(HS 1604)는 스위스, 미국, 러시아, 그리고 가공 갑각류와 연체동물(HS 1605)은 미국과 한국 등이 주요 대상국임.
- 2005년 기준으로 수산물 수입의 EU역외 대상국을 보면, 어류의 경우는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중국, 미국 등이며, 해초류의 경우는 칠레 인도네시아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대종을 차지하며, 가공 어류는 에콰도르와 모로코가 그리고 가공 갑각류와 연체동물은 아이슬란드와 캐나다가 주요 수입 대상국임.

<표 5> EU 수산물 수출의 대상국 구조(2005)

단위: 백만 유로

HS 03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HS 121220 (해초류)		HS 1604 (가공어류)		HS 1605 (가공갑각류 연체동물)	
계	7,047	계	21	계	1,187	계	413
9 일본	265	1 남아공화국	3	7 스위스	46	8 미국	15
10 스위스	198	3 미국	2	8 미국	41	9 한국	12
11 중국	193	12 스위스	1	9 러시아	39	10 노르웨이	11
39 한국	18	16 한국	1	57 한국	1	11 스위스	10

자료: kotis, EU무역통계

<표 6> EU 수산물 수입의 대상국 구조(2005)

단위: 백만 유로

HS 03			HS 121220			HS 1604			HS 1605		
계		16,600	계		52	계		2,629	계		1,098
1	노르웨이	2,174	1	칠레	6	1	에콰도르	205	2	그린란드	101
3	아이슬란드	865	2	인도네시아	5	2	모로코	193	3	아이슬란드	87
5	중국	772	3	중국	5	4	태국	185	4	캐나다	86
8	미국	570	4	필리핀	5	6	웨이셀	148	6	노르웨이	67
9	모로코	424	5	일본	4	9	아이보리 코우스트	83	7	칠레	60
52	한국	48	16	한국	1	36	한국	11	28	한국	5

자료: kotis, EU무역통계

4. EU의 수산물 무역의 품목 구조

- 2005년 EU의 주요 수출품목은 냉동 피레트, 기타 신선냉장 어류, 냉동 새우 등으로서 각각 5억 유로를 상회하며, 그밖에 신선 연어, 조제 다랑어, 냉동 고등어 등 12개 품목이 2억 유로를 상회함. HS6자리 기준 상위 20대 수출품목의 수출액이 55억 유로로서 전체 수산물 수출액의 63%를 점함.

<표 7> EU 수출상위20대 수산품목(2005)

단위: 백만 유로, %

HS	품목명	수출액	비중
30420	냉동 피레트	736,815	8.47
30269	기타 어류 (간장과 어란 제외, 신선, 냉장)	580,618	6.67
30613	새우와 보리새우 (냉동)	539,270	6.20
30410	신선 또는 냉장한 피레트	481,359	5.53
30212	태평양연어, 대서양연어, 다뉴브연어(신선, 냉장)	462,766	5.32
30379	기타 냉동 어류 (간장과 어란 제외)	296,059	3.40
160414	다랑어·가다랑어 및 버니토우(사르다종)	288,116	3.31
160419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어류	249,936	2.87
160520	새우, 보리새우 (조제 또는 저장처리)	226,210	2.60
160420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222,019	2.55
30541	태평양연어, 대서양연어, 다뉴브연어(훈제)	215,429	2.48
30374	냉동고등어 (간장과 어란제외)	207,607	2.39
160590	조제 또는 저장처리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138,065	1.59
30350	냉동청어 (간장과 어란제외)	137,209	1.58
30749	갑오징어, 오징어 (냉동, 건조, 염장, 염수장)	136,555	1.57

160413	정어리등 (조제 또는 저장처리)	133,126	1.53
30551	건조대구 (훈제 제외)	126,816	1.46
30490	기타 어육 (냉동)	115,784	1.33
160412	청어 (조제 또는 저장처리)	110,555	1.27
30562	대구 (염장, 염수장)	110,230	1.27
소계		5,514,544	63.40
계		8,698,401	100.00

자료: kotis, EU무역통계

- 2005년 EU의 수입품목 중에는 냉동 피레트, 냉동 새우, 신선냉장 연어 등으로서 10억 유로를 상회하는 품목이 6개이며, 상위 20대 수산물 수입 품목의 수입액이 모두 2억 유로를 상회함. HS6자리 기준 상위 20대 수출품목의 수입액이 156억 유로로서 전체 수산물 수입액의 약 77%를 점함.

<표 8> EU수입 상위 20대 수산물품목(2005) 단위 : 백만 유로, %

HS	품목명	수입액	비중
30420	냉동 피레트	3,047,673	14.95
30613	새우와 보리새우 (냉동)	2,314,807	11.36
30212	태평양연어, 대서양연어, 다뉴브연어(신선, 냉장)	1,607,409	7.89
160414	다랑어, 가다랑어 및 버니투우(사르다종)	1,362,691	6.69
30410	신선 냉장 피레트	1,061,063	5.21
30269	기타 어류 (간장과 어란 제외, 신선, 냉장)	1,036,918	5.09
30749	갑오징어, 오징어 (냉동, 건조, 염장, 염수장)	780,866	3.83
160520	새우, 보리새우 (조제 또는 저장처리)	716,170	3.51
30379	기타 냉동한 어류 (간장과 어란 제외)	454,919	2.23
30562	대구 (염장, 염수장)	438,749	2.15
30759	문어 (냉동, 건조, 염장, 염수장)	387,946	1.90
160420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 어류	318,239	1.56
30490	기타 어육 (냉동)	312,256	1.53
30799	기타 연체동물, 수생무척추동물(냉동, 건조, 염장, 염수장)	303,893	1.49
30551	건조대구 (훈제 제외)	301,543	1.48
160419	조제 또는 저장처리 기타 어류	247,058	1.21
30729	가리비과의조개 (냉동, 건조, 염장, 염수장)	244,319	1.20
30360	냉동대구 (간장과 어란 제외)	230,593	1.13
30250	대구 (신선, 냉장한것, 간장과 어란 제외)	226,108	1.11
160590	조제 저장처리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214,508	1.05
소계		15,607,728	76.59
계		20,379,363	100.00

자료: kotis, EU무역통계

II. 한국-EU 수산물 교역현황

1. 한국의 수산물 무역의 위상

- 우리나라 수산물 소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생산은 감소 혹은 부진 상태에 있어, 수입은 증가하고 수출은 감소함. 수산물 무역수지는 2001년 적자로 돌아선 이래 적자규모가 증가하여 2005년에는 약 12억 달러에 달함.
- 전체 수출에서 수산물(MTI 04)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에는 1%를 넘었으나 2006년 들어 0.3%대로 크게 하락하였으며, 반면 수입은 1990년 0.5%에서 2000년대에는 1% 수준으로 상승하였음.

<표 9> 한국의 수산물 무역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연도	수출액	(비중)	수입액	(비중)	무역수지
1990	1,515	2.3	370	0.5	1,146
1995	1,723	1.4	845	0.6	878
2000	1,505	0.9	1,411	0.9	94
2001	1,274	0.9	1,648	1.2	-374
2002	1,160	0.7	1,881	1.2	-721
2003	1,129	0.6	1,961	1.1	-832
2004	1,279	0.5	2,261	1.0	-982
2005	1,193	0.4	2,382	0.9	-1,189
2006 (1-4)	324	0.3	867	0.9	-542

주 : 비중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과 수입에서 수산물 수출과 수입이 각각 점하는 비중(%)임.

자료 : kotis 한국무역통계

2. 한국-EU 수산물 무역의 규모

- 우리의 대EU 수산물 수출은 2005년 중 5,825만 달러(전년비 13% 감소)로서 우리나라 수산물 총 수출액의 4.8%를 차지함. EU회원국 중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 대한 수출이 많았으며, 양국에의 수출이 대EU 수산물 수출의

3분의 2를 점함. 여타 EU회원국에 대한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은 미미함.

- 2005년 중 우리의 대EU 수산물 수입은 약 8,500만 달러(전년 대비 13% 증가)였으며, 우리나라 수산물 총수입액의 3.6%에 해당함. EU회원국 중에서는 영국과 아일랜드로부터의 수입이 절 반 이상을 차지함.
- 따라서 우리나라는 EU와의 수산물무역에서 적자를 보이고 있는데, 적자규모는 2004년의 740만 달러에서 2005년에는 약 2,660만 달러로 증가하였음. EU측 통계에 의하면 2005년 중 EU의 대한민국 수산물 수출금액은 3,165만 유로, 대한민국 수입금액은 6,451만 유로로 집계되고 있어, EU가 한국에 대하여 수산부문에서 무역적자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표 9> 한국의 수산물 무역상대국 (2005)

단위: 천 달러

수 출				수 입			
순위	총수출액	1,193,117	비중(%)	순위	총수입액	2,382,368	비중(%)
1	일본	741,062	62.11	1	중국	936,316	39.30
2	중국	108,031	9.05	2	러시아 연방	277,216	11.64
3	미국	88,174	7.39	3	일본	173,140	7.27
	EU	58,246	4.88		EU	84,805	3.56
6	스페인	31,519	2.64	11	영국	30,182	1.27
8	이탈리아	11,253	0.94	19	아일랜드	13,374	0.56
16	프랑스	3,254	0.27	22	스페인	9,930	0.42
19	벨기에	2,338	0.20	25	프랑스	8,903	0.37
20	영국	2,039	0.17	27	덴마크	8,453	0.35
23	독일	1,469	0.12	33	이탈리아	5,011	0.21
24	네덜란드	1,404	0.12	36	네덜란드	4,592	0.19

자료: kotis 한국무역통계

3. 한국-EU 수산물 무역의 품목구조

- EU로 수출되는 한국산 수산물은 주로 일부 냉동 어류 혹은 건조 어류,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갑각류 및 연체동물이 대중을 이룸. 오징어, 황다랭이, 게와 굴 등 연체동물이 대상 어종임.

- 우리 수산물의 EU내 최대수출대상국인 스페인의 경우, 기타 냉동 어류와 건조 오징어,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된 어류, 냉동 황다랭이 등이 주로 수출되고 있으며, 이탈리아에는 오징어와 기타 조제 저장처리된 어류가 주로 수출됨.

<표 10> 한국의 대EU 주요 수산 수출품목(2005) 단위: 천 달러

국명	HS	품목명	수출금액
스페인	30379	기타 냉동한 어류 (간장과 어란 제외)	11,550
	30749	갑오징어, 오징어 (냉동, 건조 등)	8,010
	160420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 어류	4,622
	30342	냉동 황다랭이 (간장과 어란 제외)	2,678
	160590	조제 또는 저장처리 연체동물	2,244
	30321	냉동송어 (간장과 어란 제외)	529
	30339	기타 넙치류 (냉동)	521
	30799	기타 연체동물, 수생무척추동물	430
	30333	냉동서대 (간장과 어란 제외)	268
	30613	새우와 보리새우 (냉동)	184
이탈리아	30749	갑오징어, 오징어 (냉동, 건조 등)	6,932
	160420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 어류	3,427
	30342	냉동 황다랭이 (간장과 어란 제외)	388
	30379	기타 냉동한 어류 (간장과 어란 제외)	306
프랑스	160510	게 (조제 또는 저장처리)	1,355
	30614	게 (냉동)	264
	160420	기타 조제 저장처리 어류	243
	30342	냉동 황다랭이(간장과 어란 제외)	219
벨기에	160420	기타 조제 저장처리 어류	1,560
	160510	게(조제 저장처리)	491
	30710	굴 (냉동)	204
영국	30710	굴 (냉동)	691
	160590	조제 저장처리 연체동물	454
	30349	기타 다랭이(간장과 어란 제외)	269
	160420	기타 조제 저장처리 어류	225
네덜란드	30749	갑오징어, 오징어 (냉동, 건조 등)	363
	30110	관상용 활어	139
	121220	해초류와 기타 조류	133

자료: kotis 한국무역통계

- EU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수산물목으로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된 연체동물, 냉동 고등어, 그리고 냉동 피레트가 주종을 이루고 있음.
- 주요 수입국인 영국과 아일랜드로부터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주종 품목은 조제 저장처리된 연체동물(콜뱅이)과 냉동 고등어임.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등으로부터 우리나라는 냉동 피레트와 냉동 넙치 등을 많이 수입함.

<표 11> 한국의 대EU 주요 수산 수입품목(2005) 단위: 천 달러

국명	HS	품목명	수입액
영국	160590	조제 또는 저장처리 연체동물	20,869
	030374	냉동 고등어 (간장과 어란 제외)	8,489
	030379	기타 냉동한 어류(간장과 어란 제외)	755
아일랜드	160590	조제 또는 저장처리 연체동물	12,304
	030374	냉동 고등어 (간장과 어란 제외)	676
	160430	캐비아, 어란으로 조제한 대용품	294
스페인	030420	냉동한 피레트	3,045
	030339	기타 넙치류 (냉동)	3,043
	030379	기타 냉동한 어류 (간장과 어란 제외)	1,476
	030345	참다랑어(터너스티너스)	1,467
	030333	냉동서대 (간장과 어란 제외)	225
프랑스	030192	뱀장어 (앵귤라종, 활어)	2,547
	160590	조제 또는 저장처리 연체동물	2,457
	030420	냉동 피레트	2,242
	030379	기타 냉동한 어류(간장과 어란 제외)	780
	030345	참다랑어(터너스티너스)	441
	030374	냉동고등어 (간장과 어란제외)	292
이탈리아	030420	냉동한 피레트	3,430
	030345	참다랑어(터너스티너스)	714
	030339	기타 넙치류 (냉동)	429
	030749	갑오징어, 오징어 (냉동, 건조 등)	229
네덜란드	030378	냉동 민대구 (간장과 어란제외)	1,263
	030379	기타 냉동 어류 (간장과 어란 제외)	1,241
	030374	냉동 고등어 (간장과 어란 제외)	1,179
	030339	기타 넙치류 (냉동)	570
	160430	캐비아, 어란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품	177

자료: kotis 한국무역통계

III. 한국과 EU의 수산물 관세율

1. EU의 수산물 무역장벽

- EC의 수산물 품목은 381개로서 기본적으로 cif조건 수입가격에 대한 종가
로 부과되는 관세율 체계를 가지며, 8개 품목그룹에 대해서는 관세쿼터
(tariff quota)가 적용되며, 5개 품목에 대해서는 계절관세가 적용되고 있음.
- EC 관세율에 대한 WTO(2004)의 분석에 의하면, EC의 수산물 단순평균
MFN 관세율은 12.6% 수준임. 이는 EC의 전체품목의 평균 6.5%보다는 2
배 정도 높은 수준이지만, 농산물 평균 16.5% 특히 산동물 및 동물제품
26.1% 및 낙농품 41.7%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음.
- 수산물 종류별로 관세율 구조를 보면, 가공 수산물을 나타내는 HS 1604와
HS 1605 품목의 관세율이 HS 03류의 품목보다 높음. 다만 HS 03류 품목
중에서 다랑어, 청어, 은빛 민대구 등 높은 관세율(20%, 22%)이 적용되는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일정량까지는 무관세 혹은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며
그 수준을 상회하는 수입에 대해서만 높은 관세가 적용됨. (관세할당제)
- HS 03류 중 청어 속에 속하는 어류(Herring, Brisling, Sprat)의 경우 2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기간에는 무세이며, 그 외 기간에만 MFN관세율이
적용됨. (계절관세제)

<표 12> EC의 부문별 MFN 관세율

단위: %

분야	품목수	단순평균관세율	범위	표준편차
전체	10,174	6.5	0-209.9	1.8
농산물	2,091	16.5	0-209.9	1.3
산동물과 동물 제품	332	26.1	0-192.2	1.1
낙농품	160	41.7	0.2-209.9	0.9
곡물	55	39.6	0-101.1	0.7
비농산물	8,042	4.1	0-26	1.0
수산물	381	12.6	0-26	0.5

자료: WTO, Trade Policy Review: European Communities, Report by the

Secretariat, June 2004.

<표 13> EC의 수산물 종류별 관세율 분포

HS	품목명	관세율 범위 (%)									
0301	활어	0	2	7.5	8	12	16				
0302	신선 냉장 어류	0	2	6	7.5	8	10	12	15	22	23
0303	냉동어류	0	2	6	7.5	8	9	12	15	22	
0304	어류의 피레트와 기타 어육	2	7.5	8	9	12	15	18			
0305	건조 염장 훈제 어류	10	11	12	13	14	15	16	20		
0306	갑각류	6	7.5	8	10	12	12.5	16	18		
0307	연체동물	0	6	8	9	10	11				
121220	해초류와 기타 조류	0									
1604	조제저장처리 어류와 캐비아	0	5.5	7	8	12	12.5	20	24	25	26
1605	조제저장처리 갑각류 연체동물	0	8					20			26

자료: 상동

<표 14> EC의 수산물수입에 대한 관세쿼터

CN	품목명	쿼터량 (톤)	관세율(%)	
03023110-03023990 03026921,25 03034111-03034980 03037921-03037931	참치 및 Eutynnus속 어류	17,250	0	22
03024000, 03035000 03041097,98; 03049022	청어	34,000	0	0-15 계절관세
03026968, 03037819	은빛 민대구	2,000	0	15
03032900	Coregonus속 어류	1,000	5.5	9
03042094	Allocyttus속 어류 및 Pseudocyttus maculatus종	200	0	15
03055110,90; 03056200 03055911,19; 03056910	대구 및 Boreogadus saida종	25,000	0	13
16052010,91,99	새우	500	0	20
16054000	민물가재	3,000	0	20

자료: 상동

<표 15> EC의 수산물수입에 대한 계절관세

CN	품목명	기간	관세율(%)
03024000 03035000 03041097 03049022	청어 청어의 아감딱지	2.15-6.15	0
		나머지 기간	15
03037180	Brisling 혹은 Sprats(Sprattus sprattus)	2.15-6.15	0
		나머지 기간	13

자료: 상동

2. 한국의 수산물 무역장벽

- 한국의 수산물 기본관세율의 평균은 17.6%임. 수산물 관세율은 3단계(5%, 10%, 20%)의 매우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 굴 치패 1개 품목을 제외하고는 10%와 20%의 2단계의 균등관세율이 적용되는 아주 단순한 구조임.
- HS 03류의 경우 수산물의 상태에 따라 활어 10%, 신선·냉장 어류 20%, 냉동 어류 10%, 건조 염장 염수장 훈제 어류 20%, 갑각류 20%, 연체동물 20% (단 오징어는 10%) 등으로 균등관세율 체계임.
- 해초류와 기타조류인 HS 121220의 경우, 냉동 50% 기타 20%로 양분되며 (단, 냉동 김은 10%), 가공수산물인 HS 16류의 경우 모두 20%임.
- 그러나 일부 수입급증 수산품목에 대해서는 24-63%의 높은 조정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관세법에서 규정한 범위내에서 행정부의 재량으로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탄력관세제도임.
- 수산물은 장기간의 저장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각국은 식품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하여, 통관과정에서의 위생 검역조치를 취하며 각종 검사, 인증, 표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표 16> 한국의 수산물 품목군별 기본관세율 구조

단위 : %

HS	관세율(%)
0301 (활어)	10
0302 (신선 냉장 어류)	20
0303 (냉동어류)	10
0304 (어류 피레트와 기타 어육)	20(신선 냉장) ; 10(냉동)
0305 (건조 염장 염수장 훈제 어류)	20
0306 (갑각류)	20 ; 14(기타 계)
0307 (연체동물)	20 ; 10(오징어류)
1212.20 (해초류)	20 ; 10(냉동)
1604 (조제 저장처리 어류)	20
1605 (조제 저장처리 갑각류와 연체동물)	20

<표 17> 한국의 수산물 조정관세 (2006)

HS	품목명 (규격)	기본세율(%)	조정관세 세율(%)
0301 (활어)	뱀장어(실장어 제외)	10	30
	돔	10	45
	농어	10	40
	민어(참조기, 부세 제외)	10	36
0303 (냉동어류)	명태	10	30
	꽁치(학꽁치 제외)	10	36
	홍어	10	27
	민어(참조기, 부세 제외)	10	63
0306 (갑각류)	새우젓(염장 또는 염수장)	20	50
0307 (연체동물)	오징어(냉동)(연육제외)	10	24

자료 : 재정경제부(2005), 「관세법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중 개정령」 (2006년도 조정관세 운용안)

IV. 한국-EU FTA의 영향과 대응과제

1. 양측 수산업의 평가

- EU는 소득수준이 높고 수산물 소비가 많은 지역이며 세계최대의 수입규모를 가지는 수산물 소비시장이지만, 현재까지 우리나라 수산물의 EU시장 수출은 활발하지 못하였음.
- 이는 EU에 인접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와 대서양에 연한 캐나다와 미국 등 수산강대국들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선호 어종과 수송거리에서 불리하며, 우리 수산업의 생산수출능력이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할 수 있음. 특히 EU가 선호하는 어류 즉 새우와 보리새우 연어 대구 등의 어종에서 우리나라는 경쟁력을 거의 갖지 못함.
- 우리의 대EU수출 수산품목에서 보듯이 오징어, 기타 냉동어류, 생선묵 등 조제 저장처리 어류, 게 등 조제 저장처리된 갑각류와 연체동물 등 일부 어종에서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등에 주로 수출되고 있음.
- 한국과 EU 공히 국내 수산업의 쇠퇴와 수산물 무역적자에 직면하여 높은 관세율을 통하여 국내수산업을 보호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양국은 수산물 시장의 급격한 개방을 추구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예상됨.

2. 일부 수산물의 대EU 수입 증대

- 대EU 주요 수입품목인 조제 저장처리한 골뱅이와 연체동물 냉동고등어의 경우, 20%와 10%인 관세가 철폐되면 수입품의 국내가격 하락이 전반적인 수요증대와 그에 따른 EU산 수산물의 수입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 한편 여타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영국과 아일랜드 등 EU국가로 수입선이 전환되는 효과를 통한 수입증대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음. 그러나 골뱅이의

경우 우리나라 수입의 95%가 EU로부터 수입되고 있어 수입선 전환 효과는 거의 기대하기 어려움. 냉동 고등어의 경우 우리나라는 이미 주요 수입 상대국인 노르웨이(EFTA)와 FTA협정을 체결한 바 있어 오히려 EFTA와의 FTA에 따른 영향을 상쇄시키는 효과를 가질 것임.

- 고등어의 수입증대는 한편으로 국내 고등어 선망어업과의 경쟁심화로 국내 산업을 압박하는 요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연근해 고등어의 과잉어획을 억제하여 자원보호 및 관리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가짐.
- 자유무역확대를 통한 수산물의 수입증대로부터 예상되는 긍정적 효과로는 양질의 안전한 수산식품의 공급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대라는 측면과, 일부품목의 경우 국내 수산자원의 보호에 기여하는 효과를 들 수 있음.

3. 대EU 수산물 수출증대 가능성

- 수산물에 대한 EU의 관세율이 높은 수준이어서 FTA이후 EU의 상당한 관세인하가 이루어져 우리 수산물의 수출확대 가능성도 고려할 수는 있으나, 우리 수산자원의 고갈과 생산요소가격 상승 및 국제적인 수산보조금 감축 압력 등을 감안할 때, 대부분 품목에서 우리 수산업의 생산능력과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단기간에 향상되기는 어려운 상황임.
- 다만 EU의 가공수산물(HS 1604, HS 1605) 45개 품목 중 32개 품목의 관세율이 20-26%로 매우 높아 FTA체결에 따른 관세 인하폭이 클 것이므로, 우리의 수산가공부문의 발전 여하에 따라서는 가공수산물의 EU시장 수출 증대는 기대해 볼 만함.

4. 대외협상에서의 대응

(1) 수산업의 민감성 반영

- WTO에서는 수산물을 공산품과 같이 비농산물로 취급하고 있으나, 수산업

은 농업과 같이 국민의 기초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하는 기능을 가지며, 어촌은 농촌과 함께 여러 가지 경제외적인 순기능을 가지므로, 자유무역과 효율성만이 강조되기보다는 수산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즉 수산업도 농업처럼 FTA에서 공산품과 구분하여 다룸으로써, 수산업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산업부문으로 그리고 농어촌의 다기능성을 고려하여 특별취급을 받도록 협상구조를 형성해야 함. 특히 수산업도 농업부문처럼 시장개방 후 국내산업 피해가 급증할 경우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세이프가드(special safeguards, SSG)의 설치를 추구해야 함.
- 한국과 EU가 지금까지 추진한 FTA 협상에서의 입장 등을 감안한다면, 모든 수산품목이 급속히 양허되기보다는 민감한 품목에 대하여 관세철폐 추진기간의 장기화, 관세할당제 도입, 양허예외의 인정 등이 적극 고려되어야 할 것임.

(2) 수산부문의 기술협력과 이전 추구

- 수산부문의 선진기술과 제도를 가진 EU국가로부터 수산자원 관리, 어구·어법 기술, 어업생산관리 기술, 수산가공 기술, 수산물 위생검역 제도 등의 분야에서 협력과 기술이전을 FTA 협상에서 추구할만함.

5. 소비자 후생도 중시하는 수산정책

- 종전의 공급중심의 수산정책은 어획능력 확대와 산업종사자의 소득증대에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수산자원의 보전과 소비자의 선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제는 수요자 즉 소비자의 입장을 함께 중시하는 수산정책이 요구됨. 즉 소비자 후생을 높이는 신선하고 안전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정책 패러다임이 필요함.
- 이러한 정책기조 하에서 어촌정책은 수산물 생산에 치중하는 정책의 범위를 넘어서 정주공간으로서의 어촌지역의 활성화와 어업인의 전반적인 복지

를 높이는 어촌대책으로 그 기능이 확대되고, 국민들의 영양섭취와 건강 그리고 웰빙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는 정책으로 이해되어야 함.

6. 수산업의 대외진출

- 우리 수산업의 비교우위 부문을 찾아 적극적인 수출 및 해외진출 확대를 모색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비교우위체제에 대한 분석과 함께, 해외 수산물의 향후 높은 구매력을 가지는 EU 시장의 소비패턴 변화와 수입 수요 전망을 분석하여 대응해야 함.